

제 1 교시

2016-2014학년도 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어 영역

홀수형

성명

수험 번호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필적 확인란에 다음의 문구를 정자로 기재하시오.

그대의 오늘 국군의 내일 조국의 미래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 문형 (홀수/짝수), 답을 정확히 표시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盡人事待天命

제 1 교 시



2016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B형

성명	
----	--

수험번호									
------	--	--	--	--	--	--	--	--	--

-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B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 시작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관
망

그러나 반실재론자들은 미적 판단이 단순한 객관적 실재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이미 주관적 평가가 개입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실재론에 반론을 제기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미적 판단은 감상자의 주관적 반응에 의존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된 ‘웅장함’이라는 미적 속성은 ‘웅장하다’는 미적 판단을 내리는 감상자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다. 이 주장은 미적 판단의 주관성과 경험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미적 판단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 이에 따르면 미적 판단의 불일치란 굳이 해소해야 하는 문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다양한 경험, 취미와 감상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적 속성과 미적 판단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고자 하였던 레빈슨의 주장에 의하면, 미적 대상의 감상 과정에서 감상자들은 일차적으로 대상의 비미적(非美的) 속성에 주목한다. 비미적 속성이란 대상의 선, 색, 모양, 질감, 무게, 리듬, 음색 등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다시 정상 지각자에 의해 관찰이나 지각이 가능한 ㉠ 구조적 속성,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지각으로는 그 차이를 포착할 수 없는 ㉡ 하부 구조적 속성, 작품의 발생에 관계하는 주요 요소들, 즉 작품의 창작자나 작품이 속한 경향, 영향 관계 등을 일컫는 ㉢ 맥락적 속성으로 나뉜다.

이러한 비미적 속성을 기저로 하여 발생하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미적 속성을 레빈슨은 ‘현상적 미적 인상’이라 규정하였다. 레빈슨은 현상적 미적 인상을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주관적 입장도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작품의 현상적 미적 인상은 감상자들이 동일하게 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인상의 가치 중립적 속성으로 인해, 그 인상의 기술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술어는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그런데 감상자들이 제한된 범위 내의 술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미적 판단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감상자의 주관성이 개입된다.

예를 들어, 새뮤얼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들은 한 감상자가 이 곡으로부터 현상적 미적 인상을 지각한 후, 이 인상을 기술할 수 있는 술어로 ‘신파적이다’를 선택하고 이를 자신의 미적 판단으로 표현했다고 가정해 보자. 레빈슨에 의하면, 이 술어로 이루어진 미적 판단(‘이 곡은 신파적이다’)은 감상자 자신이 받은 현상적 미적 인상 에 대한 지각과 그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다. 또 다른 감상자가 같은 곡에 대해 ‘이 곡은 우아하다’라는 미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로가 내린 미적 판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감상자들이 받은 인상이 모두 ‘고음의 현악기 위주의 연주, 느린 템포, 단조 선율의 조합이 불러일으키는 인상’이라면, 그들의 판단은 모두 동일한 현상적 미적 인상에 근거한 것으로 그 적절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이들 미적 판단 간의 차이는 동일한 현상적 미적 인상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레빈슨의 견해이다.

1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이론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의 효용을 밝힌 후, 다른 이론과 비교하고 있다.
- ③ 다양한 분야의 사례와 더불어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대비되는 두 이론을 설명한 후, 이들을 포괄하는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⑤ 이론의 현실 적용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18. ㉠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적 판단 간의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② 미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 판단의 주체는 어떠한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가?
- ③ 미적 판단의 다양성에 대한 논쟁이 함의를 도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동일한 대상에 대한 미적 판단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떤 것인가?
- ⑤ 미적 판단의 적절성에 대한 근거가 대상의 외부적 측면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19. ㉠~㉣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찾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 보 기 > —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은 ㉠ 네덜란드의 추상화가 몬드리안의 작품으로, 직선들의 수직적 교차를 통해 형성된 수많은 직사각형들에 의해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 이 ㉡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들 중 일부는 선명한 원색으로 채색되어 두드러져 보인다. ㉢ 엄밀한 측정 결과 이들 직사각형에서 서로 평행 관계에 있는 직선들의 길이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만, 이러한 차이는 감상자들이 대상을 직사각형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20. 레빈슨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거대한 화면을 단일한 색채로 가득 메운 마크 로스코의 색면 회화에 대한 미적 판단은 ‘따분하다’, ‘밋밋하다’, ‘단조롭다’, ‘간결하다’, ‘강렬하다’와 같은 술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층위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감상자들의 입장에서 ‘야하다’라는 술어는 로스코의 작품에 대한 적절한 술어로 평가받지 못한다. ‘야하다’라는 술어는 ‘밝고 부조화스러우면서 눈길을 끄는 색의 조합’이 불러일으키는 인상을 기술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① 평가에 사용된 술어들은 로스코의 작품으로부터 받은 현상적 미적 인상과 그에 대한 감상자의 주관적 평가가 동시에 반영된 것이다.
- ② 로스코의 작품을 판단하는 술어 중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것들은 동일한 현상적 미적 인상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에 존재하는 술어이다.
- ③ ‘밋밋하다’, ‘단조롭다’, ‘간결하다’와 같은 술어를 이끌어내는 현상적 미적 인상은 작품의 색, 면과 같은 비미적 속성을 기저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 ④ 동일한 대상에 대해 ‘따분하다’, ‘강렬하다’와 같은 판단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술어의 선택과 사용 과정에서 감상자의 주관에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 ⑤ ‘야하다’가 로스코의 작품에 대한 술어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이 술어가 현상적 미적 인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내재한 술어이기 때문이다.

[21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의론』을 통해 현대 영미 윤리학계에 정의에 대한 화두를 던진 사회철학자 롤즈는 전형적인 절차주의적 정의론자이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 체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온 공리주의가 소수자 및 개인의 권리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회계약론적 토대 하에 대안적 정의론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롤즈는 개인이 정의로운 제도 하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권리, 임금과 재산, 권한과 기회 등이 필요하며, 이들은 사회의 기본 구조를 통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 체제에 대한 논의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합리적인 개인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원리들을 탐구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고 ㉠ ‘원초적 상황’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원초적 상황’은 정의로운 사회 체제의 기본 원칙들을 선택하는 합의 당사자들로 구성된 가설적 상황으로, 이들은 향후 헌법과 하위 규범들이 따라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들을 합의한다.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계층, 성, 인종 그리고 자신들의 타고난 재능, 취향 등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를 ㉡ ‘무지의 베일’이라고 한다. 단, 합의 당사자들은 인간의 심리, 본성 등에 대한 지식, 제도의 영향력과 같은 사회에 대한 일반적 지식을 알고 있으며, 공적으로 합의된 규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욕구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롤즈는 이러한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사회 체제의 기본 원칙들에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것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무지의 베일을 벗은 후에 겪을지 모를 피해를 우려하여 합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았다.

위와 같은 원초적 상황을 전제로 합의 당사자들은 정의의 원칙들을 선택하게 된다. 제1원칙은 모든 사람이 다른 개인들의 자유와 양립 가능한 한도 내에서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인데, 이를 ‘자유 원칙’이라고 한다. 여기서 롤즈가 말하는 ‘기본적 자유’는 양심과 사고 표현의 자유, 연합의 자유, 정치적 자유, 사적 공간 및 거주와 개인적 재산에 대한 권리, 법치를 받을 자유 등을 포함한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의 두 조건을 만족하는 한에서 허용된다는 것이 제2원칙이다. 제2원칙은 ‘공정한 기회 평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정한 기회 평등의 원칙’은 동등한 능력과 동기를 가진 사람들은 직책이나 직위와 관련하여 동등한 삶의 전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가정이나 계층에서 태어나더라도 그 재능을 계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낮은 계층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기회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뜻한다. ‘차등의 원칙’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고난 조건이 불리한 최소 수혜자에게 불평등을 통해서라도 최대의 이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롤즈는 정의의 원칙들 간의 우선성과 관련하여 제1원칙이 제2원칙에 우선하며, 제2원칙 내에서는 ‘공정한 기회 평등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에 우선한다고 하였다.

롤즈의 정의론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무지의 베일’이 현실적으로 정의의 원칙들이 선택되기에 적합한 상황이 아닐 수 있으며, 사적 재산의 소유권이 침해될 수 있고, 최소 수혜자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롤즈의 정의론은 보다 실질적이고 규범적인 윤리학적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사회 정의에 대한 철학적 논의의 지평을 넓힌 이론으로 평가될 수 있다.

21. 롤즈의 ‘정의론’과 관련하여, 밑줄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은?

- ① 정의의 원칙들 간의 우선 순위
- ② 롤즈의 ‘정의론’의 한계와 의의
- ③ 롤즈의 ‘정의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
- ④ 정의의 원칙들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 조건
- ⑤ 정의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하게 된 이유

2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롤즈는 합의 당사자들이 ㉠에서 정의의 제1, 2원칙을 선택할 것이라고 보았다.
- ② 롤즈는 ㉠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에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을 제시하였다.
- ③ 롤즈는 ㉡ 상태에서 합의 당사자들이 사회 체제의 기본 원칙들에 만장일치로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 ④ 롤즈는 합의 당사자들이 ㉡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겪을지 모를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 ⑤ 롤즈는 ㉠의 합의 당사자들을, 인간과 제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합의를 준수하고 합리적 욕구를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하였다.

23. 밑글에 제시된 롤즈의 견해에 근거하여 <보기>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A국은 국민에게 ‘기본적 자유’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주어지는 민주 사회이다. ‘모든 국민은 성별, 인종 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차별받지 않는다.’는 교육법 조항 하에 학교에 입학할 기회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 단, 국가가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며, 빈곤층의 자녀 중 학교 교육 대신 노동을 택하는 비율이 중산층 자녀의 노동 선택 비율에 비해 높은 편이다.
- B국은 출생 신분에 따라 귀족, 중인, 노예라는 세 계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귀족 계급만이 참정권을 갖고 이동과 거주 자유를 누린다. 중인 계급은 거주 지역이 따로 분리되며 귀족 계급 거주지에 살 수 없다. 귀족 계급은 노예를 소유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 C국은 국민의 기본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하며, 모두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특별한 정책을 실시한다. 빈곤층을 위한 교육·보건 정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할수록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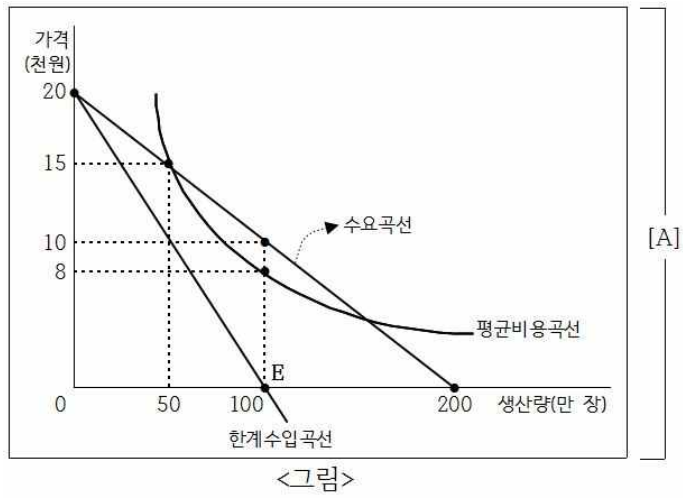
- ① A국은 국민에게 ‘기본적 자유’가 보장되므로 ‘자유 원칙’을 추구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 ② A국은 자신이 속한 환경에 따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정의로운 사회로 볼 수 없다.
- ③ B국은 거주 자유, 정치에 대한 권리가 출신에 따라 제한되므로 정의로운 사회로 볼 수 없다.
- ④ C국은 ‘모두 동일한 출발선상’에서 경쟁을 하므로 ‘자유 원칙’에 어긋나는 사회라고 볼 수 있다.
- ⑤ C국은 사회 경제적 지위 차로 인해 개인의 능력이 발휘될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므로 ‘공정한 기회 평등의 원칙’을 추구하는 사회로 볼 수 있다.

[24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의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주요 생산 요소가 된다. 이러한 정보와 지식이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의미를 갖는 상품을 정보재라고 하는데, 책이나 음반, 영화 DVD,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디지털화가 가능한 재화라는 점에서, 정보재를 ‘디지털화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정보재의 내용인 정보나 지식은 비경합적이어서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기회가 줄어들지 않으며,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라도 소비에서 배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등대, 교량 같은 공공재와 유사하게 비배제성을 띤다. 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보재는 생산과 유통, 소비의 과정이 일반적인 상품과는 뚜렷하게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럼 과연 정보재 시장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까? 앞서 언급한 대로 정보재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생산 초기 단계에서 매우 큰 고정 비용이 들지만 일단 생산이 시작되면 추가적 생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대, 음악 CD를 제작하는 경우 초기 제작 단계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지만, 일단 제작을 마치고 나면 추가적으로 드는 것은 공CD 비용뿐이므로 한계 비용*이 거의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비용이 초기에 발생하는 고정 비용이고, 한계 비용이 0이라고 가정하면 평균 비용 곡선*은 <그림>에서와 같이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게 된다. 이처럼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평균 비용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경쟁 체제가 성립하기 어렵다. 또한 정보재의 특성상 여러 생산자가 완전하게 동질적인 상품을 생산할 수도 없으므로, 정보재 시장에서는 자연적으로 독점화의 경향이 나타난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경쟁 시장과 달리,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가격 설정자가 된다. 따라서 가격 설정자인 독점 기업에게, 주어진 가격에서 얼마만큼 생산할지를 묻는 것은 ㉠ 무의미하다. 독점 기업은 가격과 공급량을 수요 곡선 상에서 선택하기 때문에 독점 기업의 공급 곡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림>

그렇다면 정보재 상품의 가격은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일까? 예를 들어, 음반 회사 S가 가수 B의 새 음반을 제작한다고 하자. 그 음반 1장의 가격이 1만 5천 원일 때의 수요량은 5십만 장으로, 가격이 2만 원일 때의 수요량은 0으로, 가격이 0일 때의 수요량은 2백만 장으로 예상된다. 이 정보에 기초하여 <그림>과 같은 모양의 수요 곡선을 그릴 수 있다.

회사의 이윤은 ‘한계 수입* = 한계 비용’이라는 조건이 충족될 때 극대화될 수 있는데, 한계 비용이 0이라고 가정한다면 한계 비용 곡선은 수평축과 일치하게 된다. 한계 수입 곡선은 앞서 그린 수요 곡선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데, 수요 곡선과 수직축 상 절편은 똑같고 기울기가 두 배인 반직선이 된다. <그림>을 보면 한계 수입 곡선이 수평축과 교차하는 E점에서 ‘한계 수입 = 한계 비용’이 충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에 따라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S는 1백만 장의 음반을 만들어 한 장 당 1만 원의 가격에 팔게 될 것이다. 음반 생산량이 1백만 장일 때의 평균 비용은 8천 원이므로, S는 한 장 당 2천 원의 이윤을 얻어 총 20억 원의 이윤을 얻게 된다.

- * 평균 비용 곡선 : 상품 한 단위 당 생산 비용을 나타내는 곡선.
- * 한계 비용 : 상품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리는 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 * 한계 수입 : 상품 한 단위를 더 팔았을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24.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재와 비교하여 정보재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정보재 상품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정보재의 개념을 도출하고 있다.
- ③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여 정보재 상품의 가격 결정 원리를 밝히고 있다.
- ④ 경쟁 시장과 독점 시장의 차이를 드러내어 정보재 시장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
- ⑤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 답하는 형식으로 정보재 시장의 작동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25.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생산량이 50만 장일 때와 200만 장일 때의 한계 비용은 동일하다.
- ② 생산량이 1백만 장을 초과하면 생산자의 이윤은 감소하기 시작한다.
- ③ 장 당 가격이 2만 원 이상일 경우 수요가 없으므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④ 50만 장을 생산할 경우 평균 비용과 가격이 같으므로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⑤ 장 당 가격이 1만 원일 때 수요량이 최대가 되므로 생산자는 최대치의 이윤을 얻게 된다.

26.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1999년 만들어진 N서비스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 파일(MP3)을 인터넷을 통해 공유할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음반을 구입하지 않고서도 공유된 음악 파일을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서비스 이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음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한 음반 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로 인해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 ① N서비스에서 음악 파일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정보재의 비배제적 성격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② N서비스의 활성화는 음반 회사들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N서비스는 일종의 경쟁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N서비스에서 음악 파일이 유통되는 방식은 독점 시장의 양상을 띠다고 할 수 있다.
- ⑤ 음악 파일은 추가적 생산 비용이 없으므로 음반 회사의 수입과 N서비스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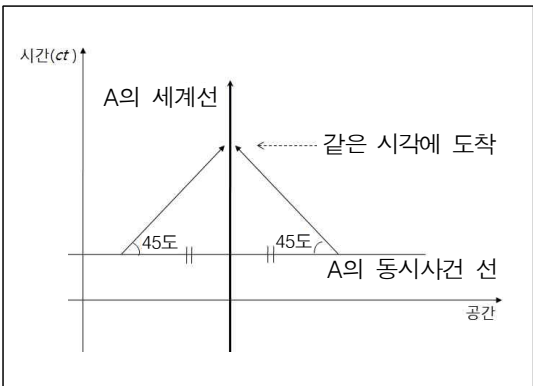
27. ㉠과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말은?

- ① 불가능(不可能)하다
- ② 불가피(不可避)하다
- ③ 불필요(不必要)하다
- ④ 불투명(不透明)하다
- ⑤ 불확실(不確實)하다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05년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기 전까지 물리학자들은 시간과 공간을 별개의 독립적인 물리량으로 보았다. 공간은 상대적인 물리량인 데 비해, 시간은 절대적인 물리량으로서 공간이나 다른 어떤 것의 변화에 의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시간도 상대적인 물리량으로 보고, 시간과 공간을 합쳐서 4차원 공간, 즉 ‘시공간(spacetime)’이라고 하였다. 이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으로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다만 이 시공간은 시간에 해당하는 차원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4차원 공간이라는 특징이 있다.

4차원 시공간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가로축은 공간으로, 세로축은 시간으로 정한 2차원 시공간 그림을 이용하는 것이다. 빛의 속도는 불변하는 상수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시간 축도 공간 축처럼 길이 차원을 갖도록 빛의 속도를 곱하여 나타낸다. 따라서 세로축은 빛의 속도(c)×시간(t) 축으로서 ct로 표시한다. 2차원으로 표현한 시공간 그림에서 한 점을 사건(event)이라고 하며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궤적을 세계선(world line)이라 한다. 정지해 있는 물체의 세계선은 수직선으로 나타나며, 등속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세계선은 수직선에 비해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진 직선으로 표현된다. 세로축에 빛의 속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항상 속도가 일정한 빛은 45도의 직선으로 표현된다. 빛의 속도보다 느린 물체의 세계선은 공간 축에 대해 45도보다 기울기가 커서 시간 축에 가까운 선이며, 실제 세계에서 빛의 속도보다 빠른 물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가상적으로 존재할 경우 45도보다 기울기가 작아서 공간 축에 가까운 선으로 표시된다. 전자를 시간 방향 곡선(timelike curve)이라 부르며, 후자를 공간 방향 곡선(spacelike curve)라고 한다. 이때 속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직선이지만 속도가 변하는 경우에는 직선이 되지 못하므로 일반적으로 곡선이 된다.



<그림>

이러한 시공간 개념에서 ‘동시사건’은 새롭게 이해된다. 동시사건은 같은 시각에 벌어진 사건들로, 특정 시각에 정지한 관찰자 A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서로 반대로 떨어져 있는 두 지점에서 빛의 속도로 관찰자 A를 향하여 각각 신호를 보냈다고 했을 때, 이 관찰자가 두 신호를 같은 시각에 받았다면 두 지점에서 신호를 보낸 각각의 사건이 동시사건이 된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차원 시공간 그림에서 정지한 관찰자에게 이러한 동시사건들은 특정 시각에 공간 축과 평행한 선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A의 동시사건 선들은 A의 입장에서 특정 시각에서의 공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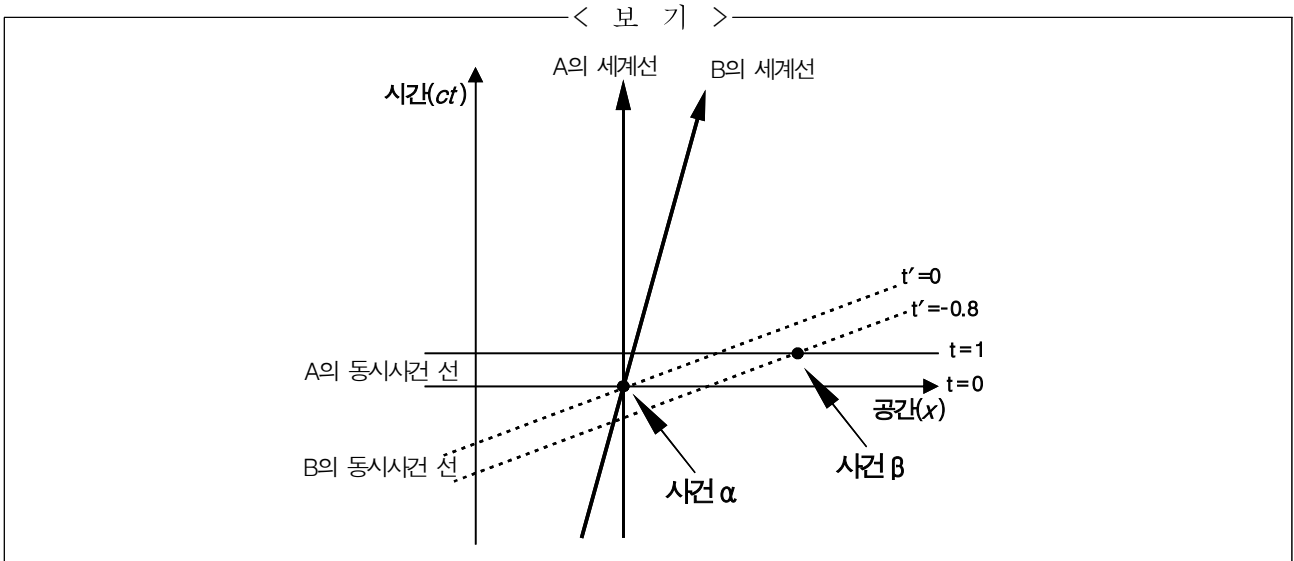
이와 달리 등속으로 움직이는 관찰자의 세계선은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수직선에 비해 공간 축 방향으로 일정한 각도로 기울어진 직선으로, 기울기가 공간 축에 대해 45도보다 큰 직선으로 표시된다. 이때 움직이는 관찰자의 동시사건 선은, 세계선이 시간 축으로부터 기울어진 각도만큼 공간 축에 수평인 선이 세계선을 향하여 기울어진 각도의 선이 된다. 그러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의 좌표계는 정지한 관찰자와 같이 직교하는 좌표계가 아니라, 시간 축과 공간 축이 90도보다 작은 각도로 서로 교차하는 좌표계가 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관찰자들의 운동 상태와 속도 등에 따라 동시사건들이 다르며, 심지어 관찰자들이 인식하는 사건들의 순서도 뒤바뀔 수 있게 된다. 가령 정지 관찰자 A에게 사건 α가 t=0에 발생하고, 사건 β는 t=1에 발생하여 사건 α가 사건 β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인 경우라 하더라도, 광속에 가까운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 B에게는 그에 비례하여 동시사건 선이 B의 세계선을 향하여 기울기 때문에, 사건 β가 포함된 동시사건이 사건 α가 포함된 동시사건 선보다 아래에 있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사건들의 순서가 관찰자들의 운동 상태와 속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중의 하나이다.

28.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시공간’에서 빛의 속도는 관찰자에 따라 변할 수 있다.
- ② ‘시공간’ 개념에서 시간과 공간은 서로 구별되지 않는다.
- ③ 실제 세계에서 빛보다 빠른 물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④ 아인슈타인은 공간과 시간을 모두 상대적인 물리량으로 보았다.
- ⑤ ‘시공간’은 시간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제한된 4차원 공간이다.

29. <보기>는 [가]를 2차원 시공간 그림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에게 사건 α는 동일한 시공간의 사건이다.
- ② A와 B에게 사건 β는 사건 α보다 먼 공간의 사건이다.
- ③ A에게 사건 순서는 α→β, B에게 사건 순서는 β→α이다.
- ④ A의 입장에서 t=1일 때 사건 α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다.
- ⑤ B의 입장에서 t'=0일 때 사건 β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다.

30. 밑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2차원 시공간 그림에서 시간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겠군.
- ② 2차원 시공간 그림에는 물체 하나의 운동만을 표시할 수 있겠군.
- ③ 2차원 시공간 그림에서 정지한 관찰자의 다른 시각의 ‘동시사건 선’은 서로 직교하겠군.
- ④ 2차원 시공간 그림에서 실제 세계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세계선은 ‘시간 방향 곡선’이 되겠군.
- ⑤ 2차원 시공간 그림에서 ‘세계선’과 ‘동시사건 선’의 교차각은 관찰자의 속도에 비례하여 커지겠군.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진(長津) 땅이 지붕 넘어 넘석하는* 거리다
 자구나무 같은 것도 있다
 기장감주에 기장차떡*이 혼한 데다
 이 거리에 산골 사람이 노루 새끼를 다리고 왔다

산골 사람은 막베등거리* 막베잠방등에*를 입고
 노루 새끼를 닮았다
 노루 새끼 등을 쓸며
 터 앞에 당콩 순*을 다 먹었다 하고
 서른 닷 냥 값을 부른다
 노루 새끼는 다문다문* 흰 점이 백이고 배 안의 털을 너슬너슬* 벗고
 산골 사람을 닮았다

산골 사람의 손을 훑으며
 약자*에 쓴다는 흥정 소리를 듣는 듯이
 새까만 눈에 하이얀 것이 가랑가랑한다

- 백석, '노루 - 함주시초(咸州詩抄) 2' -

- * 넘석하는 : 넘어다보이는.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갈 만큼 가까운.
- * 기장감주, 기장차떡 : 기장으로 만든 식혜와 찰떡.
- * 막베등거리 : 막베(거칠게 짠 베)로 만든, 등만 털을 만하게 만든 홑옷.
- * 막베잠방등에 : 막베로 만든,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홑바지.
- * 당콩 순 : 강낭콩 순.
- * 다문다문 : 사이가 배지 않고 드문 모양.
- * 너슬너슬 : (굵고 긴 털이나 풀 따위가) 부드럽고 성긴 모양.
- * 약자 : 약재.

(나)

- [A] 산이라 해서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다 험하고 가파른 것은 아니다
 어떤 산은 크고 높은 산 아래
 시시덕거리고 웃으며 나지막이 엎드려 있고
- [B] 또 어떤 산은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에서
 슬그머니 빠져 동네까지 내려와
 부러운 듯 사람 사는 꼴을 구경하고 섰다
 그리고는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순하디순한 길이 되어 주기도 하고
- [C] 남의 눈을 꺼리는 젊은 쌍에게 짐짓
 따뜻한 사랑의 숨을 자리가 돼 주기도 한다

- [D] 그래서 낮은 산은 내 이웃이던
간난이네 안방 왕골자리처럼 때에 절고
그 누더기 이불처럼 지린내가 배지만
눈개비나무 찰피나무며 모깃대 개썩에 덮여
곤줄박이 개개비 휘파람새 노랫소리를
듣는 기쁨은 낮은 산만이 안다
- [E] 사람들이 서로 미워서 잡아 죽일 듯
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다가도
침녕쿨처럼 머루 녕쿨처럼 감기고 어우러지는
사람 사는 재미는 낮은 산만이 안다
- [E] 사람이 다 크고 잘난 것만이 아니듯
다 외치며 우뚝 서있는 것이 아니듯
산이라 해서 모두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모두 흰 구름을 겨드랑이에 끼고
어깨로 바람 맞받아치며 사는 것은 아니다

-신경림, '산에 대하여'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각적 이미지를 동원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이야기 형식을 통해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④ 불완전한 문장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⑤ 이질적인 공간을 병치하여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백석의 시에는 '보는 주체'만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으로써 화자가 눈여겨보는 대상들이 작품의 전경이 된다. '보는 주체'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상들을 관찰하기도 하지만 대상들의 외적 경계를 허물고 그 속으로 스며들어가기도 한다. 이러한 눈을 가진 화자는 마침내 자신과 대상, 대상과 대상들 간의 근원적 동일성을 발견하거나, 대상과의 감정적 유대에 이르게 된다.

- ① '장진 땅이 지붕 너머 넘석하는 거리', '자구나무 같은 것도 있다'는 일정한 거리를 둔 관찰이라 할 수 있다.
- ② '산골 사람'과 '노루 새끼'는 화자의 눈길을 사로잡는 대상으로 작품의 전경이 되고 있다.
- ③ 화자가 대상과의 동일성을 발견했음이 '산골 사람은 막베등거리 막베잠방등을 입고'에서 드러난다.
- ④ '노루 새끼 등'을 쓰는 '산골 사람', '산골 사람의 손'을 훔는 '노루 새끼'는 대상들 간의 동일성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새까만 눈에 하이얀 것이 가랑가랑한다'는 '노루 새끼'에 대해 화자가 감정적 유대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33. (나)의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부정어의 반복을 통해 ‘낮은 산’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 ② [B] :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낮은 산’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③ [C] :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낮은 산’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D] :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대조하여 ‘낮은 산’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⑤ [E] : [A]를 반복적으로 변주하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는 건주의 오랑캐를 토벌하기 위해 조선에 원군을 청한다. 김영철은 도원수 강홍립을 따라 종군했다가 포로가 되어 처형될 위기에 처한다. 이때 오랑캐 장수 아라나가 영철을 구해 내 건주의 농사일을 맡기고, 제수와 혼인시킨다. 영철은 두 아들 득북과 득건을 얻는다. 그 후 영철은 명나라 사람인 전유년과 함께 등주로 달아나 그의 누이동생과 혼인하여 또다시 두 아들을 두지만, 결국 조선 사신의 도움을 받아 귀국한다.

신사년에 유림이 군대를 이끌고 금주(錦州)에 갈 때 영철은 또 종군하게 되었다. 오랑캐 측에서는 아라나를 진중(陣中)에 보내 군사 업무를 의논하게 했다. 아라나가 진중에서 영철을 보고는 이렇게 꾸짖었다.

“나는 네게 세 가지 큰 은혜를 베풀었다. 네가 참수형을 받아야 할 처지였을 때 죽음을 모면하게 한 것이 그 하나다. 네가 두 번이나 도망가다 잡혔지만 죽이지 않고 풀어 준 것이 그 둘이다. 내 제수를 너의 아내로 주고 네게 건주(建州)의 집안 살림을 맡긴 것이 그 셋이다. 하지만 너는 세 가지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지었다. 목숨을 살려 주고 거두어 기른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재차 도망간 것이 첫 번째 죄다. 네게 말을 기르게 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네게 부탁했건만 너는 도리어 명나라 놈과 짜고 나를 배신했으니, 이것이 두 번째 죄다. 도망가면서 내 천리마를 훔쳐 갔으니, 이것이 세 번째 죄다. 네가 도망간 건 그리 한스럽지 않다만, 내 천리마를 잃은 것은 너무도 한스러워 지금 까지 마음이 아프다. 내 반드시 네 목을 베리라!”

그러고는 휘하 기병을 시켜 영철을 포박하게 했다.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영철이 큰소리로 외쳤다.

“말을 훔쳐 달아난 죄는 제게 있지 않습니다. 그건 명나라 놈들이 한 것입니다. 당시에 그놈들의 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아홉 명이 저를 베는 건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습니다. 주공(主公)께서는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아라나는 영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유림이 아라나를 달래며 말했다.

“영철이 죄를 짓긴 했습니다만, 공께서 예전에 살려 주셨으면서 지금 죽인다면 끝까지 덕을 베풀지 못하는 게 되고 맙니다. 제가 영철의 죄에 대한 대가를 후히 치르고자 하니 은덕을 온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잎담배 이백 근을 짓값으로 치렀다.

이때 득북(得北)이 오랑캐 군중에 있었는데, 아라나가 영철에게 말했다.

“네 아들을 보고 싶지 않은가?”

즉시 득북을 불러오게 했다. 부자가 마주 보고 눈물을 흘리니, 진중에서 이 광경을 본 모든 이들이 슬퍼하며 한숨

을 내쉬었다. 이로부터 득복은 매일 술과 밥, 반찬과 과일을 차려 와 영철을 대접했다. 영철은 귀한 과일은 유럽에게 먼저 올리고, 물러 나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이때 오랑캐가 금주를 포위했다. 명나라에서는 십만 군사를 구원병으로 보내 오랑캐와 싸움을 벌였으나 대패하고 말았다. 유럽은 영철을 홍타이지*에게 보내 축하 인사를 하게 했다. ㉠ 아라나는 홍타이지에게 영철의 지난 일을 고하며 벌을 줄 것을 청하였다. 그러자 홍타이지는 손을 들어 남쪽을 가리켜 보이더니 이렇게 말했다.

“영철은 본래 조선 사람인데, 팔 년 동안은 우리 백성이었고 육 년 동안은 등주(登州) 백성이었다가 이제 다시 조선 백성이 되었다. 조선 백성 또한 우리 백성이다. 더구나 큰아들이 군중에 있고 작은아들은 우리 건주에 있으니, 부자가 모두 우리 백성인 셈이다. ㉡ 저 등주라고 해서 어찌 우리 백성이 될 수 없겠느냐? 내가 천하를 얻음 이로부터 시작되리니, 이 사람이 온 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홍타이지는 영철에게 비단 열 필과 몽고말 한 필을 하사하였다. 영철은 감사의 절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을 아라나에게 주어, 제 목숨을 살려 준 은혜에 보답하고 말을 흠뻑던 젖값을 치렀으면 합니다.”

홍타이지가 말했다.

“영철은 자기 잘못을 알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라 할 만하구나.”

이에 그 말을 아라나에게 주고, 영철에게는 다시 노새 한 마리를 주었다. ㉢ 영철은 자기가 타던 말을 득복에게 주며 돌아가 득건에게 주라고 했다.

몇 달 뒤 조선에서 교대할 군대가 오자 영철은 봉황성*으로 돌아갔다. 유럽이 영철에게 말했다.

“금주에서 네 젖값을 치르기 위해 내놓은 일담배는 호조(戶曹)의 군수 물자이니, 네가 갚도록 해라.”

영철이 집으로 돌아와 몇 달이 지나자, 호조에서 관향사(管餉使)*에게 공문을 보내 영철에게 은 이백 냥을 받아 내라고 독촉했다. 영철은 노새를 팔고 가산을 모두 털었지만 겨우 그 절반밖에 낼 수 없었다. 나머지 일백 냥을 마련할 길이 없어 친척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역시 부족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이 모두 슬피 여겼다.

이에 앞서 영철의 아버지가 안주 전투에서 사망했을 때 영철의 어머니는 남편의 옷으로 초혼제(招魂祭)를 올리고자 그 옷가지를 남겨 두었다. 영철은 조선으로 돌아온 뒤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안주로 갔다. 안주성에 올라 사망을 두루 돌며 호곡하면서 부친의 혼을 부르자,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 “내가 죽거든 꼭 이 옷을 함께 묻어다오.”

마침내 어머니가 숨을 거두자 영철은 아버지의 옷을 함께 묻어 장사를 지냈다.

영철은 의상(宜尙), 득상(得尙), 득발(得發), 기발(起發) 네 아들을 두었는데, 자신이 종군하며 겪은 고통을 늘 생각하며 자식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무술년에 조정에서 자모산성*을 고쳐 쌓으며 성을 방비할 병사를 모집했는데, 이에 응한 사람은 군역을 면해 주었다. 영철이 즉시 네 아들과 함께 성으로 들어가 살았으니, 이때 이미 영철의 나이 예순이 넘었다.

영철은 가난 속에서 하릴없이 늙어 가며 가슴속에 불평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 성 위에 올라가 북쪽으로 건주를, 남쪽으로 등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있노라면 서글픈 생각에 눈물이 떨어져 옷깃을 적셨다. 영철은 언젠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 처자식을 저버리고 와 두 곳의 처자식들로 하여금 평생을 슬픔과 한탄 속에서 살게 했으니, 지금 내 곤궁함이 이 지경에 이른 게 어찌 하늘이 내린 재앙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타국에 떨어져 살다 끝내 부모의 나라로 돌아왔으니 또한 한스러이 여길 게 뭐 있겠나?”

영철은 이십여 년 간 성을 지키다가 여든넷에 죽었다.

— 홍세태, ‘김영철전’ —

* 홍타이지 : 청나라 태종.

* 봉황성 : 압록강 서쪽에 있는 성.

* 관향사 : 국경 방비에 쓰일 군량을 관리하기 위해 평안도에 설치한 관직.

* 자모산성 : 평안도 자산군에 있는 산성.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이 시종일관 변하지 않고 있다.
- ③ 초월적 인물이 등장하여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 ④ 행복한 결말을 통해 작품의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환상적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 : 영철을 용서하지 못하는 아라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군.
- ② ㉡ : 홍타이지는 등주마저 차지하겠다는 속내를 내비치고 있군.
- ③ ㉢ : 둘째 아들인 득건을 생각하는 영철의 마음이 나타나 있군.
- ④ ㉣ : 저승에서라도 전사한 남편과 함께하고픈 어머니의 소망이 표출되어 있군.
- ⑤ ㉤ : 건주와 등주에서의 행복했던 삶을 그리워하는 영철의 마음이 드러나 있군.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김영철의 일생은 명(明)과 후금(後金)이 격돌하던 시대적 격변기에 조선의 서민들이 겪어야 했던 삶의 질곡을 잘 보여준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겪어야 했던 종군의 괴로움, 포로 생활의 고통, 가족과의 이산의 슬픔, 서민에게 부과되었던 군역의 가혹함, 지배층의 무책임함에 대한 비판 의식이 작품 속에 두루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걸쳐 우리나라 소설이 거둔 새로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① 영철이 유림을 따라 또다시 종군했다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조선군의 출병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어.
- ② 아라나가 진중에서 영철을 꾸짖는 말 속에서, 명과 후금 사이에 끼어 고통받던 조선 사람들의 삶의 질곡을 엿볼 수 있어.
- ③ 영철과 네 아들이 자모산성을 수리하고 방비하는 일에 응하는 장면은, 혹독한 군역에 시달렸던 서민들의 현실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어.
- ④ 영철이 처자식을 버리고 부모의 나라로 귀국한 것은, 그가 가족 간의 도리보다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더 중요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어.
- ⑤ 호조가 관향사를 독촉하여 영철에게서 일담배 값으로 은 이백 냥을 받아내려 하는 장면은, 서민들의 곤궁한 처지를 외면하는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어.

[37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청산(靑山)는 옛데흐야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옛데흐야 주야(晝夜)에 굿디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디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 호리라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나)

청산(靑山)은 내 뜻이오 녹수(綠水)는 님의 정(情)이
녹수(綠水) 흘러간들 청산(靑山)이나 변(變)홀손가
녹수(綠水)도 청산(靑山)을 못 니져 우러 예어 가논고

- 황진이 -

(다)

님다히 소식(消息)을 아쁘려나 아자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너일이나 사름 올라
내 마음 둘 터 업다 어드러로 가갓 말고
잡거니 밀거니 **놉픈 피히** 올라가니
구름은쿠니와 안개는 므스 일고
산천(山川)이 어둡거니 일월(日月)을 엇디 보며
지척(咫尺)을 모르거든 천리(千里)를 바라보라
출하리 **물그의** 가 빅길이나 보라 하니
브람이야 물결이야 어등정 된더이고
샤공은 어딤 가고 빈 비만 걸렛논고
강턴(江天)의 혼자 서서 디는 히를 구버보니
님다히 소식(消息)이 더욱 아득헌더이고
모첨(茅簷) 춘 자리의 밤등만 도라오니
반벽청등(半壁靑燈)은 놀 위흐야 불갓논고
오르며 느리며 헤쓰며 바니니
저근덧 녀진(力盡)흐야 꽃즈음 잠간 드니
정성(精誠)이 지극흐야 **꿈**의 님을 보니
옥 그튼 얼굴이 반(半)이나마 늘거세라
마음의 머근 말슴 슬크장 숲자 하니
눈물이 바라나니 말슴인들 어이 하며
정(情)을 못 다흐야 목이조차 메여하니
오던된 계성(鷄聲)의 즘은 엇디 씨뎡던고
어와 허스(虛事)로다 이 님이 어딤 간고
결의 니러 안자 창(窓)을 열고 바라보니
어엿븐 그림재 날 조출 썬이로다
출하리 식여디여 **낙월(落月)**이나 되야 이서
님 겨신 창(窓) 안히 번드시 비취리라
각시님 들이야쿠니와 구즌비나 되쇼서

- 정철, '속미인곡(續美人曲)' -

3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부재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 ② 4음보의 율격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계절감을 주는 어휘로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8.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초장과 중장의 대구를 통해 '청산'과 '유수'의 유사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군.
- ② (나)의 화자는 '청산'을 자신과, '녹수'를 '님'과 동일시하여 대비하고 있군.
- ③ (나)의 화자는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신이 주목한 대상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군.
- ④ (가)와 (나)의 화자는 물의 흘러가는 속성에서 각기 다른 시적 의미를 도출하고 있군.
- ⑤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시간의 경과 속에서 느끼는 인간의 허무감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군.

39. <보기>의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님'의 상실을 전제로 한 애정 시가의 경우 '나'가 있는 장소인 '여기'와 '님'이 있는 장소인 '거기'가 구별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시적 상황을 분석해 보면, '님'은 제자리에 있고 '나'가 '거기'에서 이탈한 경우와 '나'는 제자리에 있는데 '님'이 '여기'에서 이탈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를 감상해 본다면 '님'의 상실은 _____ [A] _____ 이라는 상황 인식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나'가 '거기'로 돌아갔기 때문
- ② '님'이 '여기'를 이탈했기 때문
- ③ '나'와 '님'이 '거기'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
- ④ '나'가 '여기'를, '님'이 '거기'를 이탈했기 때문
- ⑤ '나'와 '님'이 '여기'에서 '거기'로 이탈했기 때문

40.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속미인곡(續美人曲)>에는 임에게 버림받은 시적 화자가 등장한다. 시적 화자는 임과의 거리가 멀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도달 가능한 최대의 수직적, 수평적 공간에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노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시적 화자의 노력은 ‘꿈’이라는 반(半)현실적 공간으로까지 연장되지만 실패하고, 결국 시적 화자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죽음이라는 비극적 초월로 극복해 보고자 한다. 임을 향한 시적 화자의 노력과 사념은 공간의 이동과 맞물려 점차 강화되는 특성을 보이며, 시적 화자의 고뇌와 절망 역시 점차 깊어지는 구조적 특징을 보인다.

- ① ‘내 멍읍 둘 디 엇다’는 것은 임에게 버림받은 시적 화자의 내면 상태로 볼 수 있군.
- ② 시적 화자가 ‘높은 퇴’를 오르는 것은 임과의 거리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수직적 극대화로 볼 수 있군.
- ③ ‘물기’에서 ‘님다히 소식’을 아득하게 느끼는 것은 현실에서는 더 이상 임을 사랑하지 않게 된 화자의 마음으로 볼 수 있군.
- ④ ‘썸’에서 임과 온전히 재회하지 못하는 것은 반현실적 공간에서 확인되는 시적 화자의 절망으로 볼 수 있군.
- ⑤ 시적 화자가 죽어서 ‘낙월’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고뇌와 절망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비극적 초월로 볼 수 있군.

[41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주 수남 모에 이어 사람 좋은 함평까지 갑자기 목청을 높이는 바람에 눈을 떠 보니, 용순이 어디서 제간엔 할머니를 위한 제수랍시고 양주 한 병을 구해와 제 손수 제상 위에다 올려놓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용순은 그 어른들의 질책을 들은 시늉도 않은 채 그 할머니 영정 앞에 놓인 동화책을 구실 삼아 다시 준섭을 물고 늘어졌다. “흥, 이건 또 뭐예요? 삼촌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를 생각해서 이런 책까지 미리 써 놓은 거예요? 하긴 삼촌은 역시 삼촌이신데 어련하셨을라구요. 이것도 다 머리를 잘 굴리는 삼촌식 아니겠어요. 내가 내 식으로 할머니를 위해서 제상에 양주병을 올려 드린 것처럼 말예요.”

아침 녘 이후로 장혜림과는 이미 무슨 말이 좀 오간 듯싶기도 했지만, ㉠ 용순은 그 할머니의 얼굴 모습까지 새겨진 동화책의 표지를 함부로 들춰 대며 심통기가 여전했다.

“하지만 삼촌, 이젠 제발 좀 적당히 해 두세요. 나 삼촌한테 정말 질리고 말았어요.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 삼촌을 좀 이해하고 가까이도 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삼촌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러니 삼촌이 좀 빈 데를 보여주세요. 허술하고 모자란 데를 보여 주시란 말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삼촌을 이해하고 삼촌 가까이로 다가가 볼 수가 있지요? 삼촌이 그걸 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용순의 그런 원정*은 물론 준섭에 대한 불만 때문만이 아니었다. 방금 전에 저를 질책한 어른들이나 집안 사람들 전부에 대한 포원* 때문이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은지네가 보다 못해 명칭히 앉아 있지만 한 준섭을 대신하여 모처럼 매섭게 넌을 꾸짖고 나섰다.

“용순이 너 보다보다 이젠 정말 더 못 보겠구나. 큰일 치를 동안은 참아 넘기려 했지만 정말 더는 못 보겠어. 그래, 삼촌이 지금 무얼 잘못해서 그래. 삼촌이 이 마당에 할머니 이야기를 곱게 써 바친 것이 무엇이 그리 못마땅해. 용순이 너 혼자서 할머니 생각했어? 우린 그저 할머니 고생하고 앓다 가신 거 구경만 하고 있었는 줄 알아? 용순이 너야말로 할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 드렸어. 인제사 말이지만 할머니 치매증은 할머니 혼자서만

[A] 앓으신 병환이 아니셨어. 우리집 온 식구가 할머니 곁에서 그걸 함께 앓아 왔어. 그런데 너는 그동안 어디서 무얼 했어. 할머니가 가장 어렵고 힘드실 때 너는 그 할머니께 무엇을 해 드렸지? 너는 할머니한테 그냥 받기만 해 온 거야. 제가 드리지는 않고 받기만 하면서, 더 받질 못해서 혼자 아쉬워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며 이런 패악질이나 일삼는 것이 —, 그것이 네 식으로 할머니를 위해 드리는 길이야? 그건 철부지들이나 좋아 할 유치한 투정일 뿐이야.”

누구보다 말이 없고 만만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숨도 쉴 틈 없이 몰아붙이는 바람에 ㉠ 용순은 처음 한동안 기가 질린 듯 표정이 굳어져 있다가 나중에 차라리 어이가 없다는 듯 비실비실 웃음기 속에 무시하는 태도를 짓고 있었다. 은지네가 다시 그 용순에게 준섭을 대신해 일렀다.

“그 책은 삼촌이 쓰셨지만, 우리가 할머니의 병환을 함께 앓아 온 이야기야. 그러니 너도 이젠 심통만 부리지 말고 그 책을 한번 읽어 봐. 그래서 우리집 식구들이 할머니의 치매증을 어떻게 함께 앓았고 그것을 어떻게 서로 곱게 앓고 싶어했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할머니를 곱게 보내 드리려 소원해 왔는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 봐. 생각처럼 할머니를 잘 모시지는 못했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더 마음 아파하고 죄스러워해 온 삼촌의 속마음도..... 나는 그동안 할머니에 대한 우리 집안 식구들의 아픈 소망을 이렇게 글에 담아 써 주신 삼촌이 고맙고, 할머니께서도 그걸 기뻐하시리라 믿어. 그걸 읽어 보고 더 투정을 부리든지 행패를 부리든지 네 알아서 해. 그때는 나도 더 아무 말 않을 테니까.”

㉡ “자네가 대신 매를 들어 주니 나는 입을 두고도 할 말이 없네만, 자네도 그렇게 큰소리를 칠 만큼 괴롭이 많았던 줄은 몰랐네이!”

아랫동서가 너무 자신의 뒷감당 노릇을 내세우려 드는 것쯤으로 알았던가. 이번에는 외동댁이 그런 은지네 쪽을 고까워하는 어조로 비양대고 드는 바람에 용순도 은지네도 더 입을 열지 못하고 시비는 서로 표적이 물고 물린 꼴이 되어 끝이 나게 되었다.

- 노다 가세. 노다 가세. 오늘 안 놀면 언제 노나

상여꾼들은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의 불화를 모른 척 싸 덮어 넘어가 주려는 듯 **홍겨운 노랫가락**까지 떠지르며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

준섭은 그 **귀가 멍멍해 오는 소란통** 속에 노인의 혼령을 지키듯 당신의 영좌를 향해 다시 **목상**을 계속해 나갔다.

-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그 나이와 함께 지혜가 쌓이게 되고, 지혜가 마음속 가득 찬 어른이 되고 나면 그 지혜가 삭아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넘치고 싶은 사랑이 된단다. 할머니께서 은지를 위해 나이를 나눠 주시고 지혜를 나눠 주시는 것은 모두 그 할머니의 사랑 때문이란단다. 그러니 그 사랑 때문에 할머니는 키가 작아지고 몸집이 작아져서 점점 더 어린애가 되어 가시는 것도 아랑곳 앓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신 거란다.

㉢ 그 역시 동화 속의 아빠가 딸아이에게 해 준 설명이요 준섭이 실제로 딸아이에게 일러 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노인이 그 한생애로 준섭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고 지금은 침묵 속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 하지만 이제 누가 당신의 그런 사랑을 기리고 명념하려 하는가. 물어 보내지 않고 지니고 싶어 하는가.

- 청청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상여꾼들의 취흥과 노랫소리는 이제 그 질탕한 아리랑 가락으로 절정을 이뤄 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에 준섭은 다시 그 동화 속의 딸아이에게 의탁해 보였던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으로 노인에 대한 그의 **소망과 기구**를 마음 깊이 혼자 되새겨 나가기 시작했다.

.....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나 새 옷 입혀 줘.’

할머니는 이날도 몸을 조그맣게 오므리고 어린 아기처럼 췌근췌근 깊은 낮잠을 주무시다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맑은 정신이 드신 목소리로 엄마에게 갑자기 새 옷을 줄라 대셨습니다.

그런 다음 할머니는 엄마가 정성껏 다려 입혀 드린 새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옛날처럼 가지런히 몸을 개고 앉아, 이날따라 그 할머니를 위해 찾아온 듯싶은 한 쌍의 흰색배추꽃나비를 창밖으로 오래오래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B] 그런데 얼마 뒤, 바깥일에서 돌아오신 아빠가 그 할머니의 방엘 들어갔다 나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오늘 마지막 남은 나이를 다 나눠 주신 모양이다. 할머니의 영혼이 옛 모습의 옷을 벗고 우리 곁을 떠나가셨구나…….’

은지는 그 할머니의 영혼이 조용한 숨결을 타고 슬며시 은지네를 떠나시며, 옷을 벗어 개켜 놓듯 곱게 벗어 놓고 가신 하얗고 조그만 옛날 모습 앞에 혼자 다짐하셨습니다.

‘할머니 안심하고 떠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새 아기로 태어나세요. 할머니께서 저한테 나눠 주신 나이는 제가 잘 맡아서 간직하고 있을게요…….’

준섭의 감은 눈 속에서도 그날 은지가 보았다는 하얀배추꽃나비들이 팔랑팔랑 끝없이 푸른 하늘로 날아오고 있었다.

- 이청준, ‘축제’ -

* 원정 : 원망하는 마음.

* 포원 : 원한을 품음.

4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진행되는 사건과 함께 인물의 내면이 서술되고 있다.
- ② 장면의 잦은 전환을 통해 서사를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용순이 동화책을 빌미로 준섭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② ㉡ : 용순이 은지네의 말에 당황해 하다가 나중에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 : 은지네가 한 말에 대해 외동댁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 동화책이 실제 준섭의 어머니와 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 어머니가 보여 주셨던 사랑과 삶의 지혜가 은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드러난다.

4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과 자신들의 행동을 대비시키고 있다.
- ② 단정적 진술을 통해 상대의 행위를 규정짓고 있다.
- ③ 질문을 연이어 던지면서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있다.
- ④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이 비난하는 사람을 자신이 대신하여 옹호하고 있다.

44.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장례’를 ‘축제’라고 명명함으로써 전통적인 ‘장례’의 성격을 재조명한다. 일반적으로 ‘축제’는 일상이 정지되고 혼돈과 무질서가 드러나는 시공간이다. 이 작품에서의 ‘장례’ 역시 일상이 정지되고, 모인 사람들이 망자를 애도하는 가운데 이질적인 것들이 혼재하는 ‘축제’와 같다. 이러한 ‘장례’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저마다의 묵은 감정들을 풀어냄으로써 마침내 화해와 융합에 이르게 된다.

- ① 망자를 애도하기 위한 ‘장례’에서 용순, 은지네, 외동댁은 저마다의 묵은 감정을 풀어내고 있다.
- ② ‘난장판’, ‘소란통’과 같은 표현에서 ‘축제’로서의 ‘장례’가 갖는 혼돈과 무질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집안 사람들의 불화’와 이를 싸 덮는 ‘홍겨운 노랫가락’은 이질적인 것들이 혼재하는 ‘장례’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준섭이 ‘장례’를 계기로 가족들에게 자신의 ‘소망과 기구’를 드러냄으로써 가족 간의 화해와 융합이 가능해지고 있다.
- ⑤ ‘귀가 멍멍해 오는 소란통’과 준섭의 ‘묵상’이 대비를 이루면서 ‘장례’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애도와 소란스러움이 공존함을 보여주고 있다.

45.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혼이 옛 모습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할머니가 ‘조그맣게 오므리고 어린 아기’처럼 자는 모습은 병들고 약해진 할머니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
- ③ 준섭은 ‘하얀배추꽃나비들’이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떠올리면서 나비를 할머니의 영혼과 연결짓고 있다.
- ④ ‘마지막 남은 나이를 다 나눠 주’셨다는 ‘아빠’의 말에는 할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에 대한 자책이 담겨있다.
- ⑤ 할머니가 ‘예쁘고 착한 새 아기’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은지의 모습에서 할머니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 시



2016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A형

성명

수험번호

-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B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 시작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육 군 사 관 학 교

관
망

[16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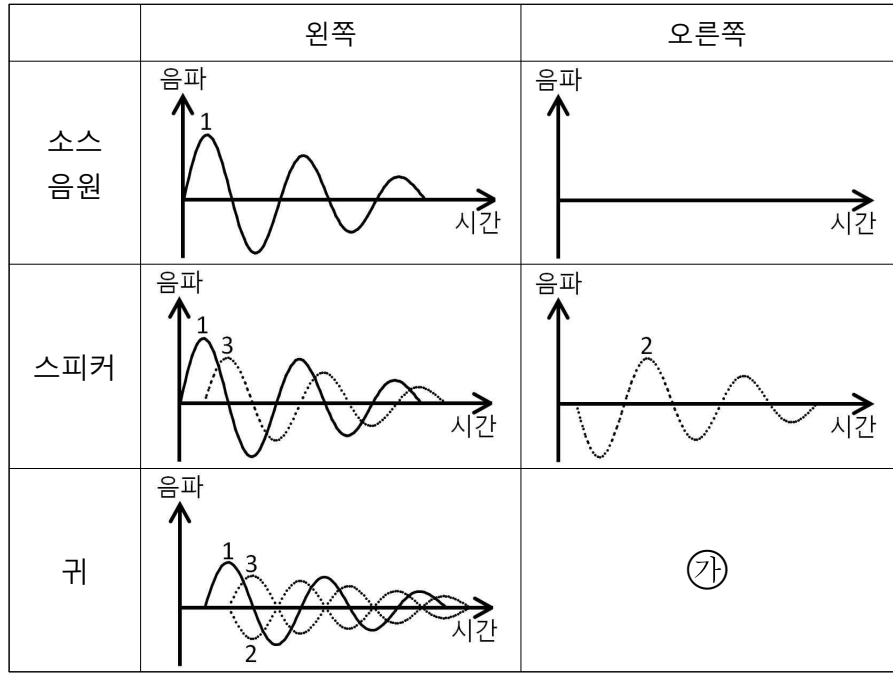
사람은 두 귀로 3차원 공간 상에서 음원의 위치를 판별할 수 있다. 이는 음이 두 귀에 도달하는 시간차(ITD)와 두 귀에서 느끼는 음의 세기차(ILD) 때문이다. 이를 바이노럴(binaural) 효과라 하며, 이 효과를 반영하면 음원의 위치를 3차원 공간 상의 어느 곳이나 위치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입체 음향 기술이라고 한다.

입체음향용 음원을 제작할 때는 주로 ‘더미 헤드(dummy head)’를 사용한다. 사람 머리 모양인 더미 헤드 양옆의 모조 귀 안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하여 음원을 녹음하면, 제작자가 3차원 공간 상에 임의로 위치시킬 수 있는 음원이 녹음된다. 이를 바이노럴 음원이라고 한다. 바이노럴 음원 제작 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는 양 귀를 잇는 축을 기준으로 할 때, 그 축의 중심점으로부터 같은 각도와 거리를 갖는 위치들의 경우 ITD와 ILD가 같기 때문에 서로 구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더미 헤드는 머리 크기나 귓바퀴의 모양 등 청각과 관련된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실제 이 음원을 청취할 때 음원 위치 지각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바이노럴 음원을 헤드폰으로 청취할 경우 청취자는 별도의 신호 처리 과정 없이도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바이노럴 음원은 헤드폰을 기준으로 음의 위치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헤드폰이 움직이면, 즉 사람의 머리가 움직이면 음원의 방향도 함께 움직이는 단점이 있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동일한 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가정에서 스피커를 이용해 청취할 경우 입체감은 현저하게 감소된다. 닫힌 공간 구조를 가진 헤드폰과 달리 열린 공간 구조를 갖는 스피커 청취 환경으로 인해, 한쪽 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출력된 소리가 청자의 반대편 귀에도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원치 않는 소리가 반대편 귀로 들어가는 현상을 ‘크로스토크(crosstalk)’라고 한다. 크로스토크는 스피커를 이용한 입체 음향 기술 구현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로는 자연 세계에서 크로스토크로 인한 간섭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줄이기 위한 크로스토크 제거 기술이 활발히 연구 중이다.

크로스토크 제거 원리를 도식화한 <표>는 소스 음원이 귀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스피커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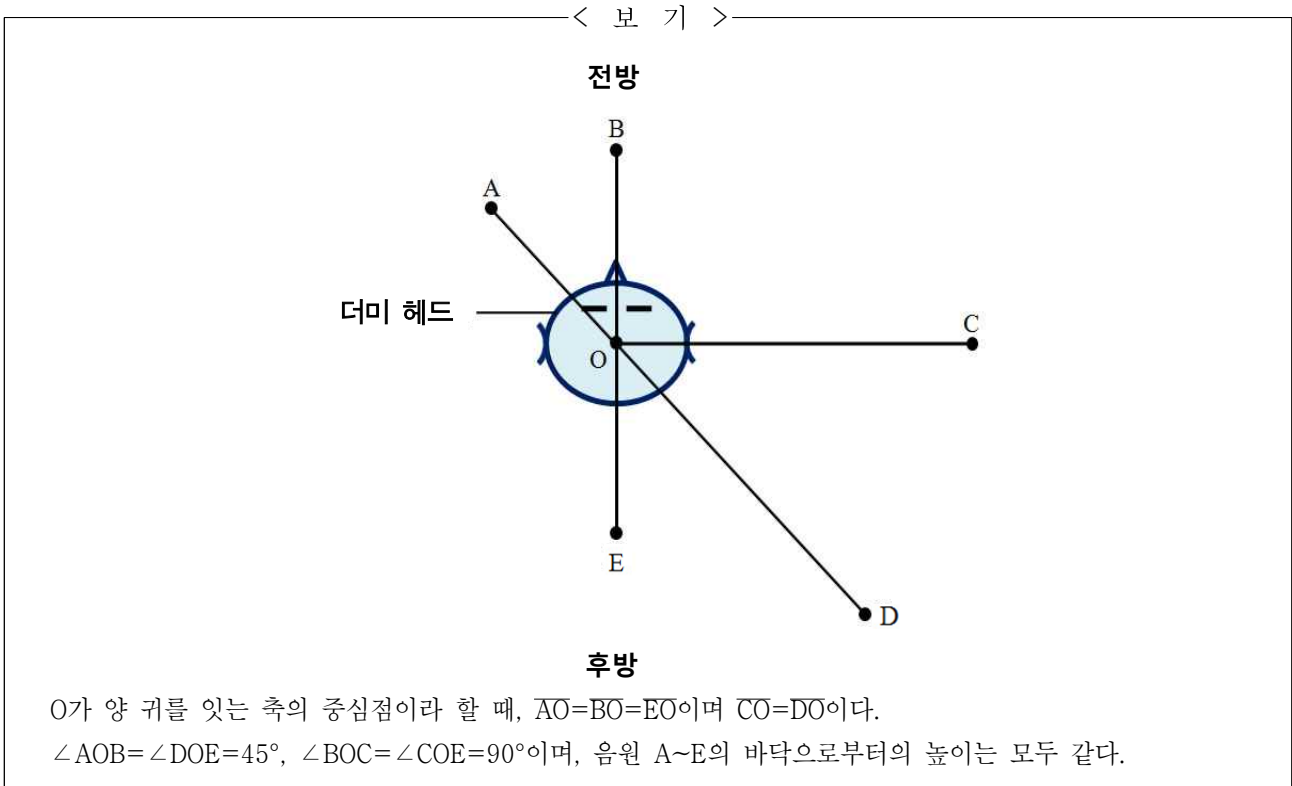
귀에 도달하기까지는 시간 차가 존재하며, 스피커로 출력된 1, 2, 3은 크로스토크 제거 필터를 통해 처리된 것이다. 이때 청자가 듣는 음원은 소스 음원과 같아야 한다. 즉, 왼쪽 귀에는 1만 들리고, 오른쪽 귀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왼쪽 스피커에서는 1, 3을 재생하고, 오른쪽 스피커에서는 2를 재생한다. 그렇게 되면 3이 2와 상쇄돼서 왼쪽 귀에는 1이 남게 되고, 오른쪽 귀에는 1과 2가 상쇄돼서 3만이 남게 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왼쪽 귀에는 1만 들리게 하고 오른쪽 귀에는 3이 매우 작게 들리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

<표>

16.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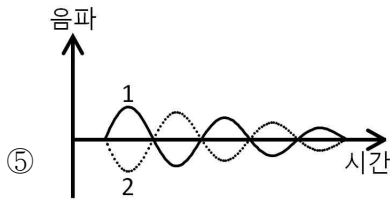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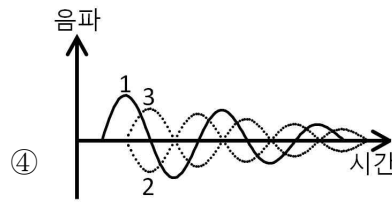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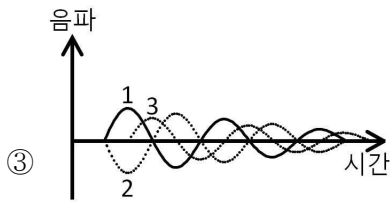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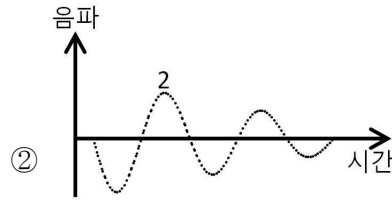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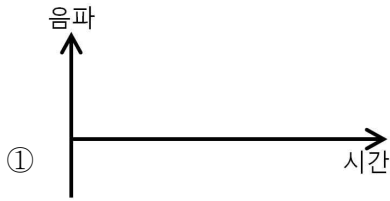
- ① 사람이 3차원 공간 상에서 음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바이노럴 효과 때문이다.
- ② 더미 헤드를 이용하면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바이노럴 음원을 제작할 수 있다.
- ③ 바이노럴 음원을 스피커로 청취할 때 크로스토크로 인한 간섭 현상은 완벽하게 제거되기 어렵다.
- ④ 바이노럴 효과가 적용된 음원을 스피커로 청취할 때 헤드폰에 비해 입체감이 현저하게 감소된다.
- ⑤ 바이노럴 음원을 재생할 때 헤드폰을 낀 청취자가 머리를 움직이면 음원이 들리는 방향이 달라진다.

17. <보기>의 A~E는 더미 헤드를 사용하여 녹음한 음원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이 중 청취자가 헤드폰으로 청취할 때 음의 위치 판단에 혼동이 생길 수 있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① A와 B
- ② A와 D
- ③ B와 E
- ④ C와 E
- ⑤ D와 E

18. 윗글에 있는 <표>의 ㉠에 들어갈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19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미적 판단은 대상에 대한 경험에서 생겨나며 감상자의 주관적 반응에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동일한 대상에 대한 미적 판단은 감상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미적 판단이 적절하다거나 옳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며, 미적 판단의 차이로 인한 논쟁에서 우리는 어떤 미적 판단이 옳고, 어떤 미적 판단이 그른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그렇다면 (㉠)

실재론자들은 미적 속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이것이 대상에 실재한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미적 판단의 객관성을 지지한다. 이들에 의하면 미적 속성 p에 관한 진술인 미적 판단 J가 객관적으로 참일 때, 미적 속성 p가 실재한다. 예컨대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웅장하다’는 판단이 객관적 참이라면 ‘웅장함’이라는 미적 속성이 실재한다는 식이다. 이 경우 ‘웅장하다’는 미적 판단은 ‘웅장함’이라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미적 속성에 대한 기술이다. 동일한 미적 대상에 대한 감상자들 간의 판단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그 미적 판단 간에 옳고 그름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그 옳고 그름의 여부는 실재하는 미적 속성에 대한 확인을 통해 밝힐 수 있다.

그러나 반실재론자들은 미적 판단이 단순한 객관적 실재의 기술이라기보다는 이미 주관적 평가가 개입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근거로 실재론에 반론을 제기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미적 판단은 감상자의 주관적 반응에 의존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된 ‘웅장함’이라는 미적 속성은 ‘웅장하다’는 미적 판단을 내리는 감상자에 의해 발견되는 것이다. 이 주장은 미적 판단의 주관성과 경험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미적 판단의 다양성을 설명하는 데 용이하다. 이에 따르면 미적 판단의 불일치란 굳이 해소해야 하는 문제적 현상이라기보다는 개인의 다양한 경험, 취미와 감상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미적 속성과 미적 판단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고자 하였던 레빈슨의 주장에 의하면, 미적 대상의 감상 과정에서 감상자들은 일차적으로 대상의 비미적(非美的) 속성에 주목한다. 비미적 속성이란 대상의 선, 색, 모양, 질감, 무게, 리듬, 음색 등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다시 정상 지각자에 의해 관찰이나 지각이 가능한 ㉠ 구조적 속성,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정상적인 지각으로는 그 차이를 포착할 수 없는 ㉡ 하부 구조적 속성, 작품의 발생에 관계하는 주요 요소들, 즉 작품의 창작자나 작품이 속한 경향, 영향 관계 등을 일컫는 ㉢ 맥락적 속성으로 나뉜다.

이러한 비미적 속성을 기저로 하여 발생하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미적 속성을 레빈슨은 ‘현상적 미적 인상’이라 규정하였다. 레빈슨은 현상적 미적 인상을 실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여기에는 어떠한 주관적 입장도 개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작품의 현상적 미적 인상은 감상자들이 동일하게 지각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인상의 가치 중립적 속성으로 인해, 그 인상의 기술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술어는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된다. 그런데 감상자들이 제한된 범위 내의 술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미적 판단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감상자의 주관성이 개입된다.

예를 들어, 새뮤얼 바버의 ‘현을 위한 아다지오’를 들은 한 감상자가 이 곡으로부터 현상적 미적 인상을 지각한 후, 이 인상을 기술할 수 있는 술어로 ‘신파적이다’를 선택하고 이를 자신의 미적 판단으로 표현했다고 가정해 보자. 레빈슨에 의하면, 이 술어로 이루어진 미적 판단(‘이 곡은 신파적이다’)은 감상자 자신이 받은 현상적 미적 인상 에 대한 지각과 그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모두 반영하는 것이다. 또 다른 감상자가 같은 곡에 대해 ‘이 곡은 우아하다’라는 미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서로가 내린 미적 판단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감상자들이 받은 인상이 모두 ‘고음의 현악기 위주의 연주, 느린 템포, 단조 선율의 조합이 불러일으키는 인상’이라면, 그들의 판단은 모두 동일한 현상적 미적 인상에 근거한 것으로 그 적절성과 타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이들 미적 판단 간의 차이는 동일한 현상적 미적 인상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레빈슨의 견해이다.

19.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이론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 ② 특정 이론의 효용을 밝힌 후, 다른 이론과 비교하고 있다.
- ③ 다양한 분야의 사례와 더불어 이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④ 대비되는 두 이론을 설명한 후, 이들을 포괄하는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⑤ 이론의 현실 적용 과정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20. ㉠에 들어갈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적 판단 간의 불일치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② 미적 판단을 이끌어 내는 판단의 주체는 어떠한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가?
- ③ 미적 판단의 다양성에 대한 논쟁이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④ 동일한 대상에 대한 미적 판단이 모두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어떤 것인가?
- ⑤ 미적 판단의 적절성에 대한 근거가 대상의 외부적 측면에서 발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21. ㉠~㉣에 해당하는 사례를 <보기>에서 찾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 보 기 > —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은 ㉠ 네덜란드의 추상화가 몬드리안의 작품으로, 직선들의 수직적 교차를 통해 형성된 수많은 직사각형들에 의해 화면이 구성되어 있다. 이 ㉡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들 중 일부는 선명한 원색으로 채색되어 두드러져 보인다. ㉢ 엄밀한 측정 결과 이들 직사각형에서 서로 평행 관계에 있는 직선들의 길이는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만, 이러한 차이는 감상자들이 대상을 직사각형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 | | | |
|---|---|---|---|
| | ㉠ | ㉡ | ㉢ |
| ① | ㉠ | ㉡ | ㉢ |
| ② | ㉡ |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⑤ | ㉢ | ㉡ | ㉠ |

22. 레빈슨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거대한 화면을 단일한 색채로 가득 메운 마크 로스코의 색면 회화에 대한 미적 판단은 ‘따분하다’, ‘밋밋하다’, ‘단조롭다’, ‘간결하다’, ‘강렬하다’와 같은 술어를 사용하여 다양한 층위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감상자들의 입장에서 ‘야하다’라는 술어는 로스코의 작품에 대한 적절한 술어로 평가받지 못한다. ‘야하다’라는 술어는 ‘밝고 부조화스러우면서 눈길을 끄는 색의 조합’이 불러일으키는 인상을 기술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① 평가에 사용된 술어들은 로스코의 작품으로부터 받은 현상적 미적 인상과 그에 대한 감상자의 주관적 평가가 동시에 반영된 것이다.
- ② 로스코의 작품을 판단하는 술어 중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것들은 동일한 현상적 미적 인상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에 존재하는 술어이다.
- ③ ‘밋밋하다’, ‘단조롭다’, ‘간결하다’와 같은 술어를 이끌어내는 현상적 미적 인상은 작품의 색, 면과 같은 비미적 속성을 기저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 ④ 동일한 대상에 대해 ‘따분하다’, ‘강렬하다’와 같은 판단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술어의 선택과 사용 과정에서 감상자의 주관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 ⑤ ‘야하다’가 로스코의 작품에 대한 술어로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이 술어가 현상적 미적 인상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내재한 술어이기 때문이다.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본권은 인권 사상에서 유래되었지만 개념상으로 인권과 기본권은 구별된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 즉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는 생래적(生來的), 천부적(天賦的) 권리를 말하며,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기본권 중에는 생래적 권리가 헌법에 수용된 것도 있지만 헌법에 의해서 비로소 형성되거나 구체화된다고 생각되는 청구권적 기본권, 참정권, 환경권 등도 있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인권과 기본권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기본권은 일반적으로 주관적 공권(公權)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는 기본권이 기본권의 주체인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가지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 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속하고, 따라서 개인은 국가에 대하여 작위(作爲)나 부작위(不作爲)*를 요청할 수 있으며 헌법 질서를 형성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권리가 어떠한 성질의 것이냐에 대하여서는 자연권설, 실정권설, 통합가치설 등으로 견해가 나뉘고 있다.

자연권설(自然權說)에서는 기본권의 자연권적 성격은 시대나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여 인간이 가지는 권리이고, 국가 권력의 침해와 간섭을 배제하는 기본권의 방어적, 저항적 성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부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헌법 제정 권력자도 기본권 존중이라는 근본 규범에는 구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은 전(前) 국가적, 초(超)국가적인 천부적 자연권이라고 본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 규정은 그 헌법의 규정이 기본권을 창설(創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를 문서로 확인, 선언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실정권설(實定權說)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은 실정권으로 파악한다. 사상과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과 같은 전통적인 자유권적 기본권도 그 역사적인 전개 과정에서는 자연법상의 권리로 주장된 것이지만, 사회는 공동 생활체이므로 개인의 자유는 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국가 영역 안에서는 그 최후의 조정자가 국가인 이상 국가에 의한 국민의 자유의 제한, 조정은 필요 불가결하므로, 결국 자유권도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되지 않는 인간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권도, 그것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헌법 또는 법률이 국가의 실정법인 이상 그것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실정법상의 권리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실정권설에 의하면 기본권도 헌법에 규정되어야만 비로소 권리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헌법의 기본권 보장 규정은 기본권을 확인,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본다.

통합가치설(統合價値說)에서는 질서와 관련하여 기본권을 바라본다. 현실의 인간은 일정한 질서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질서 내의 자유와 권리를 뜻할 수밖에 없다. 그에 따라 통합가치설에서 기본권은 헌법적인 질서 속에서의 자유와 권리를 뜻하고 사회 공동체가 동화되고 통합되어 가기 위한 실질적인 ① 원동력을 의미하므로, 본질적으로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의 세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또한 헌법 질서 내의 국가 권력은 국민에 앞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의해서 창설되고, 국가 내에서 행사되는 모든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에 의해 통제되고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라 통합가치설은 기본권의 국가 형성적 기능과 동화적(同化的) 통합 기능을 강조하고 이러한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권의 정치적 성격을 중시한다.

* 작위, 부작위 : '작위'는 의식적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나 동작이고,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일.

23. 밑줄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기본권은 인권 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주관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 ② 기본권은 국가 권력을 직접적으로 구속하므로 개인은 국가에 대해 작위나 부작위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자연권설에서는 기본권이 자연권으로서 가지는 방어적, 저항적 성격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 ④ 실정권설에서는 자유권을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되지 않는 자유로 이해한다.
- ⑤ 통합가치설에서는 기본권을 사회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24. 밑글에 근거하여 <보기>의 헌법 조문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① 자연권설에 의하면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기본권이 가지는 자연권으로서의 성격을 확인, 선언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 ② ‘제37조 ①’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과, ‘제37조 ②’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은, 자연권설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③ ‘제37조 ②’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은, 기본권이 실정법상의 권리라는 실정권설의 관점을 뒷받침할 수 있다.
- ④ ‘제10조’에 대해 통합가치설은 헌법의 기본권 보장의 가치 지표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핵심적 가치로 하는 동화적 통합 질서를 마련하는 데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 ⑤ 통합가치설은 ‘제37조 ①’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는, 헌법적 질서의 외부에 존재하는 자유와 권리를 지칭한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25. 밑글에 근거할 때, <보기>의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자연권설의 입장은 다시 절대적 자연권설과 상대적 자연권설로 나뉜다. 상대적 자연권설을 취하는 법이론가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등의 ‘생존권적 기본권’과 사상과 언론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과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구분하여, ㉠ 전자는 후자와 달리 실정권임을 인정한다.

- ①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은 모두 헌법에 규정된 실정권이기 때문이다.
- ② 생존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는 달리 국가 권력에 앞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 ③ 생존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은 모두 인간의 본성에 의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 ④ 생존권적 기본권은 시대나 국가가 달라도 그 차이를 인정할 수 없는 자연권이기 때문이다.
- ⑤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가 권력의 적극적인 관여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26. ㉠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힘 ② 바닥 ③ 일으킴 ④ 본바탕 ⑤ 움직임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자(量子)는 원자, 전자, 광자 등의 덩어리진 작은 입자를 말하며, 양자 물리학은 양자들이 입자와 파동이라는 이중적인 속성을 갖고 있음에 ㉠ 주목하는 학문이다. 파동의 특징 중 하나는 ‘중첩’인데, 중첩이란 기타 줄을 통겼을 때처럼 파장이 다른 여러 파가 겹쳐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전자가 원자핵을 도는 것도 여러 개의 파들이 중첩된 파동으로 볼 수 있다. 전자가 어떤 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가는 확률로 주어지는데, 측정을 하게 되면 ‘중첩’ 상태가 깨지고 특정 값을 갖는 상태로 ‘확정’된다. 이는 측정 행위가 파동에 ㉡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중첩된 상태의 모든 값을 측정했다고 할 수 없다. 이를 양자 물리학의 정론인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한다.

확률을 세계의 본질로 보고 미래의 우연성을 ㉢ 용인하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비판한 바 있다. 그는 양자 물리학이 우주의 숨은 변수들을 모두 알게 되면 확률이 아닌 정확한 수치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에게 우주의 인과 관계는 신의 질서와도 같아서, 단순하고 명쾌한 이론으로 아름답게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양자 물리학이 ㉣ 전제로 삼고 있는 ‘중첩’ 상태의 깨짐과 상태의 ‘확정’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제출되었는데, 폰 노이만은 측정 장비들도 양자로 ㉤ 구성되어 있으므로, 측정 단계에서는 ‘중첩’ 상태의 변화가 없고, 측정 결과를 ‘인간이 인식할 때’ 비로소 ‘중첩’이 깨지고 값이 ‘확정’된다는 다소 급진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슈뢰딩거는 ‘슈뢰딩거의 고양이’라는 사고 실험*을 제안했다. 쇠로 된 상자 안에 고양이와 방사성 원자, 방사선 검출기, 그리고 독약병을 넣어둔다. 양자인 방사성 원자는 한 시간에 50%의 확률로 붕괴하여 방사선을 방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사선이 검출되면 독약병이 깨지고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독가스를 발생시키도록 기계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한 시간이 지난 후 고양이의 생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폰 노이만의 해석을 따르자면, 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상자 안의 고양이는 살아 있는 상태와 죽어 있는 상태의 ‘중첩’된 상태에 있지만, 상자를 열어 생사를 확인하는 순간 두 상태 중의 하나로 ‘확정’된다. 고양이의 생사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생사를 확인하는 행위이며, 고양이의 생사는 ‘중첩’된 상태와 확인 행위와의 상호 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 슈뢰딩거의 해석을 따르자면, 반생반사(半生半死)의 고양이는 있을 수 없다. 한 시간 후 고양이의 생사는 이미 결정되어 있으며, 상자를 열어 보는 행위는 이미 벌어진 일을 확인하는 데 불과하다.

한편, ‘슈뢰딩거의 고양이’에 대해 코펜하겐 해석을 정밀하게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된다. 아무리 작은 검출기라도 양자적인 특성을 온전히 갖기엔 거시적이다. 따라서 방사성 원자의 중첩 ‘상태’를 깨뜨리고 특정한 상태로 ‘확정’시킨 것은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하는 사람이 아닌 검출기라는 것이다. 많은 해석 중에서 이는 가장 많은 물리학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학 논쟁을 촉발한 ‘슈뢰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은 파동의 ‘중첩’ 상태가 ‘확정’되는 시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것으로, 미시 세계의 원인과 거시 세계의 결과를 연결시켜 놓았다는 의의를 갖는다.

수많은 학자들의 비판과 기여 속에 양자 물리학은 20세기 물리학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21세기에 들어서 보안성이 높은 양자 암호와 우수한 성능이 기대되는 양자 컴퓨터 등 양자 물리학을 이용한 기술은 점차 우리 생활 속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슈뢰딩거의 고양이는 물리학자들의 머릿속에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다.

* 사고(思考) 실험 : 실행 가능성이나 입증 가능성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사고상으로만 성립하는 실험. 하나의 이론 체계 안에서의 연역 추리의 보조 수단으로 쓰임.

27.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세계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 ② 아인슈타인은 세계를 이해할 때 확률과 우연을 배제하고자 했다.
- ③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엄밀한 인과 관계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았다.
- ④ 양자 물리학에서는 양자가 입자와 파동의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 ⑤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양자의 상태를 정확한 수치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28. <보기>에서 ㉠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짝지은 것은? (3점)

— < 보 기 > —

- ㉠. 중첩된 상태를 특정한 상태로 확정하는 것은 검출기이다.
- ㉡. 살아 있으면서 동시에 죽어 있는 고양이는 있을 수 없다.
- ㉢. 상자를 열어서 확인하는 순간 고양이의 중첩 상태가 깨진다.
- ㉣. 상자를 열어서 결과를 확인하는 행위와 고양이의 생사는 독립적이다.
- ㉤. 고양이의 생사는 중첩 상태의 고양이와 상자를 열어서 확인한 사람의 상호 작용의 결과이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29. ㉠의 의미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제로 수많은 고양이들이 실험의 대상이 되고 있다.
- ② 양자 물리학은 ‘중첩’ 상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 ③ 미시 세계의 원인과 거시 세계의 결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다.
- ④ ‘슈뢰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이 지닌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 ⑤ 실제 실험이 아닌 사고 실험이라는 점에서 고양이를 이용한 실험은 한계를 지닌다.

30.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
- ② ㉡ : 어떤 사물의 효과나 작용이 다른 것에 미치는 일.
- ③ ㉢ : 거두어들여 사용함.
- ④ ㉣ : 추리를 할 때, 결론의 기초가 되는 판단.
- ⑤ ㉤ :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짜 이룸.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신재령(新載寧)에도 나무리벌
물도 많고
땅 좋은 곳
만주(滿洲) 봉천(奉天)은 못살 곳

왜 왔느냐
왜 왔느냐
자곡자곡이 피땀이라
고향 산천이 어디메나

황해도
신재령
나무리벌
두 몸이 김매며 살았지요

올벼 눈에 닿은 물은
출렁출렁
벼 자랐나
신재령에도
나무리벌

- 김소월, '나무리벌 노래' -

(나)

집도 많은 집도 많은 남대문 턱 움 속에서 두 손 오구려 흑 흑 입김 불며 이따금씩 쳐다보는 하늘이사 아마 하늘이
기 혼자만 곱구나

거북네는 만주서 왔단다 두터운 얼음장과 거센 바람 속을 세월은 흘러 거북이는 만주서 나고 할배는 만주에 묻히
고 세월이 무심찮아 봄을 본다고 쫓겨서 울면서 가던 길 돌아 왔단다

띠팡*을 떠날 때 강을 건널 때 조선으로 돌아가면 빼앗겼던 땅에서 농사지으며 가 가 거 거 배운다더니 조선으로
돌아와도 집도 고향도 없고

거북이는 배추 꼬리를 씹으며 달디달구나 배추 꼬리를 씹으며 꺼무테테한 아배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배추 꼬리를
씹으며 거북이는 무엇을 생각하누

첫눈 이미 내리고 이윽고 새해가 온다는데 집도 많은 집도 많은 남대문 턱 움 속에서 이따금씩 쳐다보는 하늘이사
아마 하늘이기 혼자만 곱구나

- 이용악, '하늘만 곱구나' -

* 띠팡 : 지방(地方)을 뜻하는 중국어.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을 통해 시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으로 풍자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③ 과거 회상의 형식으로 반성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역동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있다.
- ⑤ 특정 종결어미를 구사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2. <보기>를 참조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인간은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 즉 공간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장소'로 만든다. 그에 따라 자연적 공간에는 친숙하고 안정적인 공간, 낯설고 위협적인 공간과 같은 이원적 가치가 부여된다. 인간은 또한 자아 동일성을 형성하는 장소에 본원적인 애착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장소'를 상실하게 되면 자아는 삶의 기반이 와해되는 근본적 결핍을 겪게 되고 절망과 불행의 경로를 걷는 가운데 장소의 회복을 갈망하게 된다.

- ① (가)의 '나무리벌'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자아 동일성을 형성시킨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② (나)의 '강을 건널 때 조선으로 돌아가면'에는 상실한 '장소'의 회복에 대한 갈망과 함께 불행을 예감하는 심정이 내포되어 있다.
- ③ (가)의 '만주 봉천'과 (나)의 '만주'는 쫓겨 갔던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위협적인 공간에 해당한다.
- ④ (가)와 (나)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본원적 애착을 가졌던 '장소'를 상실하고 삶의 기반이 와해되는 결핍을 겪었을 것이다.
- ⑤ (가)의 '자곡자곡이 피땀이라'와 (나)의 '두터운 얼음장과 거센 바람'은 친숙하고 안정적인 '장소'를 잃고 살아가는 절망적 삶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33. <보기>에 근거하여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이용악의 작품에 등장하는 화자는 이중적 역할을 한다. 화자는 대상과 관련된 사연을 전달하거나 기록하기도 하고, 그가 직접 등장인물이 되거나 등장인물의 내면과 소통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는 인물 혹은 대상과의 거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기법은 독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공감을 유도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 ① 1연의 '(하늘이) 혼자만 곱구나'는 '거북이'의 발화로도 화자의 발화로도 볼 수 있다.
- ② 2연에서 화자는 '~ 왔단다'의 형식으로 '거북네'의 사연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③ 3연에서 화자는 '띠팡'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거북네'의 이동 경로를 '아베'의 시각에서 기록하고 있다.
- ④ 4연의 '달디달구나'는 '거북이'의 감각을 화자 자신이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⑤ 4연의 '거북이는 무엇을 생각하누'는 '거북이'의 내면과 소통을 시도하는 화자의 물음으로 볼 수 있다.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 가슴이 터져오니 터지거든 구멍 뚫어
고미장자 세살장자 완자창을 갖춰 내어
이 설움 답답할 제 여달아나 보고지고
- ㉡ 어화 어찌하리 설마한들 어이하리
세상 귀양 나뿐이며 인간 이별 나 혼자라
소무의 복해 고생 돌아올 때 있었으니
 내 홀로 이 고생이 귀불귀 설마 하랴
 무슨 일 마음 붙여 시름을 잊으리라
 작은 낫 손에 쥐고 뒷동산에 올라가니
풍상이 섞어 치니 만물이 소슬하다
 천고절 **푸른 대**는 봄빛이 혼자로다
 곧은 대 빼쳐 내어 가지 쳐 다듬으니
 밭 가웃 낚싯대는 좋은 품 되겠구나
 청울치 가는 줄에 낚시 매어 둘러메고
이웃집 아이들아 오늘이 날이 좋다
 셋바람 아니 불고 물결이 고요하니
 고기가 물릴 때라 낚시질 함께 가자
 사립을 짓혀 쓰고 망혜를 조여 신고
 조대로 내려가니 대 바람 한가하다
- ㉢ 원근산천에 홍일이 떠었으니
만경창파는 모두 다 금빛이라
낚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았으니
 은린옥척이 절로 무는구나
 구태여 내 마음이 **취어가 아니로다** 의취를 취함이라
 낚대를 떨쳐 드니 사면에 잠든 백구
 내 낚대 그림자에 저 잡을 날만 여겨
 다 놀라 날겠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성상이 버리시니 너를 좇아 예 왔노라
 네 본디 영물이라 내 마음 모르는가
- ㉣ 평생에 곱던 님을 천리에 이별하고
사랑은커니와 그리움을 견딜손가
- ㉤ 수심이 첩첩하니 내 마음 둘 데 없어
흥 없는 일간죽을 일없이 들었으니
 고기도 불관커든 하물며 너 잡으랴
 그래도 못 믿거든 너 가진 긴 부리로
 내 가슴 쪼아 헤쳐 흥중의 붉은 마음
 쾌히 내어 볼 양이면 네가 응당 알리로다

34.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황을 열거하여 특정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의 전개가 나타나고 있다.
- ③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성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현재 고난의 원인이 되는 사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자연과 인간의 변화상을 묘사하여 세월의 흐름을 표현하고 있다.

3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창’의 속성에 기대어 답답함을 해소하고 싶은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② ㉡ : 비교의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의 특수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 근경과 원경의 대조를 통해 자연의 풍광을 제시하고 있다.
- ④ ㉣ : 이별로 인한 슬픔과 그리움을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 : 유사한 통사 구조를 되풀이하여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만언사>는 당대에 잘 알려진 상투적인 구절들을 가져와 불특정 다수 대중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새롭게 재창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아래와 같은 텍스트 구성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쉽고 재미있게 읽히게 하였던 의도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언사>의 텍스트 구성 방식

- ㉠ 익숙한 표현의 제시 : ‘풍상이 섞어 치니 만물이 소슬하다’, ‘이웃집 아이들아’ 등
- ㉡ 관습적 의미를 지닌 소재 사용 : ‘백구’, ‘푸른 대’, ‘낙시’ 등
- ㉢ 대중적 고사 제시 : 소무의 복해 고생
- 북쪽 흉노 땅에 사신으로 간 한나라의 소무가 억류되어 19년 동안 고생했던 일

- ① ‘소무의 복해 고생’과 같은 대중적 고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상황을 드러내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풍상이 섞어 치니 만물이 소슬하다’는 계절적 배경의 표현을 위해 흔히 사용되었던 표현으로, 이는 ‘성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연결되는 ‘푸른 대’의 관습적 의미를 한층 강조하고 있다.
- ③ ‘이웃집 아이들’과 같이 구체적인 시적 청자를 거명하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제한된 범위의 청자에게 자신의 심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낙시를 드리우고 무심히 앉’은 화자의 모습은 ‘낙시’의 관습적 의미를 연상시키는데, 이는 ‘취어가 아니로다 의취를 취함이라’라는 표현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 ⑤ ‘백구’에게 말을 건네는 화자의 모습은 ‘백구’의 관습적 의미와 연관되어, 자연과의 합일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7~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청이 그 말을 듣고 반겨 웃으며 대답하되,

“후회를 하시면 정성이 못 되오니 아버지 어두우신 눈 정녕 밝아 보일 양이면 삼백 석을 아무쪼록 준비하여 보리다.”

“네 아무리 애를 쓴들 안빈낙도 우리 형세, 단 백 석인들 할 수 있겠느냐?”

[A] “아버지, 그 말 마오. 옛일을 생각하니 왕상(王祥)은 얼음을 두드리서 얼음 구멍에서 잉어를 얻고 맹종(孟宗)은 대나무 앞에서 통곡하여 눈 가운데 죽순(竹筍) 나니, 그런 일을 생각하면 출천대효(出天大孝) 사친지절(事親之節)이 옛사람만 못하여도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니, 아무 걱정 마옵소서.”

심청이 부친의 말을 듣고 그날부터 뒤꼍을 정히 하고 황토로 단을 쌓아 두고 좌우에 금줄을 매고 정화수 한 동이를 소반 위에 받쳐 놓고 북두칠성 호반(號盤)에 분향재배한 연후에, 두 무릎을 공손히 꿇고 두 손을 합장하여 비는 말이,

[B] “상천(上天) 일월 성신(星辰)이며, 하지(下地) 후토(后土) 성황(城隍) 사방지신(四方之神), 제천제불(諸天諸佛) 석가여래 팔금강보살 소소응감(昭昭應感)* 하옵소서. 하느님이 만드신 일월은 사람에게는 눈과 같은지라. 일월이 없사오면 무슨 분별 하오리까. 소녀 아버 무자생(戊子生) 이십 후 눈이 멀어 사물을 못 보오니, 소녀 아버 허물일랑 제 몸으로 대신하고 아버 눈을 밝게 하여 천생연분 짝을 만나 오복을 갖게 주어, 수부다남자(壽富多男子)*를 점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야로 빌었더니, 도화동 심 소저는 천신이 아는지라 흠향하시고 앞일을 인도하셨더라. 하루는 유모 귀덕 어미가 오더니,

“아가씨, 이상한 일 보았나이다.”

“무슨 일이 이상하오?”

“어떠한 사람인지 십여 명씩 다니면서 값은 고하간에 십오 세 처녀를 사겠다고 다니니 그런 미친놈들이 있소?” 심청이 속마음에 반겨 듣고,

“여보, 그 말이 진정이오? 정말로 그리 될 양이면 그 다니는 사람 중에 노숙하고 점잖은 사람을 불러오되, 말이 밖에 나지 않게 조용히 데려오오.”

귀덕 어미 대답하고 과연 데려왔는지라. 처음은 유모를 시켜 사람 사려는 내력을 물은즉 그 사람의 대답이,

“우리는 본디 황성(皇城) 사람으로서 상고(商賈)차로 배를 타고 만 리 밖에 다니더니, 배 갈 길에 인당수라 하는 물이 있어 변화불측하여 자칫하면 몰사를 당하는데 십오 세 된 처녀를 제수(祭需) 넣고 제사를 지내면, 수로 만 리를 무사히 왕래하고 장사도 흥왕하옵기로 생애가 원수로 사람 사러 다니오니, 몸을 팔 처녀가 있사오면 값을 관계치 않고 주겠나이다.”

심청이 그제야 나서며,

“나는 본존 사람으로 우리 부친 앞을 보지 못하여 세상을 분별하지 못 하기로, 평생에 한이 되어 하느님 전에 축수 하더니, 몽운사 화주승이 공양미 삼백 석을 불전에 시주하면 눈을 떠서 보리라 하되, 가세가 지빈(至貧)하여 주선 할 길 없삽기로 내 몸을 방매하여 발원하기 바라오니 나를 사 가는 것이 어떠하오? 내 나이 십오 세라 그 아니 적당 하오?”

① 선인이 그 말 듣고 심 소저를 보더니, 마음이 억색(臆塞)하여 다시 불 정신이 없어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섰다가, “남자 말씀 듣자오니, 가락하고 장한 효성 비할 데 없습니다.”

이렇듯이 치하한 후에 저의 일이 긴한지라,

“그리하오.”

하고 허락하더라.

“행선 날이 언제입니까?”

“내월 십오 일이 행선할 날이오니 그리 아옵소서.”

피차에 상약을 하고 그날에 선인들이 공양미 삼백 석을 몽운사에 보냈더라. 심 소저는 귀덕 어미를 백 번이나 단속하여 말 못 내게 한 연후에, 집으로 들어와 부친 전에 여쭙오되,

“아버지!”

“왜 그러느냐?”

“공양미 삼백 석을 몽운사로 올렸나이다.”

심 봉사가 깜짝 놀라서,

“그게 웬 말이냐? 삼백 석이 어디 있어 몽운사로 보냈어?”

심청이 같은 타고난 효녀가 어찌 부친을 속일까마는 사세부득이라 잠깐 속여 여쭙는다.

[C] “일전에 무릉촌 장 승상 님 부인께서 소녀보고 말씀하기를, 수양딸 노릇하라 하되 아버지 계시기로 허락 아니하였는데, 사세부득하여 이 말씀 사되었더니 부인이 반겨 듣고 쌀 삼백 석을 주시기에 몽운사로 보내옵고 수양녀로 팔렸나이다.”

심 봉사가 물색 모르고 크게 웃으며 즐겨 한다.

“어허, 그 일 잘되었다. 언제 데려간다더냐?”

“내월 십오 일 날 데려간다 하옵니다.”

“네가 거기 가서 살더라도 나 살기 관계찮지. 어! 참으로 잘되었다.”

— 작자 미상, ‘심청전’ —

* 소소응감(昭昭應感) : 분명히 마음에 응하여 느낌.

* 수부다남자(壽富多男子) : 오래 살고 부유하여 아들이 많음.

3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사건의 전말을 요약하고 있다.
- ③ 공간에 대한 상세한 묘사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④ 사건을 둘러싼 인물 간의 대립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⑤ 인물의 과거 인연이 계기가 되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38.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고사를 들어서 상대방에게 상황을 비판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
- ② [B]는 초월자에 기대어 자신이 소망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 ③ [C]는 상대방을 고려하여 거짓으로 상황을 꾸며 이를 전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상대방의 처지가, [B]에서는 자신의 처지가 나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 ⑤ [A]와 [C]는 말하는 목적을 상대방의 걱정을 덜어주는 것에 두고 있다.

[41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광주 수남 모에 이어 사람 좋은 함평까지 갑자기 목청을 높이는 바람에 눈을 떠 보니, 용순이 어디서 제간엔 할머니를 위한 제수랍시고 양주 한 병을 구해와 제 손수 제상 위에다 올려놓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용순은 그 어른들의 질책을 들은 시늉도 않은 채 그 할머니 영정 앞에 놓인 동화책을 구실 삼아 다시 준섭을 물고 늘어졌다.

“흥, 이건 또 뭐예요? 삼촌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를 생각해서 이런 책까지 미리 써 놓은 거예요? 하긴 삼촌은 역시 삼촌이신데 어련하셨을라구요. 이것도 다 머리를 잘 굴리는 삼촌식 아니겠어요. 내가 내 식으로 할머니를 위해서 제상에 양주병을 올려 드린 것처럼 말예요.”

아침 녘 이후로 장혜림과는 이미 무슨 말이 좀 오간 듯싶기도 했지만, ㉠ 용순은 그 할머니의 얼굴 모습까지 새겨진 동화책의 표지를 함부로 들춰 대며 심통기가 여전했다.

“하지만 삼촌, 이제 제발 좀 적당히 해 두세요. 나 삼촌한테 정말 질리고 말았어요. 나도 눈이 있고 귀가 있어 삼촌을 좀 이해하고 가까이도 해 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런 삼촌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러니 삼촌이 좀 빈 데를 보여주세요. 허술하고 모자란 데를 보여 주시란 말예요. 어떻게 하면 제가 삼촌을 이해하고 삼촌 가까이로 다가가 볼 수가 있지요? 삼촌이 그걸 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용순의 그런 원정*은 물론 준섭에 대한 불만 때문만이 아니었다. 방금 전에 저를 질책한 어른들이나 집안 사람들 전부에 대한 포원* 때문이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은지네가 보다 못해 멍청히 앉아 있기만 한 준섭을 대신하여 모처럼 매섭게 녀를 꾸짖고 나섰다.

“용순이 너 보다보다 이제 정말 더 못 보겠구나. 큰일 치를 동안은 참아 넘기려 했지만 정말 더는 못 보겠어. 그래, 삼촌이 지금 무얼 잘못해서 그래. 삼촌이 이 마당에 할머니 이야기를 곱게 써 바친 것이 무엇이 그리 못마땅해. 용순이 너 혼자서 할머니 생각했어? 우리 그저 할머니 고생하고 앓다 가신 거 구경만 하고 있었던 줄 알아? 용순이 너야말로 할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해 드렸어. 인제사 말이지만 할머니 치매증은 할머니 혼자서만

[A] 앓으신 병환이 아니셨어. 우리집 온 식구가 할머니 곁에서 그걸 함께 앓아 왔어. 그런데 너는 그동안 어디서 무얼 했어. 할머니가 가장 어렵고 힘드실 때 너는 그 할머니께 무엇을 해 드렸지? 너는 할머니한테 그냥 받기만 해 온 거야. 제가 드리지는 않고 받기만 하면서, 더 받질 못해서 혼자 아쉬워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며 이런 패악질이나 일삼는 것이 -, 그것이 네 식으로 할머니를 위해 드리는 길이야? 그건 철부지들이나 좋아 할 유치한 투정일 뿐이야.”

누구보다 말이 없고 만만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숨도 쉴 틈 없이 몰아붙이는 바람에 ㉡ 용순은 처음 한동안 기가 질린 듯 표정이 굳어져 있다가 나중엔 차라리 어이가 없다는 듯 비실비실 웃음기 속에 무시하는 태도를 짓고 있었다. 은지네가 다시 그 용순에게 준섭을 대신해 일렀다.

“그 책은 삼촌이 쓰셨지만, 우리가 할머니의 병환을 함께 앓아 온 이야기야. 그러니 너도 이제 심통만 부리지 말고 그 책을 한번 읽어 봐. 그래서 우리집 식구들이 할머니의 치매증을 어떻게 함께 앓았고 그것을 어떻게 서로 곱게 앓고 싶어했는지를, 그래서 어떻게 할머니를 곱게 보내 드리려 소원해 왔는지를 이해하도록 노력해 봐. 생각처럼 할머니를 잘 모시지는 못했더라도, 그래서 그것을 더 마음 아파하고 죄스러워해 온 삼촌의 속마음도..... 나는 그동안 할머니에 대한 우리 집안 식구들의 아픈 소망을 이렇게 글에 담아 써 주신 삼촌이 고맙고, 할머니께서도 그걸 기뻐하시리라 믿어. 그걸 읽어 보고 더 투정을 부리든지 행패를 부리든지 네 알아서 해. 그때는 나도 더 아무 말 않을 테니까.”

㉢ “자네가 대신 매를 들어 주니 나는 입을 두고도 할 말이 없네만, 자네도 그렇게 큰소리를 칠 만큼 괴롭이 많았던 줄은 몰랐네이!”

아랫동서가 너무 자신의 뒷감당 노릇을 내세우려 드는 것쯤으로 알았던가. 이번에는 외동댁이 그런 은지네 쪽을 고까워하는 어조로 비양대고 드는 바람에 용순도 은지네도 더 입을 열지 못하고 시비는 서로 표적이 물고 물린 꼴이 되어 끝이 나게 되었다.

-노다 가세. 노다 가세. 오늘 안 놀면 언제 노나

상여꾼들은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의 불화를 모른 척 싸 덮어 넘어가 주려는 듯 흥겨운 노랫가락까지 떠지르며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

준섭은 그 귀가 멍멍해 오는 소란통 속에 노인의 훈령을 지키듯 당신의 영좌를 향해 다시 목상을 계속해 나갔다.

-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그 나이와 함께 지혜가 쌓이게 되고, 지혜가 마음속 가득 찬 어른이 되고 나면 그 지혜가 삭아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넘치고 싶은 사랑이 된단다. 할머니께서 은지를 위해 나이를 나눠 주시고 지혜를 나눠 주시는 것은 모두 그 할머니의 사랑 때문이란단다. 그러니 그 사랑 때문에 할머니는 키가 작아지고 몸집이 작아져서 점점 더 어린애가 되어 가시는 것도 아랑곳 않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신 거란다.

㊸ 그 역시 동화 속의 아빠가 딸아이에게 해 준 설명이요 준섭이 실제로 딸아이에게 일러 준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노인이 그 한생애로 준섭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고 지금은 침묵 속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었다. ㊹ 하지만 이제 누가 당신의 그런 사랑을 기리고 명념하려 하는가. 물어 보내지 않고 지니고 싶어 하는가.

- 청청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상여꾼들의 취흥과 노랫소리는 이제 그 질탕한 아리랑 가락으로 절정을 이뤄 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에 준섭은 다시 그 동화 속의 딸아이에게 의탁해 보였던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으로 노인에 대한 그의 소망과 기구를 마음 깊이 혼자 되새겨 나가기 시작했다.

.....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였습니다.

‘나 새 옷 입혀 줘.’

할머니는 이날도 몸을 조그맣게 오므리고 어린 아기처럼 췌근췌근 깊은 낮잠을 주무시다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맑은 정신이 드신 목소리로 엄마에게 갑자기 새 옷을 줄라 대셨습니다.

그런 다음 할머니는 엄마가 정성껏 다려 입혀 드린 새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옛날처럼 가지런히 몸을 개고 앉아, 이날따라 그 할머니를 위해 찾아온 듯싶은 한 쌍의 흰색배추꽃나비를 창밖으로 오래오래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B] 그런데 얼마 뒤, 바깥일에서 돌아오신 아빠가 그 할머니의 방엘 들어갔다 나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오늘 마지막 남은 나이를 다 나눠 주신 모양이다. 할머니의 영혼이 옛 모습의 옷을 벗고 우리 곁을 떠나가셨구나.....’

은지는 그 할머니의 영혼이 조용한 숨결을 타고 슬며시 은지네를 떠나시며, 옷을 벗어 개켜 놓듯 곱게 벗어 놓고 가신 하얗고 조그만 옛날 모습 앞에 혼자 다짐하셨습니다.

‘할머니 안심하고 떠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새 아기로 태어나세요. 할머니께서 저한테 나눠 주신 나이는 제가 잘 맡아서 간직하고 있을게요.....’

준섭의 감은 눈 속에서도 그날 은지가 보았다는 하얀배추꽃나비들이 팔랑팔랑 끝없이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고 있었다.

- 이청준, ‘축제’ -

* 원정 : 원망하는 마음.

* 포원 : 원한을 품음.

4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진행되는 사건과 함께 인물의 내면이 서술되고 있다.
- ② 장면의 잦은 전환을 통해 서사를 빠르게 전개하고 있다.
- ③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용순이 동화책을 빌미로 준섭에게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 ② ㉡ : 용순이 은지네의 말에 당황해 하다가 나중에는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 : 은지네가 한 말에 대해 외동댁이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 : 동화책이 실제 준섭의 어머니와 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 어머니가 보여 주셨던 사랑과 삶의 지혜가 은지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드러난다.

43.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과 자신들의 행동을 대비시키고 있다.
- ② 단정적 진술을 통해 상대의 행위를 규정짓고 있다.
- ③ 질문을 연이어 던지면서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있다.
- ④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이 비난하는 사람을 자신이 대신하여 옹호하고 있다.

44.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장례’를 ‘축제’라고 명명함으로써 전통적인 ‘장례’의 성격을 재조명한다. 일반적으로 ‘축제’는 일상이 정지되고 혼돈과 무질서가 드러나는 시공간이다. 이 작품에서의 ‘장례’ 역시 일상이 정지되고, 모인 사람들이 망자를 애도하는 가운데 이질적인 것들이 혼재하는 ‘축제’와 같다. 이러한 ‘장례’ 속에서 등장인물들은 저마다의 묵은 감정들을 풀어냄으로써 마침내 화해와 융합에 이르게 된다.

- ① 망자를 애도하기 위한 ‘장례’에서 용순, 은지네, 외동댁은 저마다의 묵은 감정을 풀어내고 있다.
- ② ‘난장판’, ‘소란통’과 같은 표현에서 ‘축제’로서의 ‘장례’가 갖는 혼돈과 무질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집안 사람들의 불화’와 이를 싸 덮는 ‘홍겨운 노랫가락’은 이질적인 것들이 혼재하는 ‘장례’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준섭이 ‘장례’를 계기로 가족들에게 자신의 ‘소망과 기구’를 드러냄으로써 가족 간의 화해와 융합이 가능해지고 있다.
- ⑤ ‘귀가 멍멍해 오는 소란통’과 준섭의 ‘묵상’이 대비를 이루면서 ‘장례’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애도와 소란스러움이 공존함을 보여주고 있다.

45.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혼이 옛 모습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할머니가 ‘조그맣게 오므리고 어린 아기’처럼 자는 모습은 병들고 약해진 할머니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
- ③ 준섭은 ‘하얀배추꽃나비들’이 푸른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떠올리면서 나비를 할머니의 영혼과 연결짓고 있다.
- ④ ‘마지막 남은 나이를 다 나눠 주’셨다는 ‘아빠’의 말에는 할머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것에 대한 자책이 담겨있다.
- ⑤ 할머니가 ‘예쁘고 착한 새 아기’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은지의 모습에서 할머니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 시



2015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B형

성명

수험번호

-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B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17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해’와 ‘설명’은 모두 과학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중 ‘이해’는 주로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루는 ‘정신과학’의 중요한 방법론이 되었던 반면에 ‘설명’은 자연적 대상을 다루는 ‘자연과학’의 중요한 방법론이 되어 왔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는 과연 ‘이해’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설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본능적인 행동을 제외한 인간의 행위 대부분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라 정신세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신과학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행위를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물론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여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같은 인간이라는 삶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타인의 체험을 자신의 체험처럼 느끼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은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의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철학자인 딜타이는 ‘객관적 정신’을 내세웠다. [객관적 정신]은 개별적인 인간 정신의 상호 작용에 의해 산출되는 집단 정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 정신’을 통해 ‘이해의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거나 서로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면 ‘객관적 정신’을 완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모든 과학의 통일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과적 설명으로 인간의 행위를 비롯한 모든 것에 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개별 현상을 보편 법칙에 포섭하여 대상을 인과적으로 규명하는 방법론인 ‘설명’은 인간의 행위를 규명할 때에도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인간의 행위를 다룰 때에도 개별적 특성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기보다 그 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보편 법칙의 수립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인간의 행위를 어떤 보편 법칙 속에 포섭되는 하나의 사례로 보고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개별 행위를 포섭하는 보편 법칙이 객관성을 갖는다면 그 행위에 대한 설명 역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들은 행위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보다 그런 의도가 왜 생겨났는가를 묻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해도 ㉠ ‘설명’이 ‘이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정신세계에 속하는 의도는 자연처럼 관찰이나 실험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세계는 어떤 법칙을 따르기보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 타인의 의도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이해’는 인간의 행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그렇지만 인간의 의도를 모든 상황에서 모두 이해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행위에 담긴 의도를 이해하더라도 그런 의도가 생긴 원인까지 알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행위는 결코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보다 ‘설명’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는 방법론으로서의 ‘이해’와 ‘설명’은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여야 할 것이다.

1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로 다른 두 이론이 상호 교섭해 온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 ② 기존의 개념과 새로운 개념을 대비하여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 ③ 서로 관련된 두 이론이 경쟁적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④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고 있다.
- ⑤ 대립하는 두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것에 대한 절충적인 관점을 제안하고 있다.

18. 밑글을 바탕으로 '객관적 정신'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객관적 정신'은 상반된 인식의 차이를 부각한다.
- ② '객관적 정신'은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에 순서를 부여한다.
- ③ '객관적 정신'은 대상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도록 한다.
- ④ '객관적 정신'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공통의 기반이 된다.
- ⑤ '객관적 정신'은 집단 정신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19. 밑글과 <보기>를 함께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 콜링우드 는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칙령을 연구할 때, 황제가 생각했던 것을 자신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에 황제가 처했던 상황이 마치 나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황제가 결단을 내렸던 그 과정을 자신의 마음속에 재연하면서 음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단순한 문헌학적 지식과는 다른 진정한 의미의 역사적 지식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나) 험펠은 중세 가톨릭교회에서 판매했던 면죄부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 면죄부에 대해 가졌던 열망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두려워하며 구원을 바란다는 보편 법칙에서 생겨난 결과라고 보았다. 따라서 험펠은 면죄부 판매도 특정한 시대의 일회적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면죄부는 일정한 돈만 내면 성직자가 신을 대신하여 일반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생겨난 것으로 중세 유럽에서 성행했다.

- ① (가)로 보아, '콜링우드'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을 때의 역사적 상황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현실에서 재현하려고 하였군.
- ② (가)로 보아, '콜링우드'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처한 상황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과정을 통해 황제가 칙령을 내린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겠군.
- ③ (나)로 보아, '험펠'은 중세 유럽에서 성행한 '면죄부 판매'를 보편 법칙에 포섭되는 하나의 사례로 설명하였군.
- ④ (나)로 보아, '험펠'은 기독교인들이 지닌 두려움과 욕망을 '면죄부 판매'라는 사건의 원인으로 보았군.
- ⑤ (나)로 보아, '험펠'은 일정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면죄부 판매'와 유사한 역사적 사건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보았겠군.

20. ㉠의 이유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바르게 골라 짝지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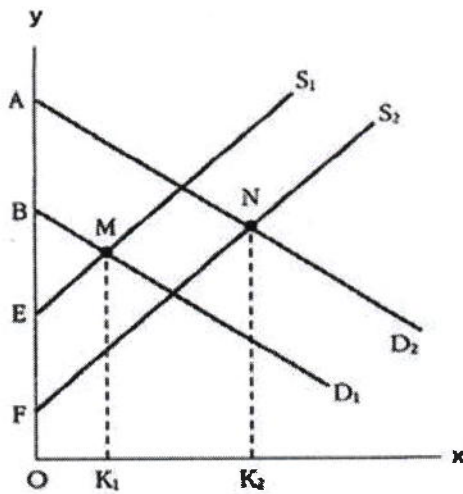
— < 보 기 > —

- ㉠. 타인의 행위에 담긴 의도에 공감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 ㉡. 인간이 지닌 의도는 관찰이나 실험의 대상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 ㉢. 인간의 모든 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보편 법칙을 세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 ㉣.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보다 '그 의도가 왜 생겼는가'에 대한 대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 | | | |
|--------|--------|--------|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

[21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자본 이론은 시카고학파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투자에 의해 인간에게 형성되고 체화된 지식 및 기능 등의 생산적인 힘을 인간자본이라 규정하고 인간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출, 그로 인해 포기된 소득 등을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파악한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게 결정되는 것은 인간자본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한다.



<그림>

인간자본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은 게리 베커로,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을 통하여 소득 격차를 설명하였다. 베커의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에 따르면, <그림>에서 x축은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량’을 나타내며 y축은 수요곡선일 때는 ‘한계수익’을, 공급곡선일 때는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한계수익은 개인의 능력을 반영한 값이며 한계비용은 투자 기회의 차이를 반영한 값이다. 수요곡선 D는 우하향하는데 이는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량에 대한 수익이 체감하기 때문이고, 공급곡선 S는 우상향하는데 투자량에 대한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D2는 D1보다 능력이 우수한 사람의 수요곡선이며 S2는 S1보다 부유한 사람의 공급곡선이다. 수요곡선에서 투자량이 0일 때 D2의 값 A가 D1의 값 B보다 큰 것은 능력이 우수한 사람에게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공급곡선에서 투자량이 0일 때의 S2의 값 F가 S1의 값 E보다 작은 것은 투자 기회의 차이를 반영한 비용은 부유한 사람이 더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 개인은 한계수익이 한계비용을 상회하는 한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 즉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까지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한다. 이 때, 인간자본 투자의 총수익은 수요곡선의 아래에 있는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표시되며 인간자본 투자의 총비용은 공급곡선 아랫부분의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인간자본 투자의 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인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D1의 수요곡선과 S1의 공급곡선을 가진다면 K1까지 투자를 하므로 인간자본 투자의 총수익은 OBMK1, 총비용은 OEMK1이므로 순이익은 BEM이 된다.

베커는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에 따라 소득 격차를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과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에서는 투자 기회 측면에서의 공급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수요 조건, 즉 동일한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면의 차이 때문에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고 본다. 능력이 우수한 사람의 수요곡선은 능력이 적은 사람의 수요곡선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소득 격차는 불가피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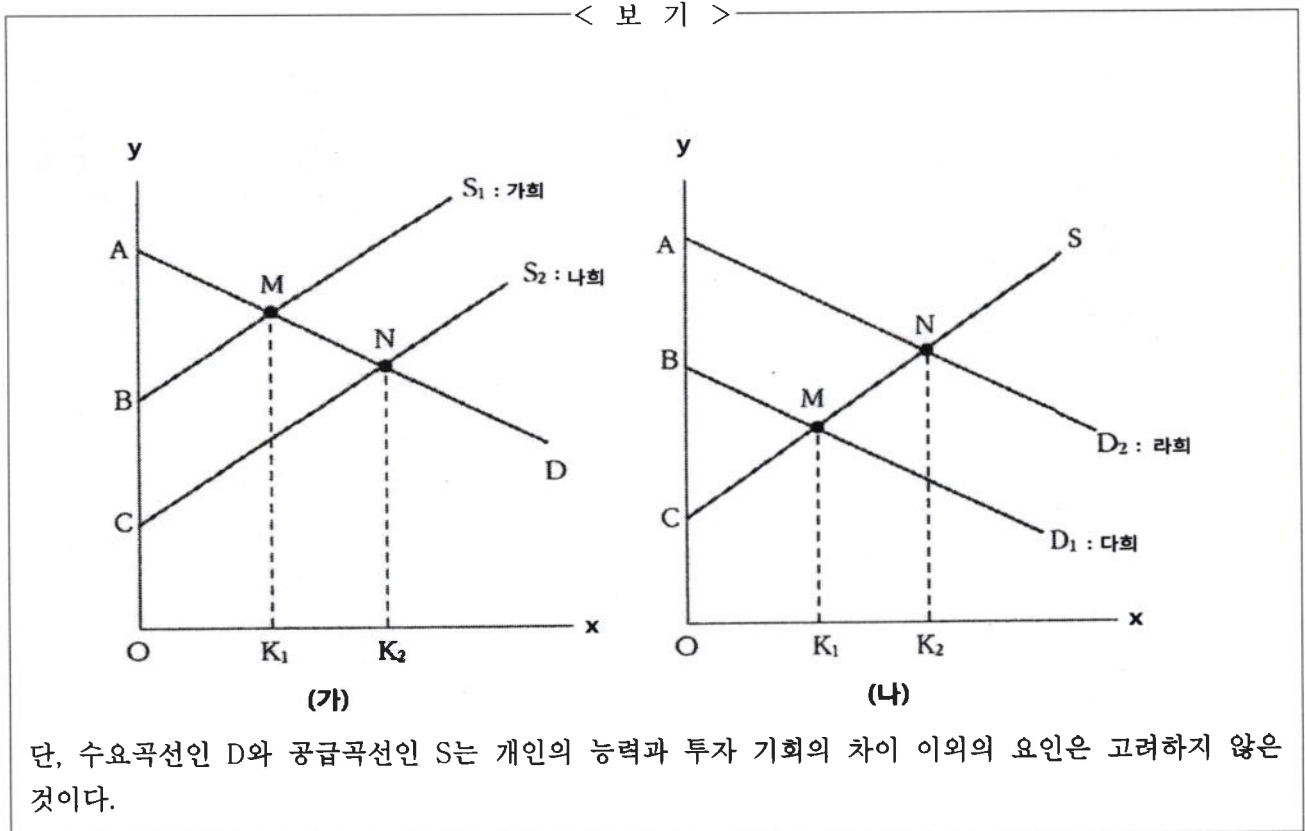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은 모든 사람의 타고난 능력은 비슷하므로 같은 양의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비슷하다고 본다. 따라서 수요 조건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공급 조건의 차이, 즉 투자 기회에서의 차이에 의해 소득 격차가 야기된다고 본다. 부유한 사람은 유리하게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의 공급곡선이 가난한 사람의 공급곡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이것이 곧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노동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축을 도출하게 한다.

㉠ 베커로 대표되는 인간자본 이론은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이 사회·문화적 요인을 완벽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교육의 의미와 효과를 과대평가하였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학자들은 인간자본 이론을 지배적 이론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행정가들이 이 이론을 정책 입안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

2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간자본 이론은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공헌을 하였다.
- ② 투자에 의해 형성되고 체화된 인간의 지식은 인간자본에 해당한다.
- ③ 베커는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을 통하여 소득 격차를 설명하였다.
- ④ 인간자본 이론에서는 인간자본 형성을 위해 포기한 소득을 배제하고 투자를 정의한다.
- ⑤ 베커는 소득 격차를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과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밑글과 <보기>를 토대로 22번과 2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2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OAMK₁은 '가회'의 인간자본 투자에 대한 총수익이다.
- ② (가)에서 OCNK₂는 '사회'의 인간자본 투자에 대한 총비용이다.
- ③ (나)에서 BCM은 '사회'의 인간자본 투자에 대한 순이익이다.
- ④ (나)에서 OK₁은 '사회'의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량이다.
- ⑤ (나)에서 ABMN은 '사회'와 '사회'의 소득 격차이다.

2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회’가 ‘나회’보다 소득이 높은 것은 ‘가회’의 능력이 ‘나회’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 ② ‘가회’는 ‘나회’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 ③ ‘가회’와 ‘나회’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대안으로는 교육 기회 보장 정책이 있을 수 있다.
- ④ ‘다회’와 ‘라회’는 타고난 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비슷하다.
- ⑤ ‘라회’는 ‘다회’에 비해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기회가 적으므로 저소득층 지원책을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다.

24. <보기>를 근거로 하여 ㉠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인도에서는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계급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하위 계급 노동자는 상위 계급의 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고 같은 인간자본을 획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얻는다. 하위 계급 노동자가 상위 계급의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인간자본이 충분한 노동자라고 해도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 ①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는 것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② 교육을 통해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인간의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 ③ 노동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 등에 대한 파악 없이 소득 격차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
- ④ 인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회 구조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 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수록 인간의 지식과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과대평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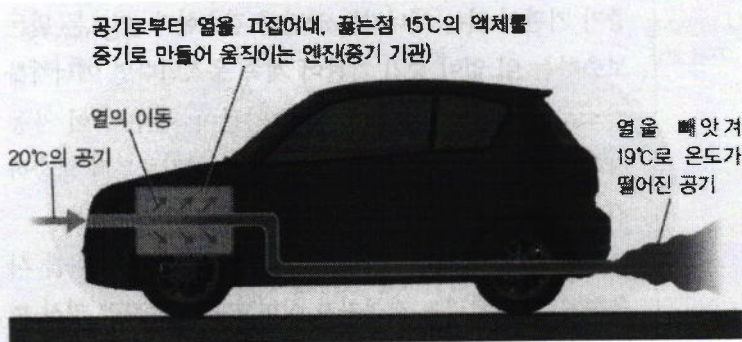
[25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림 1>

‘영구 기관’이란 외부에서 어떤 힘을 가하거나 연료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계속 움직이는 가상의 장치를 말한다. 주로 16세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영구 기관이 고안되었는데, 그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 <그림 1>의 장치는 17세기에 고안된 영구 기관으로, 내부가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진 원반이 선풍기처럼 회전하면서 각 구획의 벽을 따라 쇠구슬이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 장치를 처음 고안한 사람은 시계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쇠구슬로 인한 회전력에 의해 원반이 영구적으로 회전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이 장치는 결국 멈추었다. 처음에 원반을 돌린 힘은 회전축의 마찰과 쇠구슬이 구르면서 생기는 마찰 등으로 인해 열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치 안에서 마찰로 인해 손실된 에너지를 보충할 새로운 에너지는 생성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쇠구슬의 무게로 인해 회전축에 걸린 힘이 모두 원반의 왼쪽에 있는 쇠구슬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는 그 형태를 바꾸는 경우는 있어도 새로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한 법칙이 바로 ‘열역학 제1법칙’이다. 결국 <그림 1>과 같은 영구 기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열역학 제1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림 2>

그렇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영구 기관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주변 환경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영구 기관의 작동은 가능하지 않을까? 주변에 있는 공기의 열을 이용하여 달리는 가상의 자동차를 상상해 보자(<그림 2>). 주변 공기의 온도가 20°C인 상황에서, 끓는점이 15°C인 액체를 끓여서 그 증기의 힘으로 작동하는 증기 기관이 장착된 자동차가 있다고 하자. 이때 액체를 끓여 증기를 만드는 데는 주위에 있는 공기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액체를 증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열을 빼앗겨 온도가 떨어진 공기는 자동차 밖으로 배출된다고 하자. 증기를 다시 식혀 액체로 만들 수 있다면 이 자동차는 영구히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증기를 식혀서 다시 액체로 만들 수 있을까? 온도가 20°C인 주변의 공기만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 이 증기를 15°C 이하로 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칙이 열의 이동에 관한 법칙인 ‘열역학 제2법칙’으로, 그 내용은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며,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위 자동차의 아이디어는 이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결국 <그림 2>와 같은 자동차의 영구적 작동은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5.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영구 기관의 종류와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 ② 영구 기관을 열역학 법칙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 ③ 에너지 개념의 변화 과정을 시대순으로 살펴보고 있다.
- ④ 열역학 법칙을 도출해낸 과학자들 간의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 ⑤ 실험을 통해 열에너지와 일의 관계가 증명되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26. <보기>에서 ㉠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골라 짝지은 것은?

— < 보 기 > —

- ㉠ 처음 가해진 힘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된다.
- ㉡ 장치 내부의 마찰이 없으면 새로운 에너지의 생성이 가능하다.
- ㉢ 작동 과정에서 생긴 열에너지는 회전축에 걸리는 힘을 증가시킨다.
- ㉣ 회전축을 중심으로 원반의 오른쪽에 걸린 힘과 원반의 왼쪽에 걸린 힘은 상쇄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27.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변 공기의 영향으로 액체의 끓는점은 15℃보다 더 낮아진다.
- ② 증기는 추가 에너지의 공급이 없어도 천천히 식어서 액체로 변한다.
- ③ 증기가 액체로 변하기 위해서는 주변 공기의 온도가 증기의 온도보다 낮아야 한다.
- ④ 증기를 만드는 데 사용된 열에너지는 증기를 액체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다.
- ⑤ 증기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증기의 열이 주변 공기의 온도보다 높은 온도의 물체로 이동해야 한다.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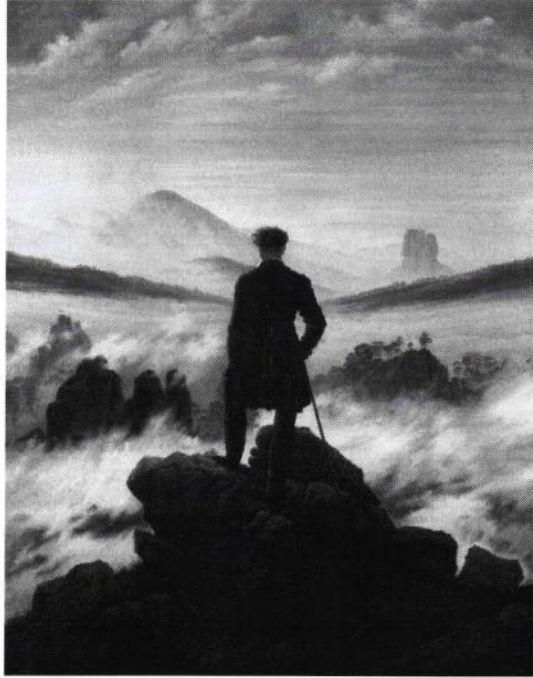
- (가) ㉠ 예술을 진리와의 연관 속에서 바라보는 것은 낭만주의의 큰 특징이다. 낭만주의에서는 과학보다 예술이 한 단계 높은 진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예술이 그 독특한 힘으로 이성적, 의식적, 논리적 접근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무한, 영원 등과 같은 보다 심오하고 본질적인 진리나 실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낭만주의 작품에는 유한한 현 상태에서부터 벗어나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을 지향하는 인간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낭만주의 경향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작가가 독일의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이다. 그의 풍경화는 광활하고 영원한 자연을 대면한 인간의 낭만적 정서를 탁월하게 보여 주었다.
- (나) 프리드리히는 자연을 신의 체현으로, 또 예술을 신과 인간의 매개자로 여겼다. 그는 자연을 통해 신을 만날 수 있으며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그림 속에 담는 것을 신적인 창작이 구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풍경화를 통해 자연 속에 내재된 무한함, 즉 신적인 것을 표현해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의 관계를 보여 주고자 했다. 자연을 상징적 도구로 삼아 유한자와 무한자의 관계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프리드리히의 풍경화에 그려진 자연은 단순히 사실적인 풍경에 해당하지 않고 인간이 갖는 신비스러운 종교적 감정, 또는 자연과 대면해 관조하며 품은 영원성에 대한 동경과 같은 인간의 낭만적 심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 (다) 프리드리히의 풍경화는 18세기 미학에서 중요시 되었던 ‘숭고’의 감정을 특징적으로 잘 보여 주고 있다. 자연의 규모와 그 힘이 인간이 측량하고 지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때 인간은 자연을 대면하여 고통과 쾌감의 상호 모순된 정서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정서를 칸트는 ‘숭고’라고 이름 붙였다. 이에 따르면 숭고는 측량할 수 없는 자연의 크기와 위력 앞에서 느끼는 외경의 감정으로 우리 정신 속에 무한한 것에 관한 이념을 환기시킨다. 프리드리히는 실제 자연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숭고의 감정을 풍경화를 통해 보여 주었는데, 이러한 그의 그림에는 인간이 전경(前景)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속 인간은 압도적인 자연과 대비되며 숭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환기하는 데에 기여한다.
- (라) 프리드리히는 1818년부터는 전경에 있는 사람을 이전보다 크게 그렸고 명암을 강하게 대조시켰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안개 바다를 굽어보는 산행가」란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자연과 마주 대하고 있는 인물은 명암의 대조를 통해 그 존재가 강하게 부각되면서 화면에 긴장감을 자아내는데, 이를 통해 인간의 힘으로 측량하고 지배할 수 없는 규모의 자연을 접하고 그러한 자연을 동경하는 인간의 낭만적 심정을 환기한다. 감상자는 이 인물을 통해 그림 속으로 끌려 들어가 그와 하나가 되어 자연을 관조하게 되며, 이러한 관조를 통해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는 낭만주의적 감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 (마) 프리드리히의 풍경화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관계에 대한 내적 통찰을 나타내고 있다.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통일에 대한 지향을 담은 프리드리히의 풍경화는, 항상 변화를 겪는 인간에 비해 변치 않는 이상과 영원성을 대변하는 자연에 숨겨진 신적인 의미를 찾아내어 감상자로 하여금 그 의미를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28.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낭만주의의 특징적인 경향을 소개한 다음, 그와 관련해 글의 중심 화제가 프리드리히의 풍경화임을 밝히고 있다.
- ② (나): 자연과 예술에 관한 프리드리히의 견해를 중심으로 그의 작품 세계가 변모한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다): ‘숭고’의 개념에 관한 칸트의 견해를 소개해 프리드리히의 풍경화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프리드리히의 풍경화 속 인물의 특징을 제시하고 작품에서 그 인물이 수행하는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
- ⑤ (마): 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다음, 프리드리히의 풍경화가 지닌 의의를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29. 윗글을 토대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프리드리히, 「안개 바다를 굽어보는 산행가」, 1818년

- ① 작품에 그려져 있는 ‘안개 바다’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과 대조되는 영원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② ‘산행가’와 ‘안개 바다’의 명암이 대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명암의 대조는 그림 속에서 ‘산행가’의 존재를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프리드리히에 따르면, 그림 속 ‘안개 바다’는 신이 체현된 자연을 의미하며, 이를 나타낸 이 작품은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④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 ‘안개 바다’는 인간에게 한계를 자각하게 만들어 쾌감을 억제하는 고통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숭고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⑤ ‘산행가’는 감상자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그림 속 ‘안개 바다’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외경감을 토대로 무한한 세계를 동경하는 심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

30. 윗글에서 ㉠과 관련해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낭만주의에서는 인간이 예술을 통해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② 낭만주의에서는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을 진리로 생각한다.
- ③ 낭만주의에서는 삶과 분리된 성격이 강한 예술 작품을 높이 평가한다.
- ④ 낭만주의에서는 과학이 추구하는 진리에 미치는 예술의 영향을 중시한다.
- ⑤ 낭만주의에서는 예술가가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夕陽).....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 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傳說)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개빛 허울의 눈부심에 녀 빼앗기지 말고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뚱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박히기 전에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구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넠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未開地)에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 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 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나)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였다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 냈던 것이다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바람과 햇별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꺾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졌던 것이다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지금 젓가락 끝에 깎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 김기택, '멸치'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 이동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② 특정한 종결 표현으로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대구의 방식을 규칙적으로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통해 정서적 교감을 드러내고 있다.

32. (가)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들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푸 투안은 공간 조직의 근본 원리는 인간의 신체,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공간 체험은 신체를 통해서 가능하며,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문화적 의미가 획득되기 때문이다. 이는 시적 공간의 구성 원리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가)의 경우 신체 또는 인간들의 관계와 결합된 공간의 표상들은, '우리들의 고향'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① 고운 얼굴 조석으로 비취이던 우물가
- ②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나오던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 ③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
- ④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내
- ⑤ 비단치마 나부끼며 떼 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

33. (나)의 시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딱딱하'게 '굳어지기 전까지'의 '물결'은 멸치의 원시적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그물'과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은 멸치의 생명력을 앗아 가는 세계의 폭력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빠다귀'와 '모래 더미'는 생명력을 잃은 멸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이 작은 무늬'는 멸치가 생명력을 자각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는다고 한 것은 멸치의 생명력을 환기한다고 할 수 있다.

[34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년 초까지 아버지는 시내 공립 중학교의 서무과장이었다. 그런데 작년의 학기말을 끝으로 물러나오고 말았다. 그 점은 순전히 엄마 탓이었다. 엄마는 아버지 학교의 공금을 빼내 썼던 것이다.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처음부터 엄마의 농간에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공금을 빼내어 사용(私用)으로 쓰다니. 평생원인 아버지는 순제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었다. 비단 그 문제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아버지는 소심하고 웅졸했다. 말이 없고 겁이 많았다. 이를 아버지는 전쟁 탓으로 돌렸다. 언젠가 아버지는, 고향을 잃을 때부터 가슴에 큰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구멍은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다고 자탄했다. 그러나 고향을 잃고 살기는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유는 타당치가 못했다. ㉠ 아버지는 저 유명한 금강산을 끼고 있는 강원도 통천군 두백리가 고향이었다. 들은 바로는 그곳에 배 열 척과 큰 어장까지 가진 재력 있는 수산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해방 전에는 일본서 전문학교까지 다녔다. 해방 후로는 서울서 대학에 적을 두었다. 전쟁이 나던 해 유월, 약혼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올라간 것이 그만 발이 묶여 버렸다. 그해 칠월 아버지는 고향서 징집을 당해 인민군 소위로 참전했다. 지난 봄, 어느 날 아버지는 나도 끼인 자리에서 형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러나 난 공산주의가 원래 새, 생리에 맞지 않았어. 객관적으로 어느 주의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 그들은 매사에 너무 과격했거든. 마치 사나운 맹수가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을 집단으로 기, 길들이려 덤벼 들었어. 그들은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로 버려 두지 않았다니깐. 혁명, 투쟁, 반동, 처단 아, 단어만 드, 들어도 얼마나 끔찍하니. 사람이란 다 개성이 다름으로 해서 가, 각자의 꿈과 소망이 다르듯, 그런 자유와 창의력을 나는 존중하지. 또 너들이 알다시피 인간이 생산과 노동 이외 사색도 피, 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을 꺾었다.

“아버진 역시 사색파시다, 이 말이시겠쎄. 너무 사색이 깊으셔서 결단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꺾테기. 오히려 소나 말처럼 잘 길들여진, 심지어 엄마에게까지 꺾 못 하는 노예…….”

이제 형이 내 말을 꺾었다. “아니야. 아버지는 정말 전쟁의 희생자야. 통일을 못 이루는 이 분단의 현실이 아버지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 갔어. 요컨대 아버지 삶의 근간을 끊어 버린 거야.”

“형, 잠깐만” 하고 내가 말했다. “교과서에서도 노래삼아 나오는 통일, 통일이란 말은 귀에 못이 박일 정도야. 그런데 뭐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다시피 지금 이 상태에서 저쪽 놈들과 무슨 대화가 통하겠어. 선생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 공존하는 한 무력의 길 이외는 통일이 힘들다고 말했어. 나도 동감이야.”

“힘들기는 히, 힘들지. 그러나 누가 지금 토, 통일의 길을 포기하고 있어? 남북 오천만이 넘는 인구 중 통일을 막고 있거나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아버지는 머리를 쫄레쫄레 흔들며 말했다.

[A] “포기가 아니라 체념이지요. 아버지도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통일을 위해 누가 전쟁을 원해요? 오천만이 넘는 인구 중 몇 할이 전쟁을 원하고 있겠어요? 모르긴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망쳐 버려요. 차라리 전쟁을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영구적인 분단이 더 좋아요. 우선 내가 살고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말했다.

“너희 세대는 왜 통일이 중요한지 몰라.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한 건 순전히 교육 탓이야.” 형이 강한 어투로 내 말을 반박했다.

“교육 탓만은 아니야. 이 물질 위주의 기계주의 사회가 저 저, 젊은 애들을 다른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잃게 하는 거야.”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었다고 아버지가 말을 들려냈다.

“저는 통일이 절실하다고 외치는 아버지나 형이 되기보단 차라리 통일을 모르는 쪽이 좋아요. 그리고 두 분을 절대로 닮지 않겠어요.” 내가 말했다.

“누가 뭐래도 인간은 저, 정직이 중요해. 네 생각은 정직하지 못해.” 아버지의 말이었다.

아버지의 그 말에는 잘못이 없었다. 아버지는 늘 정직과 청렴결백을 생활신조로 삼았다. 그래서 학교에서 빼낸 공금을 보름 안으로 메워 놓겠다는 엄마의 허튼 약속을 절대 믿지 않았다. 그러자 엄마는 파산, 집단 자살, 그것도 아니라면 나 혼자 감옥에 가거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극단적인 위협조차 사양치 않았다. 그렇게 협박과 울음을 섞어 아버지를 설득시킨 것이다. 그 결과 겨우 오백만 원의 돈을 돌려 낼 수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인사불성으로 술에 취해 돌아왔다. “이건 나, 낱강도다. 이제 나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다. 끝장이다.” 아버지는 우리의 방으로 건너와 형과 나를 잡고 투정했다. 엄마는 그 돈으로 깨어지려는 계를 겨우 수습한 모양이었다. 아버지와 약속한 보름이 지났다. 그러나 엄마는 그 돈을 메워 내지 못했다. 아버지는 안절부절못했다. 엄마도 안달이었다. 이제 아버지가 매일 자살 타령을 읊조렸다. 부정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택하는 게 낫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 그로써 아버지의 스물네 해 공직 생활은 불명예로 끝났다. 퇴직금을 받았으나 그 돈으로 구멍을 막기에는 모자랐다. 나머지 돈은 엄마가 어떻게 융통한 모양이었다. 학교에서 송별회를 마치고 오던 날, 아버지는 우리들 앞에서 오랜만에 울었다. 그러나 끝내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았다. “암탉이 울면 지, 집안이 망한다더니 끝내 그 꼴을 보, 보고 말았구나.” 한숨 끝에 이 말을 중얼거렸을 뿐이었다. 좋게 말해 아버지는 제상에 오른 선한 양이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아버지는 집 안에 들어앉고 말았다. 매달 일만천 원씩 나오는 삼급 상이용사 연금이 이제 아버지의 유일한 벌이었다. 그러나 역시 엄마는 수완가였다. 엄마는 우리 식구를 거리에 나앉게 하지 않았다. 물론 끼니를 거르게 만들지도 않았다. 엄마의 능력으로 우리 식구는 그런대로 옛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오직 경제권이 전폭 엄마에게로 옮겨 간 점이 달랐다. ㉠ 아니, 전에도 경제권은 엄마가 쥐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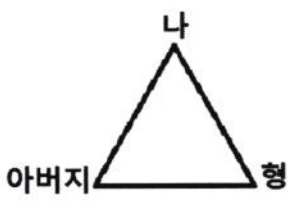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

34.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아버지'는 청렴결백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다.
- ② '아버지'는 인간의 개성을 억압하는 이념에 대해 비판적이다.
- ③ '엄마'는 '아버지'의 퇴직금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다.
- ④ '아버지'는 학교 공금을 빼내 쓴 일로 불명예스럽게 퇴직했다.
- ⑤ '아버지'와 '엄마'는 고향을 잃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35. <보기>의 ㉠을 설명하기 위한 단서를 [A]에서 찾는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윗글에서 [A]는 현실 문제와 관련하여 인물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나'는 대화에 참여하는 인물 중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서술자이기도 하다. 이는 현실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 하나의 시각을 다른 시각으로 조명하도록 함으로써 독자의 비판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작가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영구적인 분단'이 더 좋다는 '나'의 생각은, '형'에 의해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진단된다.
- ②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일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아버지'의 생각은, '나'에 의해 '냉정'하지 못한 생각으로 치부된다.
- ③ '분단'이 아버지의 '삶의 근간'을 빼앗아갔다는 '형'의 생각은, '나'에 의해 '무력의 길'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 ④ '젊은 애들'이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잃었다는 '아버지'의 생각은, '나'에 의해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었다고 '둘러대'는 말로 폄하된다.
- ⑤ '우선 내가 살고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나'의 생각은, '아버지'에 의해 '물질 위주의 기계주의'로 인한 도덕성의 상실로 비판된다.

3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인물의 심리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처지와 가치관을 분석하고 있다.
- ④ 인물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7. <보기>는 [B]를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공동 과제를 수행한 결과이다.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S# 91 안방

아버지 : 누가 뭐래도 인간은 저, 정직이 중요해. 당신 생각은 정, 정직하지 못해.

엄마 : (애원조로) 아 내가 뭐했는데. 보름 안으로 꼭 채워준다고 했잖아. 이번만 좀 어떻게 해줘, 응?

아버지 : 그게 중, 중요한 게 아니야. 애, 애초에 공금을 빼낸다는 생각이 자, 잘못이라니까.

엄마 : (목소리를 높이며 빠르게) 그 돈이 없으면 우리 파산이야. 내가 벌어오는 돈이 없으면 우리 네 식구 모두 죽어야 한다고. 아님 내가 감옥살이 하는 동안 혼자서 고고하게 잘 먹고 잘 살든가!

아버지 :(묵묵부답, 집을 나선다.)

S# 92 며칠 후, 안방

아버지, 두툼한 돈봉투를 엄마에게 건넨다. 화색이 도는 엄마의 얼굴과 침울한 아버지의 표정 교차. 화면을 분할하여 각각의 얼굴 C. U.*

S# 93 어느 날 밤, 형제의 방

아버지의 취한 모습. 인사불성이 되어 ‘끝장이다’를 반복하며 형제에게 술주정하는 아버지. 말리려 온 엄마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주정을 한다.

S# 94 보름 후, 안방

아버지 : (안절부절못하며) 도, 돈을 채워주겠다는 날인데.....어떻게 된 건가?

엄마 : (되려 화를 내며) 내가 안 주고 싶어 안 주는 거냐고. 갖다 줄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라니깐!

아버지 : (잠시 사이를 두고, 그럴 줄 알았다는 말투로) 그냥 내, 내가 죽어야지. 공금에 손을 대서 나, 낮을 붉히게 되느니 주, 죽는 게 낫겠어.

*C.U. : 시나리오 용어의 하나로, 어떤 한 부분을 특별히 크게 확대하여 찍는 것을 말함. ‘Close Up’의 약어.

- ① S# 91: ‘정직’을 생활신조로 삼는 ‘아버지’의 성격을 고려해서, 원작에서 ‘아버지’가 다른 인물에게 했던 말을 ‘엄마’에게도 하는 걸로 했군.
- ② S# 91: ‘엄마’가 ‘협박과 울음’으로 ‘아버지’를 설득하는 부분을, 원작과 달리 대화 장면으로 구성해서 ‘아버지’와 ‘엄마’의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군.
- ③ S# 92: ‘오백만 원의 돈을 돌려 낼 수 있었다.’라는 원작의 구절에서 ‘아버지’와 ‘엄마’의 심정을 추리하여, 두 인물의 심정 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했군.
- ④ S# 93: ‘아버지’가 ‘형과 나’를 붙잡고 투정을 하는 원작과는 달리, ‘엄마’까지 등장시켜 ‘아버지’가 가족 모두에게 가졌던 불만을 살려 내고 있군.
- ⑤ S# 94: ‘약속한 보름’이 지난 후 ‘아버지’가 ‘매일’ 자살 타령을 읊조렸다는 부분을, 원작과 달리 하나의 시공간을 설정하여 ‘아버지’와 ‘엄마’의 갈등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군.

38. 밑글의 단어를 활용하여, ‘아버지’를 주어로 ㉠을 달리 표현해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니,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만큼은 ‘공생원’으로 살지 않았다.
- ② 아니, 경제권 행사에서 아버지는 늘 ‘깍대기’에 불과했을 뿐이다.
- ③ 아니,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날강도’가 되는 일만은 극히 꺼렸다.
- ④ 아니, 경제권 행사에서 아버지는 항상 ‘희생자’의 역할을 맡아 왔다.
- ⑤ 아니, 아버지는 언제나 경제적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경주에 사는 박생은 학문의 성취 수준이 높았으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늘 불쾌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인품이 온후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어느 날 박생은 한밤중에 ‘주역(周易)’을 읽다가 얼핏 잠이 드는데, 꿈에 나타난 저승사자에게 인도되어 염부주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염부주의 임금인 염왕을 만난다.

박생이 또 물었다.

“임금님께서서는 무슨 인연으로 이 이역(異域)에 살면서 임금이 되셨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였다.

“나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도적을 토벌하였소. 그리고 스스로 맹세하기를 ‘죽은 뒤에도 마땅히 여귀(厲鬼)*가 되어 도적을 죽이리라.’ 하였소. 그런데 그 소원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성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흉악한 곳에 와서 우두머리가 된 것이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우러르는 사람들은 모두 전세에 부모나 임금을 죽인 자들이거나 간교하고 흉악한 무리들이요.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통제를 받아 그릇된 마음을 고치려 하고 있소. 그러나 정직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하루도 이 땅의 우두머리가 될 수 없소. 과인이 들으니 그대는 정직하고 뜻이 굳세어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고 하니 진실로 달인(達人)이라 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런데도 그 뜻을 당세에 한 번도 펼쳐 보지 못하였으니 마치 형산의 옥이 티끌 가득한 벌판에 버려지고 밝은 달이 깊은 못에 잠긴 것과도 같소. 훌륭한 장인을 만나지 못하면 누가 지극한 보물임을 알아주겠소? 그러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소? 나는 시운(時運)이 이미 다하여 장차 활과 검을 버리고자 하오. 그대도 또한 명수(命數)가 이미 다했으니 곧 썩덤불 속에 묻힐 것이요. 그러니 이 나라를 맡아 다스릴 사람이 그대가 아니고 누구겠소?”

임금은 잔치를 열어 박생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그리고 박생에게 삼한(三韓)이 흥하고 망한 역사를 물으니 박생이 하나하나 대답하였다. 이야기가 고려가 창업한 대목에 이르자 임금은 거듭 탄식하며 서글퍼하다가 말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따르는 것같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반역할 뜻을 품고 있어서 날이 가고 달이 가면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덕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왕위에 올라서는 안되오. 하늘이 비록 거듭 말해 주지는 않아도 행사(行事)로 보여주니, 처음부터 끝까지 상제의 명령은 지엄한 것이요. 대체로 나라라는 것은 백성의 나라요, 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이요. 그런데 천명이 떠나가고 민심이 떠나가면 임금이 비록 제 몸을 보전하고자 한들 어떻게 가능하겠소?”

박생이 또 역대의 제왕들이 이도(異道)*를 숭상하다가 재앙을 입은 이야기를 하자 임금이 문득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하였다.

“백성들이 태평세월을 노래하는데도 홍수와 가뭄이 닥치는 것은 하늘이 군주로 하여금 일을 삼가라고 거듭 경계하는 것이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는데도 상서로운 일이 나타나는 것은 요괴가 군주에게 아첨해서 더욱 교만하고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러니 역대 제왕들에게 상서로운 징조가 일어났던 때가 백성들이 안락함을 누리던 때겠소, 아니면 원통함을 부르짖던 때겠소?”

박생이 말하였다.

“간신들이 별 때처럼 일어나고 큰 변란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윗사람들이 백성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면서도 잘한 일이라고 여기며 부질없는 명예만 구하려 한다면 어찌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은 한참 동안 묵묵히 있다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그대의 말이 옳소.”

잔치를 마친 후 임금이 박생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손수 다음과 같은 ㉠ 조서를 내렸다.

염주의 땅은 실로 풍토병이 유행하는 곳이므로 우(禹)임금의 발자취도 이르지 못하였고, 목왕(穆王)의 준마도 오지 못하였다. 붉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독한 안개가 하늘을 막고 있다. 목이 마르면 이글이글 끓는 구리 물을 마셔야

하고, 배가 고프면 활활 타오르는 쇠덩이를 먹어야 한다. 그러니 야차(夜叉)나 나찰(羅刹)이 아니고는 발붙일 곳이 없고, 도깨비가 아니고는 그 뜻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이다. 불의 성벽이 천 리에 둘러 있고, 철로 된 산악이 만 겹이나 겹쳐 있다. 백성들의 풍속이 강하고 사나워서 정직한 자가 아니면 그 간사함을 판단할 수 없다. 지세도 굴곡이 심해 험준하니 신령하고 위엄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들을 교화할 수가 없다.

아아, 동쪽 나라의 박아무개는 정직하고 사심이 없고,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남을 포용하는 자질을 갖추었고,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쳐 줄 재주를 가졌도다. 생전에 비록 현달하여 영화를 누리는 못하였지만 죽은 뒤에는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로다. 모든 백성이 길이 믿고 의지할 사람이 그대가 아니고 누구겠는가?

마땅히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다스려 백성들을 착한 길로 이끌고, 몸소 실천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세상을 태평하게 해주오. 하늘을 본받아 법을 세우고,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것을 본받아 내 이제 이 자리를 그대에게 물려주나니 아아, 그대는 삼가 받을지어다.

박생은 조서를 받아 든 후 예법에 맞추어 두 번 절하고 물러 나왔다. 임금은 다시 신하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치하를 드리게 하고, 태자의 예로써 그를 전송하게 하였다. 그리고 박생에게 경계하였다.

“머지않아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이오. 이번에 가거든 수고롭지만 내가 말한 바를 인간 세상에 널리 전하여 황당한 일들을 다 없애 주오.”

박생은 다시 두 번 절을 올리고 감사하면서 말하였다.

“감히 명하신 바의 만분의 하나라도 받들지 않겠습니까.”

박생이 문을 나선 후 수레를 끄는 자가 발을 헛디뎈 수레가 뒤집혔다. 그 바람에 박생도 땅에 넘어졌는데 놀라서 깨어 보니 한갓 꿈이었다. 박생이 눈을 떠 보니 책은 책상 위에 내던져 있고, 등잔불은 가물거리고 있었다. 박생은 한참 동안 감격스러우면서도 의아하게 여기다가 장차 죽게 될 것을 깨닫고 날마다 집안일을 정리하는 데 몰두하였다.

몇 달 뒤 박생이 병을 얻었는데 스스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결국 의사와 무당을 사절하고 세상을 떠났다. 박생이 죽던 날 밤 이웃 사람들의 꿈에 어떤 신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 주었다.

“네 이웃집 아무개가 장차 염라대왕이 될 것이다.”

- 김시습,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

* 여귀(厲鬼): 재앙을 가져오는 악귀.

* 이도(異道): 불교를 이룸.

3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② 배경묘사를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를 토대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 ⑤ 작품 속의 서술자가 상황과 인물의 태도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40.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염왕’은 염부주를 떠나야 하는 것을 후회했다.
- ② ‘염왕’은 왕위를 물려 달라는 ‘박생’의 요구를 듣고 당황했다.
- ③ ‘박생’은 꿈에서 깬 후 자신이 죽을 것을 깨닫고 신변을 정리했다.
- ④ ‘박생’은 ‘이도(異道)’를 숭상해 현실 세계에서 널리 알리고자 했다.
- ⑤ ‘박생’은 현실 세계로 돌아와 염부주에서의 경험을 ‘신인’에게 알려 주었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남염부주지’의 작가 김시습이 살았던 당대의 현실은 세조의 왕위 찬탈이 일어났고 인제가 제대로 등용되지 않아 백성을 위하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이다. 김시습은 이처럼 불의가 판을 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의 정도(正道)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가 정치의 정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왕도 정치이다. 덕목을 갖춘 왕이 백성을 위하는 민본 정치를 해야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남염부주지’에서 염왕과 박생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김시습의 사상과 이상을 대리해서 제시하고 있는 대변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주된 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염부주’는 김시습이 개혁하고자 했던 현실 세계를 상징하고 있다.

- ① ‘붉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독한 안개가 하늘을 막고 있’는 공간으로 ‘염부주’를 형상화한 것은 부조리한 현실 세계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② 염왕이 말한 ‘훌륭한 장인’은 풍속을 교정하고 백성을 교화해 정치의 정도(正道)를 회복하기 위해 임금이 반드시 등용해야 하는 인재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염왕의 말을 통해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중시했던 작가의 민본주의 사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④ ‘정직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이어야 ‘염부주’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는 염왕의 말은 덕목을 갖춘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작가의 생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⑤ 큰 변란이 일어나는데도 부질없는 명예만 좇는 ‘윗사람들’이 득세한 현실에 대한 박생의 비판은 당대의 현실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았던 작가의 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생’이 염부주의 왕이 되어야 하는 까닭을 밝히고 있다.
- ② ‘박생’이 ‘염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임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 ③ ‘박생’이 염부주를 태평하게 만들어줄 것이란 ‘염왕’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염왕’이 ‘박생’에게 신이한 능력을 기르는 방법을 전수해 주기 위해 지은 것이다.
- ⑤ ‘염왕’이 ‘박생’과 치국(治國)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룬 후에 ‘박생’에게 내린 것이다.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hing장(行裝)을 다 찢티고 석경(石逕)의 막대 디퍼
 빅천동(百川洞) 겨티 두고 만폭동(萬瀑洞) 드리가니
 은(銀) 7톤 무지계 옥(玉) 7톤 룡(龍)의 초리
 섯들며 썸는 소리 십리(十里)의 즈자시니 [A]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금강딧(金剛臺) 밍 우 층(層)의 선학(仙鶴)이 샷기 치니 [B]
 춘풍(春風) 옥덕성(玉笛聲)의 첫 즈을 끼똥던디
 호의현상(縞衣玄裳)이 반공(半空)의 소소 쓰니
 서호(西湖) 넷 주인(主人)*을 반겨셔 넘노는 듯
 쇼향노(小香爐) 대향노(大香爐)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스(正陽寺) 진혈딧(眞歇臺) 고터 올라 안즌마리
 녀산(廬山) 진면목(眞面目)이 여기야 다 뵈는다
 어와 조화옹(造化翁)이 현스토 현스홀샤 [C]
 늘거든 썬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갓는 듯 백옥(白玉)을 못것는 듯
 동명(東溟)을 박츠는 듯 북극(北極)을 꺽는 듯
 ㉠ 놉홀시고 망고딧(望高臺) 외로올샤 혈망봉(穴望峰)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천만(千萬) 겁(劫)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는다
 어와 녀여이고 너 7튼니 썬 잇는가
 기심딧(開心臺) 고터 올라 등향성(衆香城) 바라보며
 만이천(萬二千) 봉(峰)을 녀녀(歷歷)히 혀여흐니 [D]
 봉(峰)마다 밍쳐 잇고 굿마다 서린 기운
 뭉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뭉디 마나
 더 기운 흐터내야 인걸(人傑)을 뵈들고자

- 정철, '관동별곡(關東別曲)' -

* 서호 넷 주인 :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아 풍류를 즐겼다고 알려진 송나라의 임포를 가리킴.

43.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간편한 차림으로 산에 올라 자연의 정경을 접했다.
- ② 화자는 '금강딧'에 올라 '쇼향노'와 '대향노'를 굽어보며 흥취에 젖었다.
- ③ 화자는 학이 자신을 반긴다고 여기며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냈다.
- ④ 화자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에 조물주의 숨씨가 뛰어나다며 감탄했다.
- ⑤ 화자는 '진혈딧'에 올랐다가 다시 '기심딧'에 올라 산봉우리들을 바라보았다.

44. <보기>의 입장에서 [A] ~ [D]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진경산수(眞景山水)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김창흡은 진경(眞景)을 그릴 때 '신정(神情)'을 얻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했다. 신정은 외물(자연)과 만날 때 일어나는 신령스러운 마음의 작용을 의미하는데,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상의 본질적 특성을 보여줄 만한 것을 살리고 외적인 형상에 대한 세세한 묘사는 생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말을 그린다면 말의 형과 색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보다 말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포착하여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관동별곡은 이와 같이 신정이 드러나는 묘사로 이루어져 있다. 신정이 드러나는 묘사는 압축과 생략을 동반하기 때문에 마치 띄엄띄엄 점을 찍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독자들은 이러한 점들을 상상을 통해 연결함으로써 머릿속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되고, 화자의 감흥을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

- ① [A]에서 화자가 폭포를 대했을 때 '룽', '눈' 등을 떠올렸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화자가 폭포를 대했을 때 얻은 '신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B]에서는 '춘풍(春風) 옥덕성(玉笛聲)'과 학의 비상을 연결해 학을 대한 화자의 '신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학의 비상은 화자의 고양된 감흥을 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D]의 '뭉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뭉디 마나'는 화자가 느낀 봉우리의 본질적 특성을 제시한 것으로 봉우리를 대했을 때 얻은 화자의 '신정'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④ [A], [C]에서는 각각 폭포와 산봉우리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 점을 찍듯 제시하고 있는데, 독자가 그렇게 제시된 것들을 연결해 상상하면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 ⑤ [B], [D]에서는 공통적으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나타냄으로써 화자의 감흥을 선명하게 부각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

45.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자연 속에서 자적하며 생활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화자는 자연의 모습에서 혼탁한 속세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군.
- ③ 화자는 자연물의 모습으로부터 자신이 지키며 살아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떠올리고 있군.
- ④ 화자는 자연물의 조화로운 모습에서 백성과 어울려 선정을 베푸는 임금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군.
- ⑤ 화자는 속세에서 자신이 맡은 직분을 잊은 채 자연에 몰입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국어 영역 B형 답안지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답	④	④	②	②	⑤	④	②	⑤	④	①	③	③	③	⑤	⑤	④	⑤	④	①	③
문항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정답	④	④	③	④	②	③	③	②	④	①	②	④	④	③	③	⑤	④	②	④	③
문항	41	42	43	44	45															
정답	②	④	②	⑤	③															

제 1 교 시



2015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A형

성명

수험번호

-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B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16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흔히 방언을 한 언어의 하위에 속하는 변이형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몇 개의 사례만 살펴보면 이러한 관계 인식이 그다지 명료하지 못함을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는 별개의 언어인가, 아니면 영어라는 한 언어의 방언들인가? 또한 호주에서 사용되는 영어는 이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아마도 순수하게 언어학적인 기준만을 가지고는 대상 언어가 개별 언어인지 아니면 한 언어의 하위 방언인지를 명료하게 구별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의 특히 유럽의 많은 언어학자들은 언어와 방언의 개념을 구별하지 않고, 이 둘을 ‘코드(code)’라는 하나의 중립적인 용어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어,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충청도 방언 등이 모두 동일한 자격으로 이 코드에 해당되는 것이다. ‘코드’는 방언이라는 용어에 숨어 있는 부정적 함축은 물론 언어와 방언 간의 모호한 계층 관계로 인한 문제점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에 따라 코드는 세계의 언어학계에서 언어와 방언이라는 용어를 대신해 사용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는 보통 다양한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개의 코드를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현재 처한 사회적 상황이나 담화 맥락 등을 고려하여 특정 코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을 ‘코드 선택(code choice)’이라 한다. 이 코드 선택은 그 선택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개인적 차원의 코드 선택과 국가적 차원의 코드 선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개별 화자가 대화 참여자나 화제 등과 같은 미시적인 대화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의 의지로 특정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예로는 재미 교포 학생이 학교에서 한국 친구와 대화할 때 한국어와 영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나 회사원이 회사에서 업무를 볼 때 표준어와 지역 방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후자는 국가가 자국의 언어 상황이나 정치·경제적 이익 관계 또는 국제 외교 관계 등의 거시적 차원을 고려하여 특정 코드를 선택하는 것이다. ㉠ 최근 우크라이나에 친유럽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고 크림 반도를 러시아군이 장악하게 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 개입에 대한 일종의 반감의 표시로 자국 내에서 러시아어가 가지고 있던 제2공식어로서의 지위를 박탈한 것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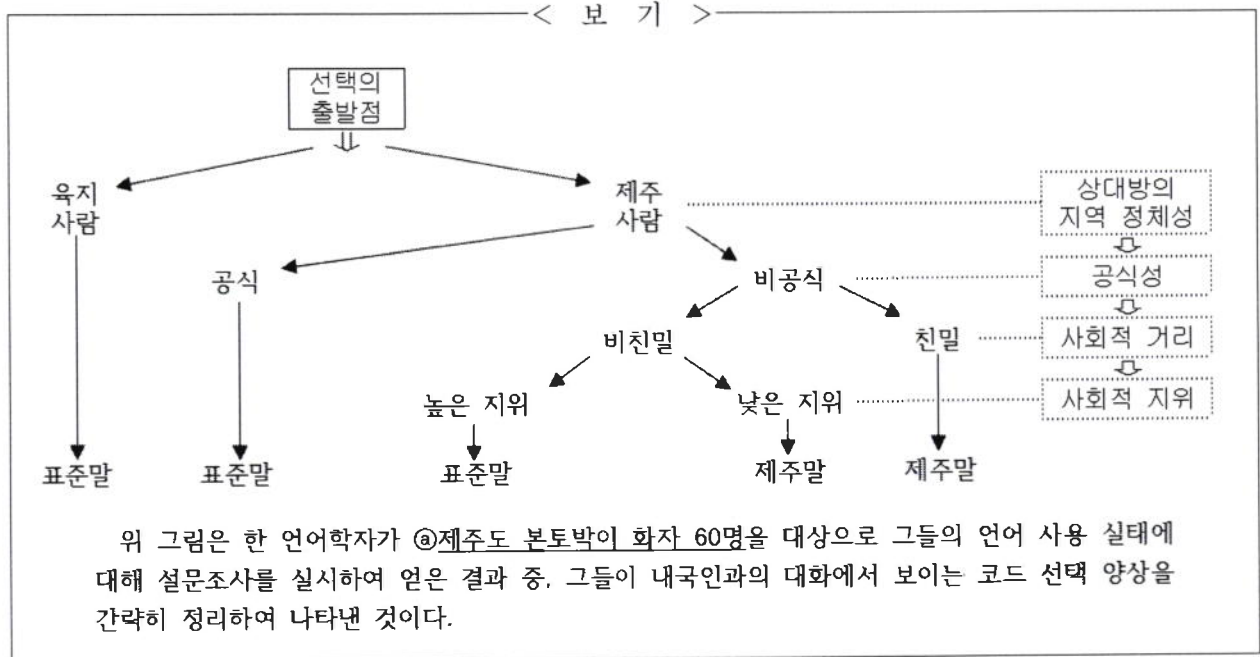
또한 우리는 이미 특정 코드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도중에 다른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화자가 이제껏 사용해 왔던 코드를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현상을 ‘코드 전환(code switching)’이라 한다. 이 코드 전환은 그것이 발생하게 되는 동기에 따라 상황적 코드 전환과 인식적 코드 전환의 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상황적 코드 전환은 대화 참여자, 화제, 맥락 등과 같은 담화 구성 성분의 변화, 즉 외적 동기에 의해서 화자가 다른 코드를 새로이 선택하게 될 때 발생한다. 딸과 표준말로 대화를 나누고 있던 한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자신의 고향 방언인 경상도 말을 사용해 통화하는 모습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인식적 코드 전환은 비록 담화 구성 성분은 변하지 않았지만, 화자가 전략적으로 특정 의사소통 효과를 만들어 내려는 의도, 즉 내적 동기에 의해서 다른 코드를 사용하게 될 때 발생한다. 표준말로 강의를 하던 선생님이 학생들 간의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 내려는 목적으로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언을 사용해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공식적으로 한국어만을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언어와 방언 사이의 위계 관계도 비교적 명료하기 때문에 코드 개념이 아직까지는 필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 수가 점점 늘어나고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여러 코드들이 상호 접촉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이제는 우리에게도 개인적 차원의 코드 선택이나 코드 전환 또는 국가적 차원의 코드 선택에 관한 문제들이 머지않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16. 밑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언어학적인 기준만을 가지고 언어와 방언을 명료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
- ② 세계의 많은 언어학자들은 언어나 방언 대신 코드라는 중립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③ 개별 화자들은 사회적 상황이나 담화 맥락을 고려하여 특정 코드를 선택해 사용한다.
- ④ 대부분의 화자들은 담화 구성 성분상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 상황적 코드 전환을 한다.
- ⑤ 우리나라도 앞으로 코드 선택이나 코드 전환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17. 밑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표준말과 제주말의 두 가지 코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있군.
- ② 상대가 제주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서로 표준말을 사용하는군.
- ③ 네 개의 담화 고려 요소 중 상대와의 사회적 지위 관계를 제일 먼저 고려하는군.
- ④ 제주 사람과의 대화 중에 공식성이 변화하게 되면 코드 전환을 할 가능성이 있겠군.
- ⑤ 상대와의 사회적 거리를 의도적으로 가깝게 조정하기 위해 코드 전환을 할 수도 있겠군.

18. 밑글을 읽은 독자가 ㉠의 상황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판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크라이나어와 러시아어도 별개의 언어인지 아니면 한 언어의 방언인지가 불명확했군.
- ② 우크라이나에는 우크라이나어보다 러시아어를 코드 선택해서 사용하는 이가 더 많았겠군.
- ③ 우크라이나는 언어가 아닌 정치, 군사, 외교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의 코드 선택을 하였군.
- ④ 러시아에는 러시아어에서 우크라이나어로 상황적 코드 전환을 시도하는 이가 거의 없었겠군.
- ⑤ 앞으로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어에서 러시아어로의 인식적 코드 전환이 자주 발생하겠군.

[19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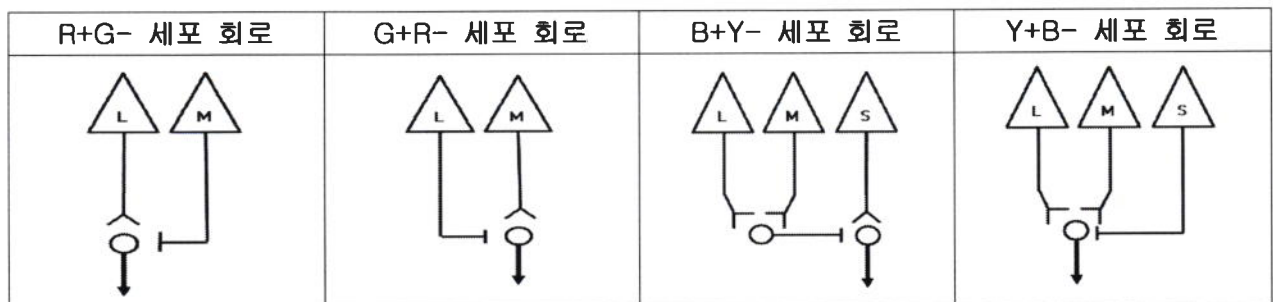
인간의 색 지각 과정은 망막의 추상체에서 시작된다. 추상체는 감광 색소에 따라 L, M, S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L 추상체는 빛의 스펙트럼 중 적색(R)에 가까운 장파장에서, M 추상체는 녹색(G)에 가까운 중파장에서, S 추상체는 청색(B)에 가까운 단파장에서 빛을 최대 흡수하고 주변 파장으로 갈수록 빛 흡수율이 떨어지는 특성을 보인다.

추상체가 빛을 흡수함으로써 전기적으로 흥분하여 신호를 방출할 때, 우리는 빛을 지각할 수 있다. 예컨대 황색은 L, M 추상체가 크게 흥분하고 S 추상체가 조금 흥분할 때 지각되는 색이다. 반대로 청색은 S 추상체가 크게 흥분하고, L, M 추상체가 조금 흥분할 때 지각되는 색이다. 세 개의 추상체가 모두 강하게 흥분할 때에는 백색이 지각되는데, 이는 청색 빛과 황색 빛을 겹쳤을 때 백색광이 지각되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L, M, S 추상체의 발견은 적, 녹, 청 삼원색 이론을 뒷받침해 주었다. 삼원색 이론은 정상 시각을 가진 사람의 경우, 파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달린 세 개의 광원만 있으면 눈에 보이는 모든 색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실험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이 이론은 인간에게 빛을 지각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으며, 색상이 빛의 파장에 내재한 고유한 속성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

색 지각의 다음 단계는 망막에 분포된 신경절 세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백만 개의 신경절 세포들은 7백만 개의 추상체에서 나온 전기 신호를 수렴하여 기초적인 연산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연산이 가능한 것은 추상체에서 서로 이르는 수직적 경로의 각 요소들마다 그것들을 상호 연결하는 수평적 연결이 더해져 일종의 회로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수평적 연결은 수직적 연결을 따라 흐르는 전기신호를 통과시키기도 하고, 합산하여 흥분시키기도 하며, 감산하여 억제시키기도 한다.

이 회로들의 기능은 대립과정 이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일찍이 실험심리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착시 현상을 관찰하였다. 적색 물체를 오랫동안 응시한 후 흰색 배경을 바라보면 녹색 잔상이 남는 착시 현상이 생기고, 그 반대로의 착시 현상도 생기며, 청색과 황색의 조합에서도 그러했다. 이러한 실험에서 주어진 색이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잔상의 색은 ‘억제에 대한 보상 반응’으로 설명되었고, 이는 적색과 녹색에 대한 지각과 청색과 황색에 대한 지각이 각각 단일한 체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가설로 이어졌다. 이러한 가설은 대립쌍의 한 쪽 빛에는 흥분하고 다른 쪽 빛에는 흥분을 억제하도록 작용하는 아래 네 가지 신경절 세포 회로의 발견으로 증명되었다. 이 회로들은 선택적인 신호처리를 통해 색의 번짐을 막음으로써 사물을 더욱 선명히 볼 수 있게 만든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되었다.



※ 삼각형은 L, M, S 추상체를, 원은 신경절 세포를, 화살표는 색 지각 정보가 신경절 세포의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人 기호는 흥분성 연결을, ⊥ 기호는 억제성 연결을 의미한다. 세포 회로의 이름은 적(R), 녹(G), 청(B), 황(Y) 네 가지 색에 대해 흥분성(+)으로 반응하는지, 억제성(-)으로 반응하는지를 나타낸다. 단순화를 위해 다른 요소들은 생략하였다.

이 회로 그림을 놓고 황색(Y) 빛이 눈에 들어올 때 ‘Y+B-’ 회로의 반응을 살펴 보자. 앞서 설명했듯, 황색은 L 추상체와 M 추상체를 크게 흥분시키고 S 추상체를 조금 흥분시킨다. 그 결과 L, M 추상체에서 모인 큰 전기 자극이 흥분성 연결(+)을 통해 더해지고, S 추상체에서 발생한 작은 전기 자극이 억제성 연결(-)을 통해 감해져, 최종적으로는 흥분성 반응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포 회로들은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빛에 대해 서로 다른 신호의 조합들을 만들어 뇌로 보내게 된다.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색상은 빛의 파장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속성이 아니다.
- ② L, M, S 추상체가 모두 강하게 흥분하면 백색이 지각된다.
- ③ 수평적 연결은 수직적 연결을 따라 진행되는 전기신호를 조절한다.
- ④ 정상 시각을 가진 사람은 두 가지 빛의 조합으로 모든 색상을 만들 수 있다.
- ⑤ M 추상체는 중파장에서 빛을 최대 흡수하고, 주변 파장으로 갈수록 빛을 덜 흡수한다.

20.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의 ㉠을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전자눈은 인간의 눈을 모방함으로써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눈을 말한다. 인간에게 이식이 가능한 진정한 의미의 전자눈이 되기 위해서는 ㉠ 생체 눈의 구조와 기능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발된 전자눈은 조악한 수준이다. 외양과 크기는 그럴싸하지만 망막의 형태를 모방하여 RGB센서*들이 집적된 감광장치를 곡면 모양으로 만들고,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 RGB 센서: 적색(R), 녹색(G), 청색(B) 빛을 받아 전기 신호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R, G, B 센서는 각각 생체 눈의 L, M, S 추상체에 대응한다.

- ① 개별 센서들의 신호를 연산하는 회로를 만들어 감광장치에 넣는다.
- ② R, G센서를 연결하여 B센서와 대립적으로 작용하는 회로를 만든다.
- ③ 개별 센서에서 뇌로 향하는 수직적 연결에 수평적 연결을 가미한다.
- ④ 대립과정 이론을 적용하여 사물을 더욱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한다.
- ⑤ 눈의 추상체 개수만큼 RGB센서를 확보한 후 이를 일대일로 뇌에 연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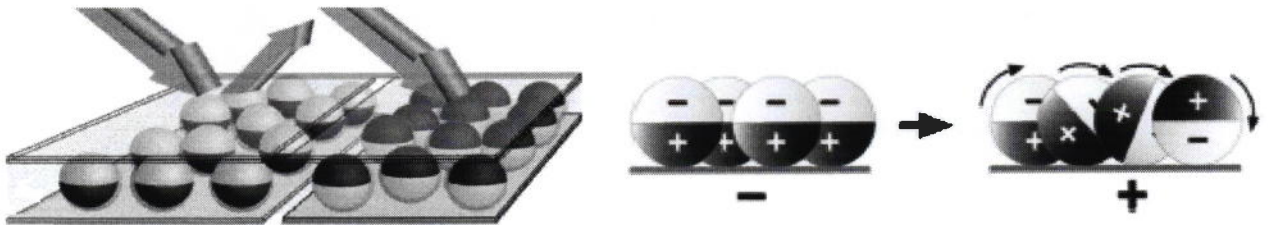
21. 적색 빛이 눈에 들어왔을 때, 세포 회로의 반응을 옳게 제시한 것은?

	R+G- 세포 회로	G+R- 세포 회로	B+Y- 세포 회로	Y+B- 세포 회로
①	흥분	억제	흥분	억제
②	흥분	억제	억제	흥분
③	흥분	흥분	억제	억제
④	억제	흥분	흥분	억제
⑤	억제	억제	흥분	흥분

[22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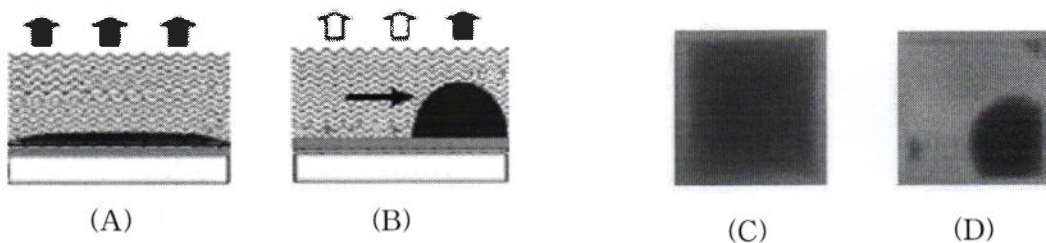
전자종이(Electronic Paper)는 종이처럼 얇은 재질과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정보의 저장, 변환 및 송수신 등이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LCD(Liquid Crystal Display)와 달리 전자종이는 기기 내부에 발광을 위한 백라이트가 필요 없는 반사형 디스플레이로서 외광이 강한 야외에서도 읽기에 편리하며 낮은 전력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갖는다. 아울러 유리 기판을 사용하는 LCD와 비교할 때 다양한 기판에 구현이 가능하여 경량화 측면에서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전자종이 관련 기술 중 하나로 전기영동 방식이 있다. 전기영동이란 유동성 매체 내에서 전하를 띤 물질들이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그림 1>과 같이 두 패널 사이에 서로 다른 전하를 띤 흰색과 검은색을 가진 반구를 합한 회전 공을 투명한 유체와 함께 분산시킨다. 전극에 전압을 가하면 전기장이 형성되고 이에 따라 공들이 회전하여, 흰색 부분이 위로 오면 빛을 반사하고 검은색 부분이 위로 오면 빛을 흡수하므로 원하는 영상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일단 한번 디스플레이 되고 나면 전압을 제거한 후에도 다른 전압을 가하여 다른 디스플레이 내용으로 바꿀 때까지는 현재 상태가 유지되므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전압을 가해도 공의 위상을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어 이상적인 움직임은 보이는 특정 전압을 찾기가 어렵다. 만일 구동 전압이 너무 클 경우 공이 회전보다 직진을 먼저 하게 되어, 부분 회전한 상태로 안정화되는 등 구동의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또한 공은 유체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느리다는 점과 컬러 표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색 필터가 필요하다는 점이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림 1>

또 다른 전자종이 기술로 전기습윤 방식을 들 수 있다. 전기습윤 방식은 전압을 가하면 물의 표면 장력이 달라지는 현상을 이용한 것이다. 물 분자는 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금속에는 더 끌리는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림 2>와 같이 전기가 흐를 수 있는 흰색 기판 위에 소수성 물질(절연체)을 코팅하고 (A)와 같이 물과 컬러 기름을 셀에 넣는다. 여기에 전압을 가하면, 물이 기판 쪽으로 끌리면서 퍼지게 되어 기름 층을 한쪽으로 밀치게 되므로 (B)와 같이 기름이 뭉치게 된다. (C)와 (D)는 각각 (A)와 (B)를 위에서 본 그림이다. 기름이 밀려진 부분은 빛을 반사하므로 흰색으로 표현되게 된다. 이때 가해지는 전압 차가 클수록 기름 층이 좁은 영역으로 모이게 되므로 전압 차를 조절해 진하기를 달리할 수 있다. 기름 층은 들어오는 빛의 크기를 조절하는 셔터 역할을 함과 동시에 색을 표시하는 색 필터의 역할을 한다. 또한 전기습윤 현상의 속도는 매우 빠르므로 전기습윤 디스플레이는 속도 면에서 매우 우수하다. 그러나 기름 층과 물 층의 유체 층을 안정적으로 주입 및 보존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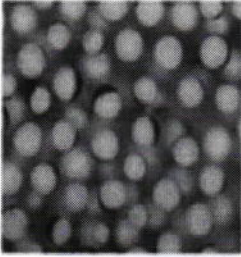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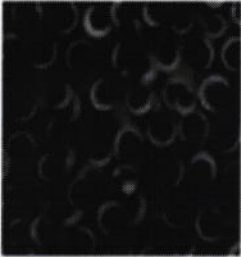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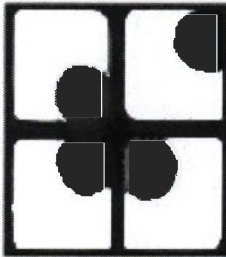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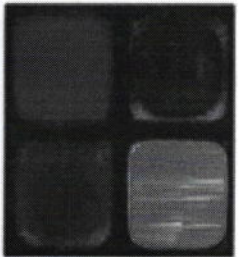
<그림 2>

22.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전자종이는 외광이 강한 곳에서도 읽을 수 있다.
- ② 전기영동 방식의 회전 공은 직진은 하지 않으며 회전만이 가능하다.
- ③ 전기습윤 방식에서 전압을 가하면 물이 기관 쪽으로 끌리면서 퍼진다.
- ④ 전기영동 방식에서 회전 공의 반응 속도는 유체의 저항에 영향을 받는다.
- ⑤ 전기습윤 방식은 기름 층이 퍼진 정도에 따라 진하기가 다르게 표현된다.

23. 윗글과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에서 적절한 설명만을 고른 것은?

— < 보 기 1 > —

(가) 전기영동 방식		(나) 전기습윤 방식	
㉠	㉡	㉢	㉣
			
회전 공의 흰색 반구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음.	회전 공의 검은색 반구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음.	컬러 기름이 한쪽에 뭉쳐 있음.	컬러 기름이 전체에 퍼져 있음.

— < 보 기 2 > —

㉠ (가)에 가해지는 전압을 높게 할수록 해상도가 높아진다.
 ㉡ (나)의 전압 차를 높이면 ㉢의 원 모양이 작아진다.
 ㉢ ㉠의 상태에서 전압을 해제하면 ㉡의 상태로 변한다.
 ㉣ ㉢의 상태에서 전압을 해제하면 ㉣의 상태로 변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4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술 작품에 대한 감상이나 판단은 주관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의 감상이나 판단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거나 나쁠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덜 발달되었을 수도, 더 세련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의문과 관련하여 우리는 흄(D. Hume)의 설명을 참조할 수 있다.

흄은 예술적인 판단이란, 색이나 맛과 같은 지각 가능한 성질에 대한 판단과 유사하다고 하면서, ㉠ <돈키호테>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마을 사람들이 포도주를 즐기고 있었는데 두 명의 '전문가'가 불평을 한다. 한 사람은 쇠 맛이 살짝 난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가죽 맛이 향을 망쳤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비웃었지만, 포도주 통 밑바닥에서 가죽 끈에 묶인 녹슨 열쇠가 발견되었다. 이 전문가들은 마을 사람들이 느낄 수 없었던 포도주 맛의 요소들을 식별해낸 셈이다.

이는 예술적인 식별과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다.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서로 다른 악기의 소리나 화음의 구성을 구별해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구도나 색 또는 명암의 대비, 중요한 암시를 알아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들은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세련된 감수성을 지닌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또는 좋은 비평을 읽음으로써 계발될 수 있다. 이처럼 예술적 판단이나 식별이 계발될 수 있다 해도 의문은 남는다. 포도주의 맛을 알아챈 전문가들에게는 가죽 끈에 묶인 녹슨 열쇠가 있었지만, 예술 비평가들의 판단이나 식별이 올바르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흄은 '진정한 판관(true judge)'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흄이 말한 진정한 판관은, 세련된 감수성과 섬세한 감각을 가졌으며 부단한 연습과 폭넓은 경험으로 식별력을 키운 사람이다. 그리고 편견이나 편애와 같은 작품 외적 요소들에서 벗어나 있으며, 당대의 일시적인 유행에도 거리를 두고 작품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었을 때 그는 비로소 예술 작품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흄은 '시간의 테스트'를 넘어서, 즉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가로질러 그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들에 주목하였다. 다양한 시대와 문화, 태도들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에 매혹되어 온 최고의 비평가들이 있어 왔다.

이처럼 예술 비평가들의 판단과 식별의 타당성은 이들이 갖춘 비평가로서의 자격, 이들이 알아보고 매혹된 위대한 작품들의 존재를 통해서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흄의 생각은 분명 그럴듯한 점이 있다. 우리가 미켈란젤로와 카라바조, 고야, 렘브란트의 작품을 그 작품들이 창조된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감상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작품이 지닌 힘과 위대함을 증명해준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의문이 여전히 남는다. ㉡ 자격을 갖춘 비평가들, 심지어는 최고의 비평가들에서조차 비평의 불일치가 생겨난다는 점이다. 흄은 이러한 불일치를 낳는 두 개의 근원을 지적했는데, 비평가 개인의 성격적인 기질의 차이가 그 하나이다. 또한 자격을 갖춘 비평가라 할지라도 자기 시대의 특정한 믿음이나 태도, 가정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불일치가 생겨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살아있던 당시에는 갈채를 받았던 예술가의 작품이 시간이 흐르면서 왜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곤 하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평범한 사람에게든 자격을 갖춘 비평가에게든 그런 작품들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가졌던 호소력은, 그 시대에만 특별했던 태도나 가정에 의존해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4.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흄의 견해를 순차적으로 소개한 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② 의문들을 제기하면서 흄의 견해에 근거하여 순차적으로 답변하고 있다.
- ③ 제기된 의문들과 관련하여 흄의 견해가 변화해 가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 ④ 흄의 견해에 근거하여 통상적인 의문들에 내포된 문제점을 고찰하고 있다.
- ⑤ 흄의 견해에 근거하여 제기된 의문들에 대한 기존의 답변들을 비판하고 있다.

25. 밑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A: 오늘날 세계적으로 위대한 예술가로 인정받는 마티스, 고갱과 같은 ㉠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의 작품이 처음 전시되었을 당시, 이들은 ㉡ 소수의 비평가들을 제외하고는 ㉢ 학계와 전문가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조롱당했다.

B: ㉣ 프랭크 브랭컨은 산업 윤리, 대영제국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았지만, 오늘날의 비평가들은 그의 작품이 지나치게 평면적이고 정적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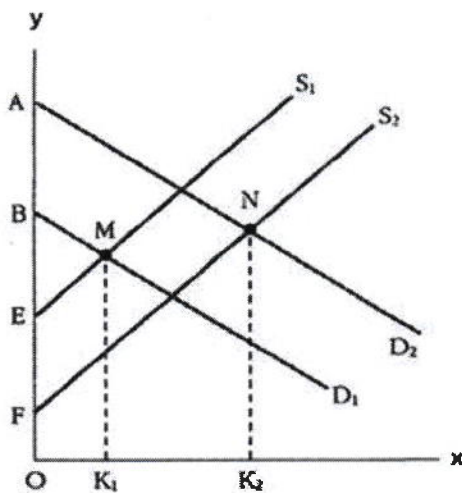
- ① ㉠에 대한 ㉡와 ㉢의 반응은 비평에 있어서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② ㉠과 ㉣를 통해 예술적 판단과 식별이 계발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 ③ ㉡는 ㉠의 가치를 알아본 '진정한 판관'이라 할 수 있다.
- ④ ㉣는 '시간의 테스트'를 넘어서지 못한 작가라 할 수 있다.
- ⑤ ㉤는 자기 시대의 특정 태도나 가정에 밀착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6. ㉠에서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은?

- ① 마을 사람들은 '전문가'들의 진단을 비웃었다.
- ② 마을 사람들은 포도주 맛의 요소들을 식별하지 못했다.
- ③ 포도주 통 밑바닥에서 가죽 끈에 묶인 녹슨 열쇠가 발견되었다.
- ④ 포도주의 이상한 맛에 대한 '전문가'들의 원인 진단이 서로 달랐다.
- ⑤ 마을 사람들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포도주 맛에 대해 불평을 했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자본 이론은 시카고학파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투자에 의해 인간에게 형성되고 체화된 지식 및 기능 등의 생산적인 힘을 인간자본이라 규정하고 인간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출, 그로 인해 포기된 소득 등을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파악한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게 결정되는 것은 인간자본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한다.



<그림>

인간자본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은 게리 베커로,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을 통하여 소득 격차를 설명하였다. 베커의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에 따르면, <그림>에서 x축은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량’을 나타내며 y축은 수요곡선일 때는 ‘한계수익’을, 공급곡선일 때는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한계수익은 개인의 능력을 반영한 값이며 한계비용은 투자 기회의 차이를 반영한 값이다. 수요곡선 D는 우하향하는데 이는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량에 대한 수익이 체감하기 때문이고, 공급곡선 S는 우상향하는데 투자량에 대한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D₂는 D₁보다 능력이 우수한 사람의 수요곡선이며 S₂는 S₁보다 부유한 사람의 공급곡선이다. 수요곡선에서 투자량이 0일 때 D₂의 값 A가 D₁의 값 B보다 큰 것은 능력이 우수한 사람에게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공급곡선에서 투자량이 0일 때의 S₂의 값 F가 S₁의 값 E보다 작은 것은 투자 기회의 차이를 반영한 비용은 부유한 사람이 더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 개인은 한계수익이 한계비용을 상회하는 한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 즉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까지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한다. 이 때, 인간자본 투자의 총수익은 수요곡선의 아래에 있는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표시되며 인간자본 투자의 총비용은 공급곡선 아랫부분의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인간자본 투자의 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인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D₁의 수요곡선과 S₁의 공급곡선을 가진다면 K₁까지 투자를 하므로 인간자본 투자의 총수익은 OBMK₁, 총비용은 OEMK₁이므로 순이익은 BEM이 된다.

베커는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에 따라 소득 격차를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과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에서는 투자 기회 측면에서의 공급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수요 조건, 즉 동일한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면의 차이 때문에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고 본다. 능력이 우수한 사람의 수요곡선은 능력이 적은 사람의 수요곡선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소득 격차는 불가피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은 없다.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은 모든 사람의 타고난 능력은 비슷하므로 같은 양의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비슷하다고 본다. 따라서 수요 조건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공급 조건의 차이, 즉 투자 기회에서의 차이에 의해 소득 격차가 야기된다고 본다. 부유한 사람은 유리하게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의 공급곡선이 가난한 사람의 공급곡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이것이 곧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노동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축을 도출하게 한다.

㉠ 베커로 대표되는 인간자본 이론은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이 사회·문화적 요인을 완벽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교육의 의미와 효과를 과대평가하였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학자들은 인간자본 이론을 지배적 이론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행정가들이 이 이론을 정책 입안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회'가 '나회'보다 소득이 높은 것은 '가회'의 능력이 '나회'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 ② '가회'는 '나회'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 ③ '가회'와 '나회'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대안으로는 교육 기회 보장 정책이 있을 수 있다.
- ④ '다회'와 '라회'는 타고난 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비슷하다.
- ⑤ '라회'는 '다회'에 비해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기회가 적으므로 저소득층 지원책을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다.

30. <보기>를 근거로 하여 ㉠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인도에서는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계급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하위 계급 노동자는 상위 계급의 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고 같은 인간자본을 획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얻는다. 하위 계급 노동자가 상위 계급의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인간자본이 충분한 노동자라고 해도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 ①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는 것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② 교육을 통해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인간의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 ③ 노동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 등에 대한 파악 없이 소득 격차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
- ④ 인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회 구조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 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수록 인간의 지식과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과대평가한 것이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목이 휘인 채 꽃 진 꽃대같이 조용히 춘향이는 잠이 들었다. 칼 위에는 눈물방울이 어룡져 꽃 이파리의 겹쳐진 그것으로 보였다. 그렇다, 그것은 달밤일수록 영롱한 것이 오히려 아픈, 꽃 이파리 꽃 이파리, 꽃 이파리들이 되어 떨고 있었다.

[A] 참말이다, 춘향이 일편단심(一片丹心)을 생각해 보아라. 원(願)이라면, 꿈속엔 홀룡한 꽃동산이 온전히 제 것이 되었을 그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꾸는 슬기 다음에는 마치 저 하늘의 달에나 비길 것인가. 한결같이 그 둘레를 거닐어 제자리 돌아오는 일이나 맘대로 하였을 그것이다. 아니라면, 그 많은 새벽마다를 사람치고 그렇게 같은 때를 잠 깨일 수는 도무지 없는 일이란 말이다.

- 박재삼, '화상보(華想譜) - '춘향이 마음' 초(抄)' -

31.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춘향이의 마음에서 삶의 교훈을 얻고 있다.
- ② 화자는 다양한 관점으로 춘향이의 마음을 추측하고 있다.
- ③ 화자는 춘향이의 모습에서 자신의 이상을 발견하고 있다.
- ④ 화자는 춘향이의 모습을 묘사하며 그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
- ⑤ 화자는 춘향이와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미래를 가늠하고 있다.

3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 '칼'은 '춘향'이 현재 처한 상황을 알려준다.
- ② 1연에서 '춘향'을 '꽃'에 비유함으로써 '눈물방울'은 '꽃 이파리'로 이어진다.
- ③ 1연의 '잠'은 2연의 '꿈속'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 ④ 2연의 '아니라면'은 1연의 '그렇다'에 대한 부정을 의미한다.
- ⑤ 2연의 '참말이다'는 '춘향'에 대한 서술의 진정성을 강화한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A]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대상의 부재는 주체의 감정과 태도, 내면 공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움'은 공간을 뛰어넘어 부재하는 대상에 닿고자 하는 확산의 감정이며, '기다림'은 그 대상이 오기를 기다리는 정지의 의지이다. 이러한 확산의 감정과 정지의 의지가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주체의 내면 공간은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원형(圓形)을 이루게 되며, 주체는 그 원형적 공간의 둘레를 돌 수밖에 없다.

- ① '춘향'의 '일편단심'은 확산의 감정과 정지의 의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정서라 할 수 있다.
- ② '슬기'는 '춘향'의 감정과 태도의 상호 작용이 소멸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하늘의 달'은 원형적 순환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이미지라 할 수 있다.
- ④ '둘레를 거닐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꽃동산'은 '춘향'의 내면에 존재하는 원형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 ⑤ '같은 때를 잠 깨'인다는 것은 행위의 순환과 반복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4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년 초까지 아버지는 시내 공립 중학교의 서무과장이었다. 그런데 작년의 학기말을 끝으로 물러나오고 말았다. 그 점은 순전히 엄마 탓이었다. 엄마는 아버지 학교의 공금을 빼내 썼던 것이다.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처음부터 엄마의 농간에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공금을 빼내어 사용(私用)으로 쓰다니. 평생원인 아버지는 슛제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었다. 비단 그 문제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아버지는 소심하고 웅졸했다. 말이 없고 겁이 많았다. 이를 아버지는 전쟁 탓으로 돌렸다. 언젠가 아버지는, 고향을 잃을 때부터 가슴에 큰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구멍은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다고 자탄했다. 그러나 고향을 잃고 살기는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유는 타당치가 못했다. ㉠ 아버지는 저 유명한 금강산을 끼고 있는 강원도 통천군 두백리가 고향이었다. 들은 바로는 그곳에 배 열 척과 큰 어장까지 가진 재력 있는 수산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해방 전에는 일본서 전문학교까지 다녔다. 해방 후로는 서울서 대학에 적을 두었다. 전쟁이 나던 해 유월, 약혼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올라간 것이 그만 발이 묶여 버렸다. 그해 칠월 아버지는 고향서 징집을 당해 인민군 소위로 참전했다. 지난 봄, 어느 날 아버지는 나도 끼인 자리에서 형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러나 난 공산주의가 원래 새, 생리에 맞지 않았어. 객관적으로 어느 주의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 그들은 매사에 너무 과격했거든. 마치 사나운 맹수가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을 집단으로 기, 길들이려 덤벼 들었어. 그들은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로 버려 두지 않았다니깐. 혁명, 투쟁, 반동, 처단 아, 단어만 드, 들어도 얼마나 끔찍하니. 사람이란 다 개성이 다름으로 해서 가, 각자의 꿈과 소망이 다르듯, 그런 자유와 창의력을 나는 존중하지. 또 너들이 알다시피 인간이 생산과 노동 이외 사색도 피, 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을 꺾었다.

“아버진 역시 사색파시다, 이 말이시겠쵸. 너무 사색이 깊으셔서 결단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꺾테기. 오히려 소나 말처럼 잘 길들여진, 심지어 엄마에게까지 끔찍 못 하는 노예…….”

이제 형이 내 말을 꺾었다. “아니야. 아버지는 정말 전쟁의 희생자야. 통일을 못 이루는 이 분단의 현실이 아버지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 갔어. 요컨대 아버지 삶의 근간을 끊어 버린 거야.”

“형, 잠깐만” 하고 내가 말했다. “교과서에서도 노래삼아 나오는 통일, 통일이란 말은 귀에 못이 박일 정도야. 그런데 뭐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다시피 지금 이 상태에서 저쪽 놈들과 무슨 대화가 통하겠어. 선생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 공존하는 한 무력의 길 이외는 통일이 힘들다고 말했어. 나도 동감이야.”

“힘들기는 히, 힘들지. 그러나 누가 지금 토, 통일의 길을 포기하고 있어? 남북 오천만이 넘는 인구 중 통일을 막고 있거나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아버지는 머리를 쭈뼛쭈뼛 흔들며 말했다.

[A] “포기가 아니라 체념이지요. 아버지도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통일을 위해 누가 전쟁을 원해요? 오천만이 넘는 인구 중 몇 할이 전쟁을 원하고 있겠어요? 모르긴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망쳐 버려요. 차라리 전쟁을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영구적인 분단이 더 좋아요. 우선 내가 살고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말했다.

“너희 세대는 왜 통일이 중요한지 몰라.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한 건 순전히 교육 탓이야.” 형이 강한 어투로 내 말을 반박했다.

“교육 탓만은 아니야. 이 물질 위주의 기계주의 사회가 저 저, 젊은 애들을 다른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잃게 하는 거야.”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었다고 아버지가 말을 둘러댔다.

“저는 통일이 절실하다고 외치는 아버지나 형이 되기보단 차라리 통일을 모르는 쪽이 좋아요. 그리고 두 분을 절대로 닮지 않겠어요.” 내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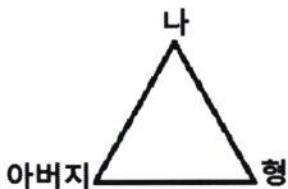
“누가 뭐래도 인간은 저, 정직이 중요해. 네 생각은 정직하지 못해.” 아버지의 말이었다.

아버지의 그 말에는 잘못이 없었다. 아버지는 늘 정직과 청렴결백을 생활신조로 삼았다. 그래서 학교에서 빼낸 공금을 보름 안으로 메워 놓겠다는 엄마의 허튼 약속을 절대 믿지 않았다. 그러자 엄마는 파산, 집단 자살, 그것도 아니라면 나 혼자 감옥에 가거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극단적인 위협조차 사양치 않았다. 그렇게 협박과 울음을 섞어 아버지를 설득시킨 것이다. 그 결과 겨우 오백만 원의 돈을 돌려 낼 수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인사불성으로 술에 취해 돌아왔다. “이건 나, 낱강도다. 이젠 나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다. 끝장이다.” 아버지는 우리의 방으로 건너와 형과 나를 잡고 투정했다. 엄마는 그 돈으로 깨어지려는 계를 겨우 수습한 모양이었다. 아버지와 약속한 보름이 지났다. 그러나 엄마는 그 돈을 메워 내지 못했다. 아버지는 안절부절못했다. 엄마도 안달이었다. 이제 아버지가 매일 자살 타령을 읊조렸다. 부정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택하는 게 낫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 그로써 아버지의 스물네 해 공직 생활은 불명예로 끝났다. 퇴직금을 받았으나 그 돈으로 구멍을 막기에는 모자랐다. 나머지 돈은 엄마가 어떻게 융통한 모양이었다. 학교에서 송별회를 마치고 오던 날, 아버지는 우리들 앞에서 오랜만에 울었다. 그러나 끝내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았다. “암탉이 울면 지, 집안이 망한다더니 끝내 그 꼴을 보, 보고 말았구나.” 한숨 끝에 이 말을 중얼거렸을 뿐이었다. 좋게 말해 아버지는 제상에 오른 선한 양이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아버지는 집 안에 들어앉고 말았다. 매달 일만천 원씩 나오는 삼급 상이용사 연금이 이제 아버지의 유일한 벌이었다. 그러나 역시 엄마는 수완가였다. 엄마는 우리 식구를 거리에 나앉게 하지 않았다. 물론 끼니를 거르게 만들지도 않았다. 엄마의 능력으로 우리 식구는 그런대로 옛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오직 경제권이 전폭 엄마에게로 옮겨 간 점이 달랐다. ㉠ 아니, 전에도 경제권은 엄마가 쥐고 있었다.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

34. <보기>의 ㉠를 설명하기 위한 단서를 [A]에서 찾았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윗글에서 [A]는 현실 문제와 관련하여 인물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나'는 대화에 참여하는 인물 중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서술자이기도 하다. 이는 현실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 하나의 시각을 다른 시각으로 조명하도록 함으로써 독자의 비판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작가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영구적인 분단'이 더 좋다는 '나'의 생각은, '형'에 의해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진단된다.
- ②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일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아버지'의 생각은, '나'에 의해 '냉정'하지 못한 생각으로 치부된다.
- ③ '분단'이 아버지의 '삶의 근간'을 빼앗아갔다는 '형'의 생각은, '나'에 의해 '무력의 길'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 ④ '젊은 애들'이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잃었다는 '아버지'의 생각은, '나'에 의해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었다고 '둘러대'는 말로 폄하된다.
- ⑤ '우선 내가 살고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나'의 생각은, '아버지'에 의해 '물질 위주의 기계주의'로 인한 도덕성의 상실로 비판된다.

35. 밑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아버지’는 청렴결백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다.
- ② ‘아버지’는 인간의 개성을 억압하는 이념에 대해 비판적이다.
- ③ ‘엄마’는 ‘아버지’의 퇴직금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다.
- ④ ‘아버지’는 학교 공금을 빼내 쓴 일로 불명예스럽게 퇴직했다.
- ⑤ ‘아버지’와 ‘엄마’는 고향을 잃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3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인물의 심리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처지와 가치관을 분석하고 있다.
- ④ 인물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7. <보기>는 [B]를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공동 과제를 수행한 결과이다.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S# 91 안방

아버지 : 누가 뭐래도 인간은 저, 정직이 중요해. 당신 생각은 정, 정직하지 못해.

엄마 : (애원조로) 아 내가 뭐했는데. 보름 안으로 꼭 채워준다고 했잖아. 이번만 좀 어떻게 해줘, 응?

아버지 : 그게 중, 중요한 게 아니야. 애, 애초에 공금을 빼낸다는 생각이 자, 잘못이라니까.

엄마 : (목소리를 높이며 빠르게) 그 돈이 없으면 우린 파산이야. 내가 벌어오는 돈이 없으면 우리 네 식구 모두 죽어야 한다고. 아님 내가 감옥살이 하는 동안 혼자서 고고하게 잘 먹고 잘 살든가!

아버지 :(묵묵부답, 집을 나선다.)

S# 92 며칠 후, 안방

아버지, 두툼한 돈봉투를 엄마에게 건넨다. 화색이 도는 엄마의 얼굴과 침울한 아버지의 표정 교차. 화면을 분할하여 각각의 얼굴 C. U.*

S# 93 어느 날 밤, 형제의 방

아버지의 취한 모습. 인사불성이 되어 ‘끝장이다’를 반복하며 형제에게 술주정하는 아버지. 말리러 온 엄마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주정을 한다.

S# 94 보름 후, 안방

아버지 : (안절부절못하며) 도, 돈을 채워주겠다는 날인데.....어떻게 된 건가?

엄마 : (되려 화를 내며) 내가 안 주고 싶어 안 주는 거냐고. 갖다 줄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라니깐!

아버지 : (잠시 사이를 두고, 그럴 줄 알았다는 말투로) 그냥 내, 내가 죽어야지. 공금에 손을 대서 나, 낮을 불히게 되느니 주, 죽는 게 낫겠어.

*C.U. : 시나리오 용어의 하나로, 어떤 한 부분을 특별히 크게 확대하여 찍는 것을 말함. ‘Close Up’의 약어.

- ① S# 91: '정직'을 생활신조로 삼는 '아버지'의 성격을 고려해서, 원작에서 '아버지'가 다른 인물에게 했던 말을 '엄마'에게도 하는 걸로 했군.
- ② S# 91: '엄마'가 '협박과 울음'으로 '아버지'를 설득하는 부분을, 원작과 달리 대화 장면으로 구성해서 '아버지'와 '엄마'의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군.
- ③ S# 92: '오백만 원의 돈을 돌려 낼 수 있었다.'라는 원작의 구절에서 '아버지'와 '엄마'의 심정을 추리하여, 두 인물의 심정 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했군.
- ④ S# 93: '아버지'가 '형과 나'를 붙잡고 투정을 하는 원작과는 달리, '엄마'까지 등장시켜 '아버지'가 가족 모두에게 가졌던 불만을 살려 내고 있군.
- ⑤ S# 94: '약속한 보름'이 지난 후 '아버지'가 '매일' 자살 타령을 읊조렸다는 부분을, 원작과 달리 하나의 시공간을 설정하여 '아버지'와 '엄마'의 갈등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군.

38. 밑글의 단어를 활용하여, '아버지'를 주어로 ㉠을 달리 표현해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니,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만큼은 '공생원'으로 살지 않았다.
- ② 아니, 경제권 행사에서 아버지는 늘 '깍뎂기'에 불과했을 뿐이다.
- ③ 아니,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날강도'가 되는 일만은 극히 꺼렸다.
- ④ 아니, 경제권 행사에서 아버지는 항상 '희생자'의 역할을 맡아 왔다.
- ⑤ 아니, 아버지는 언제나 경제적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이두병이 큰 아들 관을 동궁으로 봉하고 국호를 고쳐 평순 황제라 하고 개원(改元)하여 건무(建武) 원년(元年)하다.*

이때 송 태자를 외객관에 두었더니, 조신이 다시 간하여 태산계량도에 정배 안치하여 소식을 끊게 하니라. 이날 왕부인 모자가 태자 정배되었다는 말을 듣고 망극하여,

“우리 도망하여 태자를 따라 사생을 한가지로 하고자 싶으나 종적이 드러나면 지레 죽을 것이니 어찌하리요?” 하며 모자 주야 통곡하더니, 일일은 웅이 황혼에 명월을 대하여 복수할 묘책을 생각하더니 마음이 아득하고 분기탱 천한지라,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하여 부인 모르게 중문에 내달아 장안 큰 길 위를 두루 걸어 한 곳에 다다르니 관동(冠童)이 모여 시절 노래를 부르거늘 들으니 그 노래에 하였으되,

국과군망(國破君亡) 하니 무부지자(無父之子) 나시도다.

문제(文帝)가 순제(順帝)되고 태평이 난세로다.

천지가 불변하니 산천을 고칠소냐.

삼강(三綱)이 물러남이 없으니 오륜(五倫)을 고칠소냐.

맑고 밝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충신원루(忠臣怨淚) 아니시면 소인의 꽃샘이로다.

슬프다 창생들아, 오호(五湖)에 편주 타고

사해에 노니다가 시절을 기다려라.

웅이 듣기를 다함에 분을 이기지 못하고 두루 걸어 경화문에 다다라 대궐을 바라보니, 인적은 고요하고 월색은 가득한데 수쌍의 오리와 기러기는 못에 떠 있고, 십 리나 되는 화원에 전(前) 왕조의 경치가 아니더라. 전 왕조의 일을 생각하니 일편단심에 굽이굽이 쌓인 근심 갑자기 생기는지라. 담장을 넘어 들어가 이두병을 대하여 사생을 결단하고자 싶되 강약이 같지 않고 문 안에 군사가 많고 문을 굳게 닫았는지라 할 수 없어 그저 돌아서며 분을 참지 못하여 필낭의 붓을 내어 경화문에 대서특필(大書特筆)하여 이두병을 욕하는 글 수 삼 구를 지어 쓰고 자취를 감추어 돌아오니라.

이날 왕부인이 등불 아래에서 한 ㉠ 꿈을 얻으니 승상이 들어와 부인의 몸을 만지며 말하기를,

“부인이 무슨 잠을 깊이 자나이까? 날이 새면 큰 환을 당할 것이니 웅을 데리고 급히 도망하소서.”

하거늘 부인이 망극하여 말하기를,

“이 깊은 밤에 어디로 가리이까?”

승상이 말하기를,

“수십 리를 가면 자연 구할 사람이 있을 것이니 급히 떠나소서.”

하거늘 놀라 깨달으니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 웅을 찾으니 또한 없는지라. 대경실색하여 문 밖에 내달아 두루 살펴 보니 인적이 없는지라. 정신이 창황하여 이윽히 중문을 바라더니, 웅이 급히 들어오거늘 부인이 크게 놀라 묻기를,

“이 깊은 밤에 어디를 갔더냐?”

웅이 말하기를,

“마음이 산란하와 월색을 따라 거리에 배회하여 돌아오나이다.”

“아까 꿈을 얻으니 네 부친이 와 이리이리하니, 가다가 죽을지라도 어찌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리오. 바빠 행장을 차리라.”

<중략 부분의 줄거리> 조용 모자는 급히 길을 떠나고, 이두병은 현상금까지 걸며 이들을 추격한다. 조용 모자는 한 마을에 정착하지만 그곳에서 재가를 권유받은 왕부인이 수치심을 느껴 마을을 떠난다. 왕부인은 삭발을 하고

머리카락을 팔아 돈 다섯 냥을 마련하는데 이것조차 도적떼에게 빼앗겨 조용 모자는 극심한 기아에 시달린다. 이때 한 중이 먹을 것을 주고 왕부인은 이에 감사를 표한다.

그 중이 웃고 말하기를,

“대국 조충공의 부인이 아니시니까? 일신을 감추어 변형을 굳게 하온들 소송이야 모르리까?”

부인과 웅이 대경실색하여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의 종적이 드러나 예 와 잡히어 원수의 칼에 죽으리로다.”

하여 모자 통곡하며 그 중에게 애걸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잡아 황성에 바치면 천금의 상에 만호후를 봉하려니와 부귀는 세상의 일시 변화라. 광풍에 한 조각 구름 같고 물 위의 거품 같은지라. 일시 영귀를 생각하지 말고 인명을 살려 주소서. 중은 또한 부처 제자라. 어진 도로써 인명을 구제하온즉 후세에 반드시 부처 되올 것이니 엇드려 바라건대 존사는 잔명을 구완주소서.”

하며 붙들고 애걸하니 그 중이 웃으며 말하기를,

“부인은 조금도 놀라지 마옵소서. 소송은 부인 잡아갈 중이 아니오니 진정하와 소송의 말씀 자세히 들으소서.”

부인이 정신을 차려 듣기를 다하매 중이 말하기를,

[A] “부인은 살펴보소서. 어찌 소송을 모르나이까? 소송은 부인택 승상의 화상 그리던 중 월경이로소이다. 그때 승상의 화상을 그리웁고 부인에게 보여드리니 천금을 주시기에 가져갔사오니 부인은 어찌 소송을 모르시나이까?”

그제야 부인이 자세히 보니 그때 화상 그리던 중과 거의 흡사하나 세상사를 어찌 알리요?

“천금을 줄 때는 확실했겠으나 분명히 명심한 일이 아니라 이는 기억하지 못하니 존사는 꺼리지 말고 바른 대로 가르치소서.”

하고 긴히 애걸하니 승이 민망하여 위로하기를,

“부인이 유한한 간장을 객중에서 여러 해를 근심하였기로 정신이 이상하여 잊었도소이다. 소송이 또한 명백히 밝힐 증거가 있사오니 가져온 화상을 내소서.”

부인이 더욱 대경실색하여 말하기를,

“빌어먹는 사람이 무슨 화상이 있사오리요? 존사는 무지한 인생을 대하여 숨기지 말고 바른 대로 하소서. 이제는 도마 위의 고기로 죽고 살기는 존사의 처분이오니 임의로 하소서.”

하며 무수히 통곡하니, 중이 절박하여,

“어찌 이대도록 의혹하시나이까? 그때 화상을 그리웁고 부인을 뵈오니 잉태하온 지 칠 삭이웁거늘 짐작하는 도리 있삽기로 부인의 상을 보옵고 앞날의 어려움을 기록하여 화상 등에 넣었사오니 화상을 내어 그 글을 보시면 의혹을 파하고 소송의 허실을 쾌히 아오리다.”

하니 부인이 내심에 극히 괴히 여겨 그제야 화상을 내어 등에 종이를 떼고 자세히 보니 과연 글을 지어 등에 넣었는지라. 그 ㉠ 글에 하였으되,

꽃같이 아름다운 왕부인이 삭발은 무슨 일이고? 파강 천경파에 거북을 만났도다. 성수는 뉘실고? 굴삼려* 충혼(忠魂)이라. 복중(腹中)에 끼친 혈육 활달한 기남자라. 공자로 상좌 삼고 변형을 굳게 한들 화상이 불변하거늘 필법조차 고칠소냐?

우서(右書)는 위국 산양 땅 강선암 월경이 근서(謹書)하노라. 경오 추칠월 십오 일 상봉.

이라 하였더라.

- 작자 미상, '조웅전' -

* 원년(元年)하다: 나라를 세운 해로 삼다.

* 굴삼려: 초나라의 충신.

39.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이두병은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했다.
- ② 응은 대궐문에 이두병을 욕하는 글을 썼다.
- ③ 왕부인은 꿈을 꾸 후 응과 함께 길을 떠났다.
- ④ 승상은 송 태자에게 조ungs을 돌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 ⑤ 월경은 왕부인이 신분을 감추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40. [A]에서 알 수 있는 인물들의 발화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월경과 왕부인 모두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군.
- ② 월경은 왕부인의 사연을 듣고자 하고 왕부인은 이를 피하려고 하는군.
- ③ 월경과 왕부인 모두 서로를 향해 자신의 숨겨진 마음을 조금씩 열려고 하는군.
- ④ 월경은 왕부인을 안심시키려고 하고 왕부인은 월경의 진의를 확인하려고 하는군.
- ⑤ 월경은 왕부인의 잘못을 추궁하려고 하고 왕부인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군.

41.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조ungs 모자 사이에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 ② ㉠은 조ungs 모자에게 닥친 위기를 알리는 기능을 한다.
- ③ ㉡은 왕부인과 월경의 과거 인연을 확인시켜 준다.
- ④ ㉡은 응의 비범성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⑤ ㉡은 월경이 초월적 능력을 지닌 존재임을 보여 준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웅전’은 유교적 질서와 이념이 훼손된 현실을 배경으로, 영웅적 인물인 ‘조웅’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즉, 질서와 이념의 훼손을 가져온 집단을 제거하고 이전의 질서와 이념을 회복하는 임무를 완수하는 서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조웅’은 비범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만 어린 시절부터 시련-극복의 과정을 반복적으로 거치는데, 그때마다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질서 파괴 세력에 대적할 주체로서의 역량을 키우게 된다.

- ① 관동들이 부르는 ‘시절 노래’에는, 유교적 질서와 이념이 훼손된 현실이 반영되어 있군.
- ② ‘전 왕조’에 대한 ‘일편단심’은, 유교적 질서와 이념의 회복을 위한 중심적 역할의 담당자로서 ‘웅’이 갖춘 자격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이두병을 대하여 사생을 결단하고자 싶되 강약이 같지 않’다는 것은, ‘웅’이 질서 파괴 세력에 대적할만한 역량을 아직 갖추지 못했음을 의미하는군.
- ④ ‘왕부인’과 ‘웅’이 ‘일신을 감추’고 ‘원수의 칼’에 죽을 것을 염려하는 것은, ‘웅’이 겪는 시련의 일환이라 할 수 있겠군.
- ⑤ ‘월경’이 위기에 처한 ‘왕부인’과 ‘웅’을 돕는 것은, ‘부처 제자’들이 이념의 훼손을 가져온 집단 제거의 임무를 완수하는 다른 주체임을 알려주는군.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곡(一曲)은 어드매오 관암(冠巖)에 해 비친다
평무(平蕪)에 내 걷히니 원근(遠近)이 그림이로다
송간(松間)에 녹준(綠樽)을 놓고 벗 오는 양 보노라 <2수>

이곡(二曲)은 어드매오 화암(花巖)에 춘만(春滿)커다
벽파(碧波)에 꽃을 띄워 야외(野外)에 보내노라
㉠사람이 승지(勝地)를 모르니 알게 한들 어찌리 <3수>

삼곡(三曲)은 어드매오 취병(翠屏)에 잎 퍼졌다
녹수(綠樹)에 산조(山鳥)는 하상기음(下上其音)*하는 적에
반송(盤松)이 바람을 받으니 여름 경(景)이 없어라 <4수>

사곡(四曲)은 어드매오 송애(松崖)에 해 넘거다
담심암영(潭心巖影)*은 은갓 빛이 잠겼어라
임천(林泉)이 깊도록 좋으니 흥(興)을 겨워 하노라 <5수>

오곡(五曲)은 어드매오 은병(隱屏)*이 보기 조희
수변정사(水邊精舍)는 소쇄(瀟灑)함*도 가이 없다
이 중(中)에 강학(講學)도 하려니와 영월음풍(咏月吟風) 하리라 <6수>

- 이이, '고산구곡가(高山九曲歌)' -

- *하상기음 :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지저귀.
- *담심암영 : 맑은 못 속에 비치는 바위 그림자.
- *은병 : 고산구곡의 하나로 이이가 은거한 해주 고산의 은병정사를 의미함.
- *소쇄함 : 맑고 깨끗함.

43. 다음은 윗글의 구성과 관련하여 탐구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통사 구조

○ '-곡은 어드매오'가 매 수마다 반복되고 있다. ㉠

B. 공간적 질서

○ '일곡'에서 '오곡'으로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 <2수>의 '관암'에서 <6수>의 '은병'까지 이동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

C. 시간적 질서

○ <2수>의 '해 비친다'와 <5수>의 '해 넘거다'가 하루 중의 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

○ <3수>의 '춘만커다'와 <4수>의 '여름 경'이 계절로 대응하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보기>를 참고해 44번과 45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 < 보 기 > —

율곡의 자연관에 따르면 자연을 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산수의 흥취를 깊이 알아 자연 속에 담긴 도체(道體), 즉 진리를 파악해야 진정한 즐거움인 진락(眞樂)에 이를 수 있다. 즉 율곡은 자연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뿐 아니라 학문을 통해 도학적 이상을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44. <보기>를 참고로 밑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3수'의 '승지'는 경치가 아름다운 곳인 동시에 도체가 내재되어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 ② '4수'의 '녹수'와 '산조', '반송'과 '바람'의 조화는 '진락'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포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5수'의 '온갖 빛이 잠겨' 있는 '담심암영'에서 느끼는 '흥'은 '진락'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군.
- ④ '6수'의 '소쇄함'이 '가이 없다'는 것은 학문을 통해 도체를 파악하는 길이 쉽지 않다는 의미로 볼 수 있군.
- ⑤ '6수'의 '강학도 하려니와 영월음풍 하리라'는 자연을 즐기는 것과 도학적 이상의 추구가 다르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군.

4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산수의 흥취를 아는 사람이다.
- ② 진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 ③ 도학적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 ④ 자연을 눈으로만 보지 않는 사람이다.
- ⑤ 도체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관

제 1 교 시



2014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B형

성명

수험번호

-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B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15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논증(論證)’이란 어떤 주장의 옳고 그름을 근거를 들어 밝히는 것으로, 이때 주장은 결론이 되고 그 주장의 근거는 전제가 된다. 논증 방법 중 연역 논증은 전제가 참이라면 결론의 참이 보장되는 방법이다. 그리스 시대에도 활용되었던 전통적 논증 방법인 연역 논증은 현대 논리학의 기초가 되었다.

흔히 현대 논리학을 연역 논증에 기반을 둔 기호 논리학이라고도 하는데, 그 뿌리는 17세기 독일의 철학자이며 수학자였던 라이프니츠로부터 찾을 수 있다. 라이프니츠는 논리의 유형을 수학적 기호를 활용하여 표현하려 하였다. 그는 명제가 참이 아니면 거짓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참’을 ‘1’로 하고, ‘거짓’을 ‘0’으로 기호화하였다. 그 다음으로 명제들을 결합하는 말인 ‘...거나’에 해당하는 표현은 수학에서 더하기를 뜻하던 기호 ‘+’로 대치하고, ‘그리고’에 해당하는 것은 수학에서 곱하기를 뜻하던 기호인 ‘•’으로 대치했다. 이렇게 결합된 명제의 진릿값이 참이면 ‘=1’로, 거짓이면 ‘=0’으로 표현했다.

[A]

I. $1+1=1$	V. $1 \bullet 1=1$
II. $1+0=1$	VI. $1 \bullet 0=0$
III. $0+1=1$	VII. $0 \bullet 1=0$
IV. $0+0=0$	VIII. $0 \bullet 0=0$

그럴 경우 8가지 계산식이 나온다. ㉡ 이를 보면 ‘라이프니츠는 철학자이거나 수학자이다.’라는 명제에서 ‘라이프니츠는 철학자이다.’가 참이고 ‘라이프니츠는 수학자이다.’가 참이면 전체 명제의 진릿값은 참이 되는데, 그것은 왼쪽 표의 ‘I’과 같이 표현된다. ‘라이프니츠는 화가이고 수학자이다.’처럼 ‘그리고’로 결합되는 명제에서 ‘라이프니츠는 화가이다.’가 거짓이고 ‘라이프니츠는 수학자이다.’가 참이면 전체 명제의 진릿값은 거짓이 되는데, 그것은 ‘VII’과 같이 표현된다.

그는 왜 일상 언어로 하는 추리를 수학적 기호를 활용하여 표현했을까? 우리에게 친숙한 일상 언어로 추리의 내용을 표현하면 이해하기는 쉽다. ㉢ 하지만 명제의 진릿값을 판단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잘못된 추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위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일상 언어로 두 명제의 진릿값을 검토하는 것도 꽤 복잡한데, 여러 명제들이 결합된 것의 진릿값을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라이프니츠는 수학적 기호의 장점을 활용하였다. 즉 수학적 표현이 지니는 간편성, 정확성, 신속성 등을 연역 추리에 적용한 것이다.

라이프니츠는 또한 보편적 과학 언어를 구상하기도 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과학자들은 언어가 서로 달라 연구 성과를 교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과학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었다. 그는 과학 이론을 표현할 때 세계 어디에나 통용될 수 있는 보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왜냐하면 과학은 자신의 가설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학문인데, 논리는 어떤 언어를 사용해도 그 내용은 모두 같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모든 과학자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언어의 창제를 구상하였다. 보편적 과학 언어로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서 인류를 하나의 사고 공동체로 만들고 혁신적인 과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 요컨대 수학적 표현법과 보편적 과학 언어는 라이프니츠의 혁명적 구상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의 구상은 200년 동안이나 사장되었다가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주목받기 시작하여, 20세기 초반에 현대 기호 논리학의 체계를 세우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이때까지도 라이프니츠의 구상은 학자들 사이에서만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컴퓨터가 등장함에 따라 그의 구상이 일반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컴퓨터 정보 처리 과정의 논리 회로는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표현 방법을 응용한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은 기계를 사용하는데, ㉥ 기계어는 라이프니츠의 보편적 과학 언어의 구상에 기반을 둔 것이다.

15. 밑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라이프니츠는 언어의 차이가 과학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여겼다.
- ②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표현법이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에 응용되었다.
- ③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표현법은 현대 기호 논리학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 ④ 라이프니츠는 전제가 많을수록 결론이 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했다.
- ⑤ 라이프니츠는 일상 언어가 명제의 진릿값을 판단하는 데에는 불편하다고 보았다.

16. [A]를 참고할 때, <보기>의 두 명제를 ‘라이프니츠의 수학적 표현법’으로 바르게 표현한 것은? (3점)

— < 보 기 > —

가. 장미는 직장인이고 주부이다.
 나. 정호는 축구 선수이거나 야구 선수이다.

* ‘가’의 장미는 실제로 직장인이지만 주부는 아니다.
 * ‘나’의 정호는 실제로 축구 선수이지만 야구 선수는 아니다.

	가	나
①	$1 \bullet 1=1$	$0+0=0$
②	$1 \bullet 0=0$	$1+0=0$
③	$1 \bullet 0=0$	$1+0=1$
④	$1+0=0$	$1 \bullet 0=0$
⑤	$1+1=1$	$1 \bullet 0=1$

17. ㉠의 주장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컴퓨터의 기계어는 인간의 언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 ② 컴퓨터의 기계어로 인해 최첨단 과학 기술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 ③ 컴퓨터로 인해 인류의 문명이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 ④ 컴퓨터의 기계어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⑤ 컴퓨터의 등장으로 일반인들에게 라이프니츠의 구상이 널리 알려졌다.

18. 글의 문맥을 고려하며 독서할 때, ㉠~㉣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중요한 개념을 글의 서두에 밝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다음에 나오는 개념을 명확히 확인하면서 읽어야겠어.
- ② 글쓴이는 추상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그 내용을 쉽게 풀어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뒤에 나오는 사례를 통해 앞에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파악해야겠어.
- ③ 글쓴이는 특정 내용을 부각하기 위해 그와 반대되는 내용을 먼저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뒤에 나오는 특정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이해해야겠어.
- ④ 글쓴이는 논리 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앞에서 제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아야겠어.
- ⑤ 글쓴이는 핵심 내용을 요약·강조하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의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글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아야겠어.

[19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GDP(국내총생산)’는 국민경제 전체의 생산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데, 한 나라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모두 합산한 것이다. GDP를 계산할 때는 총 생산물의 가치에서 중간생산물의 가치를 빼는데, 그 결과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총합과 동일하다. 다만 GDP를 산출할 때는 그해에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 중 화폐로 매매된 것만 계산에 포함하고, 화폐로 매매되지 않은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상품 판매 가격은 물가 변동에 따라 오르내리기 때문에 GDP를 집계 당시의 상품 판매 가격으로 산출하면 그 결과는 물가 변동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 올해에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재화를 생산하고 판매했다라도 올해 물가 변동에 따라 상품 판매 가격이 크게 올랐다면 올해 GDP는 가격 상승분만큼 부풀려져 작년 GDP보다 커진다. 이런 까닭으로 올해 GDP가 작년 GDP보다 커졌다 하더라도 생산 수준이 작년보다 실질적으로 올랐다고 볼 수는 없다. 심지어 GDP가 작년보다 커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생산 수준이 ㉠ 떨어졌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인 생산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GDP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먼저 어느 해를 기준 시점으로 정해 놓고, 산출하고자 하는 해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물가 수준으로 환산해 GDP를 산출하면 된다. 기준 시점의 물가 수준으로 환산해 산출한 GDP를 ‘실질 GDP’라고 하고, 기준 시점의 물가 수준으로 환산하지 않은 GDP를 실질 GDP와 구분하기 위해 ‘명목 GDP’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기준 시점을 1995년으로 하여 2000년의 실질 GDP를 생각해 보자. 1995년에는 물가 수준이 100이었고 명목 GDP는 3천 원이며, 2000년에는 물가 수준은 200이고 명목 GDP는 6천 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명목 GDP는 3천 원에서 6천 원으로 늘었지만, 물가 수준 역시 두 배로 올랐으므로 결국 실질 GDP는 동일하다.

경제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려면 실질 GDP의 추이를 보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실질 GDP는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 공식 경제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금년도의 경제성장률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text{경제성장률} = \frac{\text{금년도 실질 GDP} - \text{전년도 실질 GDP}}{\text{전년도 실질 GDP}} \times 100(\%)$$

경제지표 중 GDP만큼 중요한 ‘GNI(국민총소득)’라는 것도 있다. GNI는 GDP에 외국과 거래하는 교역 조건의 변화로 생기는 실질적 무역 손익을 합산해 집계한다. 그렇다면 ㉡ GDP가 있는데도 GNI를 따로 만들어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만약 수입 상품 단가가 수출 상품 단가보다 올라 대외 교역 조건이 나빠지면 전보다 많은 재화를 생산·수출하고도 제품·부품 수입 비용이 증가하여 무역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때 GDP는 무역 손실에 따른 실질 소득의 감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GNI가 필요한 것이다. 결국 GDP가 국민경제의 크기와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데 중점을 두는 지표라면 GNI는 국민경제의 소득 수준과 소비 능력을 나타내는 데 중점을 두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19.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상품 판매 가격은 물가 변동의 영향을 받는다.
- ② GDP는 최종 생산물의 가치의 총합으로 계산할 수 있다.
- ③ 화폐로 매매되지 않은 것은 GDP 계산에 넣지 않는다.
- ④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만이 GDP 계산의 대상이 된다.
- ⑤ GDP는 총 생산물 가치에 중간생산물 가치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20.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아래의 표는 최종 생산물인 X재와 Y재 두 재화만을 생산하는 A국의 연도별 생산액과 물가 수준이다.

	2010년	2011년	2012년
X재의 생산액	2,000원	3,000원	4,000원
Y재의 생산액	5,000원	11,000원	17,000원
물가 수준	100	200	300

* 기준 연도는 2010년으로 한다.
* 기준 연도의 실질 GDP는 명목 GDP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① 2012년도의 ‘명목 GDP’를 산출하면 21,000원이군.
- ② 2012년도의 ‘명목 GDP’는 2010년도 대비 3배 늘었군.
- ③ 2011년도의 ‘실질 GDP’를 산출하면 7,000원이군.
- ④ 2012년도는 2010년도보다 실질적으로 생산 수준이 올랐군.
- ⑤ 2011년도의 경제성장률은 0%이군.

21. ㉠에 대한 대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의 총생산 능력을 정확히 재기 위해
- ② 생산한 재화의 총량을 정확히 재기 위해
- ③ 생산한 재화의 수출량을 정확히 재기 위해
- ④ 국가 간의 물가 수준의 차이를 정확히 재기 위해
- ⑤ 무역 손익에 따른 실질 소득의 증감을 정확히 재기 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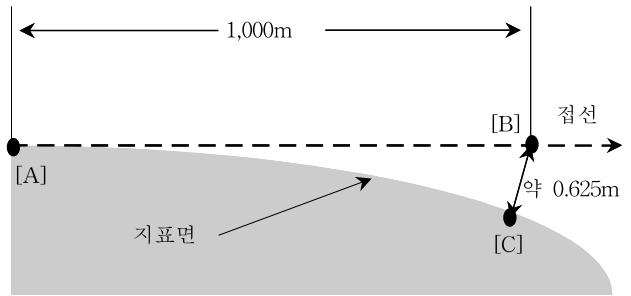
22.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큰 고생을 하였다.
- ② 전국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 ③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일을 마치도록 하여라.
- ④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것은 힘든 일이다.
- ⑤ 굵은 빗방울이 머리에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가 손에 들고 있던 공을 놓으면 공은 땅으로 떨어진다. 공을 수평으로 멀리 던지거나 심지어 하늘을 향해 높이 던져도 공은 땅에 떨어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 주위에서 언제나 목격할 수 있다. 모든 물체에는 중력, 즉 지구의 중심으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면 **㉡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떠 있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지표면 5m 높이에서 공을 떨어뜨리거나, 수평으로 멀리 던졌을 때 공이 1초 후면 지표면에 **㉢ 닿는다**. 이 순간의 공의 속도는 약 5m/s이다. 곡률은 곡선이나 곡면의 굽은 정도를 말하며, 지구의 곡률은 약 0.000625%이다. 옆의 그림과 같이 지표면 [A]에서 접선 방향으로 1,000m 떨어진 [B]로 이동했을 때 실제 지표면 [C]는 약 0.625m 아래에 있다. 마찬가지로 [A]에서 접선 방향으로 8,000m 떨어진 곳의 지표면은 약 5m 아래에 있다.



따라서 공을 약 8km/s 속도 이상으로 날아가게 한다면 공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어떤 물체가 약 8km/s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지표면을 따라 계속 떠 있을 수 있다. 이 속도(약 8km/s)를 지구 접선 속도라 한다.

만약 어떤 물체가 접선 속도 이상으로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 그 물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고도가 높아질 것이다. 지표면을 따라 돌면서 고도가 계속 **㉣ 높아지다** 보면 언젠가는 지구 대기권을 뚫고 우주 공간에 이른 뒤 지구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선 약 8km/s라는 접선 속도는 음속의 24배가 넘는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어떤 물체를 그 속도로 날게 하기가 힘들다. 또 그 속도로 날게 하더라도 대기와의 마찰로 불타버릴 가능성이 **㉤ 크다**. 게다가 마찰열에 타지 않게 하더라도 공기의 저항에 의해 속도가 떨어지므로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오늘날 인공위성은 어떻게 우주 공간에 떠 있을 수 있을까? 인공위성을 우주 공간으로 올릴 때는 로켓을 이용한다. 이때 로켓은 지구 중력을 이겨내고 우주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지구 중력을 이겨내기 위한 지구 탈출 속도는 지표면에서는 약 11km/s이고,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조금씩 줄어든다. 우주 공간에 있는 인공위성을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약 8km/s로 움직이게 하면 추락하지 않고 계속 **㉥ 돌** 수 있다. 우주에는 대기가 없으므로 마찰 열도 없고, 공기 저항도 없으므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의 공급은 필요 없다. 이로 인해 인간은 달이라는 자연적인 위성을 가진 이래 수많은 인공적인 위성을 갖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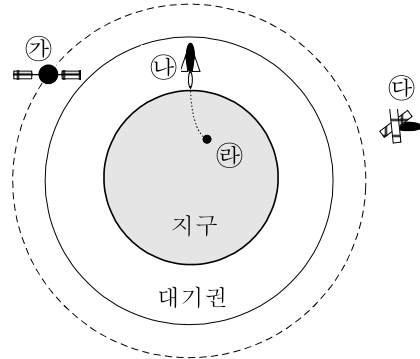
23. 밑글의 글쓴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반된 원리를 제시하고 두 원리의 의미를 밝혀야겠어.
- ② 대비되는 가설을 검증하며 한 이론의 우위를 증명해야겠어.
- ③ 화제와 관련한 이론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설명해야겠어.
- ④ 현상에 대한 여러 의견을 소개하고 그 한계를 지적해야겠어.
- ⑤ 주요 용어의 개념을 소개하고 사례를 들어가며 원리를 설명해야겠어.

24.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 : 지구 둘레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 ㉡ : ㉠을 우주 공간으로 올릴 때의 로켓
- ㉢ : 궤도를 벗어나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인공위성
- ㉣ : ㉡의 발사 지점



- ① ㉠은 궤도의 접선 방향으로 움직이겠군.
- ② ㉠은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약 8km/s의 속도로 움직이겠군.
- ③ ㉡는 대기권에서의 마찰열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겠군.
- ④ ㉡는 중력을 극복하기 위해 약 11km/s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었겠군.
- ⑤ ㉢는 궤도를 돌던 중에 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벗어났겠군.

25. 윗글을 고려할 때, ㉠을 실현하는데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지구의 곡률
- ② 지표면의 거칠기
- ③ 공에 미치는 중력
- ④ 공에 미치는 공기의 저항
- ⑤ 공이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는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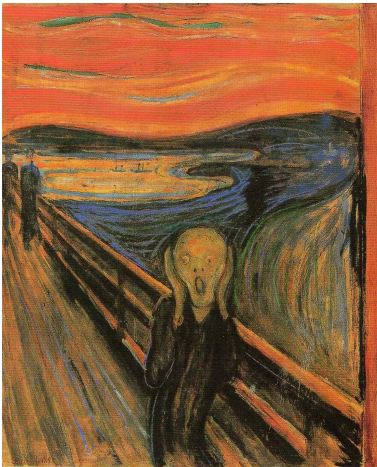
26. 문맥을 고려하여 ㉠~㉥를 바꿔 쓸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작용(作用)하기
- ② ㉡ : 도달(到達)한다
- ③ ㉢ : 향상(向上)하다
- ④ ㉣ : 농후(濃厚)하다
- ⑤ ㉤ : 공전(公轉)할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10년을 전후하여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미술 사조인 '표현주의'는 내면에 잠재된 강렬한 감정과 욕구를 소재로 하여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했던 미술 운동이자, 회화에 사회의식을 반영한 사조로 평가 받는다. 19세기 후반 당시의 독일 사회는 전쟁의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표현주의자들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초라한 인간상을 예리하게 ㉠ 포착하여 불안과 공포, 기쁨과 슬픔 등 자신이 느낀 것을 ㉡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화폭에 담아내고자 했다.

기존의 회화가 외적 세계의 모방에 초점을 두었다면, 표현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감정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표현주의자들은 외적 세계에 대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형태를 단순화하고 색채의 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였다. 동일한 대상이라도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대상이 다르게 보이므로, 당시의 내면 상태를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 대상의 형태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표현하였다. 그리고 즉흥적인 느낌을 주는 듯한 거친 붓놀림과 선에 의해 단순화된 형태, 그리고 과장된 색채를 ㉢ 선호하였다. 특히 표현주의자들은 판화를 많이 제작하였다. 작가들은 판화에서는 과장된 색채 대신 흑백 대조를 활용하여 극적인 효과를 얻으려 했고, 거칠고 날카로운 선들을 이용하여 당시의 부정적인 사회 상황을 드러내려 하였다.



당대인들은 표현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를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 왼쪽의 작품은 표현주의의 대표작인 뭉크의 「절규」이다. 이 작품이 베를린 전시장에 걸리자 많은 관람객들이 작품에 대해 비난을 하였고, 결국 이 전시장은 폐쇄되기도 하였다. 전통적인 감상 방식에 얽매어 있었던 당대 사람들은 표현주의의 어둡고 무거운 주제와 일그러진 형태, 자연스럽지 못한 색감에서 불편함을 느낀 것이다. 표현주의는 감정과 이념을 표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입체적 구도의 균형이 주는 조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작가의 내면세계에 대한 메시지의 전달을 더욱 중시하였다. 따라서 표현주의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나타나는 형태와 색채를 통해서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의 감각과 감정 상태를 읽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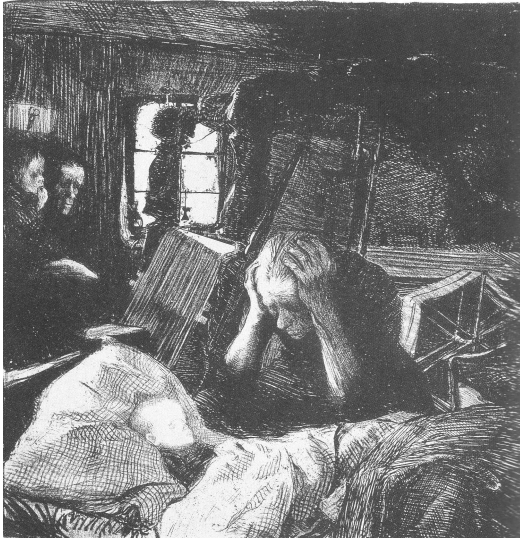
표현주의는 전후의 혼란 속에서도 독일을 중심으로 지속되었으나 나치 정권으로부터 퇴폐 예술로 규정되어 탄압을 받으면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하지만 표현주의는 눈에 보이는 바깥 세계의 묘사에 간혀 있었던 예술적 안목을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세계의 표현 영역으로 ㉣ 확장함으로써 현대 회화의 물꼬를 텃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 회화에서 작품의 재현적 가치보다 ㉤ 개성적 가치가 중요한 미학적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예술적 창의성과 다양성을 ㉦ 시도했던 표현주의의 실험 정신이 남겨 놓은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27.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표현주의 미술의 주된 소재는 무엇인가?
- ② 표현주의 미술이 탄압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 ③ 표현주의 미술에 영향을 준 미술 사조는 무엇인가?
- ④ 표현주의 미술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가?
- ⑤ 표현주의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표현주의 작가 콜비츠의 대표작인 「궁핍」이다. 이 작품은 실업과 사회적 붕괴가 잦았던 술레지엔 지방 방직 공들이 당면한 비참한 처지를 다룬 석판화로서, 작가가 실제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지켜 본 후 괴로운 마음에서 창작한 작품이라고 한다.

이 작품의 특징은 머리를 감싼 남자의 손이 과장되게 표현되었고, 거칠고 날카로운 선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대상은 세밀하게 묘사하지 않고 흑백의 대조만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은 독일의 황제가 주최하는 미술 대회에서 금상으로 선정되었으나, 독일의 내각은 ‘작품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거나 달래주는 요소가 전혀 없는 기법을 사용했다.’라며 황제에게 이 수상의 취소를 건의했다고 한다.

- ①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지 않고 흑백의 대조만으로 표현한 것은 극적인 효과를 얻으려 한 것이겠군.
- ② 방직공의 모습을 거칠고 날카로운 선으로 표현한 것은 산업화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나타내려는 콜비츠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겠군.
- ③ 미술 작품을 전통적인 감상 방식으로 감상했던 당대인들은 비참한 당대 사회 현실이 드러나는 이 작품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겠군.
- ④ 머리를 감싼 남자의 손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비극적 모습을 목격한 콜비츠가 자신의 괴로운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군.
- ⑤ 대상을 왜곡하여 표현하면서도 원근법을 통해 장면에 입체감을 부여한 것은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려는 콜비츠의 의도가 구현된 것이겠군.

29. 문맥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객관적 시각으로 관찰한 대상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대상을 바라보며 느낀 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대상의 고유한 비례와 균형을 찾아서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결함을 보완해서라도 대상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⑤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한 대상의 모습을 한 작품 안에 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0. 문맥을 고려하여 ㉡~㉤을 우리말로 고쳐 쓸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잡아내어
- ② ㉢: 아름답게 꾸미지
- ③ ㉣: 특별히 좋아하였다
- ④ ㉤: 넓힘으로써
- ⑤ ㉥: 이끌었던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오호, 여기 줄지어 누웠는 녀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워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 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떼마져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듯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욱 신비스러운 것이로다.

이곳서 나와 너희의 녀들이
돌아가야 할 고향땅은 30리먼
가로막히고
무주공산(無主空山)의 적막만이
천만 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

살아서는 너희가 나와
미움으로 맺혔건만
이제는 오히려 너희의
풀지 못한 원한이
나의 바램 속에 깃들어 있도다.

손에 닿을 듯한 봄 하늘에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어디서 울려오는 포성(砲聲) 몇 발
나는 그만 이 은원(恩怨)의 무덤 앞에
목 놓아 버린다.

- 구상, '초토(焦土)의 시(詩) 11-적군묘지(敵軍墓地) 앞에서'(1956) -

(나)

그대 죽어 별이 되지 않아도 좋다
푸른 강이 없어도 물은 흐르고
밤하늘이 없어도 별은 뜨나니
그대 죽어 별빛으로 빛나지 않아도 좋다
언 땅에 그대 묻고 돌아오던 날
산도 강도 뒤따라와 피울음 울었으나
그대 별의 녀이 되지 않아도 좋다
일새에 이는 바람이 길을 멈추고
새벽 이슬에 새벽 하늘이 다 젖었다
우리들 인생도 찬 비에 젖고

떠오르던 붉은 해도 다시 지나니
 밤마다 인생을 미워하고 잠이 들었던
 그대 굳이 인생을 사랑하지 않아도 좋다

- 정호승, '부치지 않은 편지'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애도의 마음이 시 창작의 계기가 되고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그리움으로부터 시상을 일으키고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희망을 떠올리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④ 부정적 상황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타인의 삶을 자신의 삶과 견주어 반성의 기회로 삼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의 작가는 함경남도 원산 출신으로 1947년 반동분자로 비판받자 월남한다.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 종군하여 전쟁의 참상과 남북이 갈리는 현실을 경험하면서 느낀 민족적 비극을 전달하려 애썼다. 그의 작품에는 인간애와 종교적인 화해 의식을 바탕으로 한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평화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 ①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에서 전쟁의 참상이 사실적으로 전해져 오는군.
- ② '그래도 양지 바른 두메를 골라/ 고이 파묻어 때마저 입혔거니'를 통해 인간애를 드러내고 있군.
- ③ '천만 근 나의 가슴을 억누르는데'에서 작가가 월남하기 전에 받았던 고통의 무게를 느낄 수 있군.
- ④ '나의 바람 속에 깃들여 있도다.'에서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작가의 염원을 엿볼 수 있군.
- ⑤ '구름은 무심히도/ 북으로 흘러가고', '목 놓아 버린다.'는 남북 분단의 비극을 상기시키는군.

33.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 ㄱ.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ㄴ. 도치의 방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ㄷ. 청유형을 사용하여 대상과의 정서적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 ㄹ.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 ㅁ. 비슷한 통사 구조의 시행을 반복함으로써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ㄷ, ㅁ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러저러 한 달쯤 무사히 지났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갈 날은 갈수록 아득했다. 이 한 달 사이에 두찬이는 두찬이대로, 광석이는 광석이대로 남모르게 제각기 다른 배포가 서게 된 것은(배포랄 것까지는 없지만) 그들을 탓할 수만 없는 일이었다. 쉽사리 고향으로 못 돌아갈 바에는 늘 이려고만 있을 수는 없다, 달리 변통을 취해야겠다, 두찬이와 광석이는 나머지 셋 때문에 괜히 얽매여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게 된 것이었다. 자연 우리 사이는 차츰 데면데면해지고, 훌끔훌끔 서로의 눈치를 살피게끔 됐다.

광석이는 애당초가 주책이 없다 할까 주변이 있다 할까 엄병덤병 토박이 반원들과 열려 막걸리 사발이나 얻어 마시곤 했고, 주변 좋게 보탬을 해서 북쪽 얘기를 해쑹고, 이렇게 며칠이 지났을 땐 어느덧 반원들은, 나나 두찬이나 하원이와는 달리, 광석이만은 오래 전부터 사귀어 온 친구처럼 손을 맞잡고는,

“나왔나!”

“오냐, 느 형님 여전하시다.”

“버르장머리 몬 쓰겠다. 누구보꼬 형님이라 카노.”

“자네 언제부터, 말버르장머리하곤, 허 요새 세상이 이래 노니.”

농담조로 수인사가 오락가락했으니, 나나 두찬이나 하원이는 광석이의 이런 꼴을 멀끔히 남 바라보듯 바라다봐야 했다. 광석이는 차츰 반원들과 열려 왈자지껄하는 데 더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았고, 날이 갈수록 자신만만해졌다.

그 꼴사나움은 이루 말할 수 없어 더더구나 주변 없고 무뚝뚝하고 외양보다 실속만 자란 두찬이는 저대로 뒤틀리는 심사를 지닌 채 다른 궁리를 차리는 모양이었다. 사실 이즈음부터 두찬이는 부두 안에서 암생이*를 해도 다만 밥 두 끼 값이라도 골고루 나누어 주는 법이 없이, 일판만 나오면 혼자 부두 앞 틈 사이 셋길을 허청허청 돌아다녔다. 이런 두찬이는 으레 술이 듬뿍 취해 화차간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하원이는 자주 울먹거렸다.

“야하, 부산은 눈두 안 온다, 잉.”

하고 애스럽게 지껄이곤 했다.

되잖은 청으로 타령 같은 것을 부르는 두찬이의 취한 목소리가 바람결에 가까워 오면 화차간은 무엇인가 덮어 씌운 듯 조용해졌다.

“문 열어라.”

드르르 문을 열면, 싸느다란 부두 불빛이 푸르푸레하게 화차간에 찼다. 두찬이는 문간에 막아서서, 비트적거리며 한참을 허허허 웃어 댔다. 하원이는 한쪽 구석에서 또 울먹울먹거렸다. 화차간으로 기어 올라온 두찬이는 헉헉 숨차 하면서 광석이부터 찾았다.

“야, 광석아, 이 새끼야, 이 새끼 어디 갔니?”

누운 채 광석이는 귀찮은 듯이 짹한 목소리로,

“왜애, 왜 기래, 왜?”

“나, 술 마셨다. 나 오늘 암생이 했다. 사아지* 두 벌, 근사하더라, 나 혼자 가지구 나 혼자 마셨다. 왜, 못마땅허니? 못마땅할 것 없어. 잉, 이 새끼야.”

광석이는 발끈 일어나며,

“취했음 자빠져 잘 거지. 누구까 지랄이야. 어디 가서 혼자만 처마시군.”

“말 자알 현다. 그래 난 혼자만 마셨다. 넌 부산내기덜과 왈자고오면서 마시구. 난 내 돈 내구 먹지만, 넌 술 사주는 사람두 많두나. 원래 사람이 잘났응이가, 인심이 좋아서. 난 못났구. 그렇지만 무서울 건 쪼외꼼두, 요만침두 없어. 두구 보렴, 두구 봐, 보잔 말야.”

[중략 줄거리] 집이 없어 기차의 빈 화차간에서 생활하던 어느 날 밤, 막 출발하는 기차의 화차에서 황급히 뛰어내리다가 광석이 팔을 잘리는 사고를 당한다. 두찬은 다친 광석을 외면하고 ‘나’와 하원이가 광석을 화차에 데려왔으나, 이튿날 광석은 죽고 만다.

두찬이 벌떡 일어나 앉았다. 화차 문은 열어젖힌 채였다. 어수선한 바람이 몰아들었다. 두찬이는 머리칼을 앞으로 흘뜨린 채 내 곁으로 다가왔다. 구석에서 하원이가 다시 소리 내어 흑흑 흐느꼈다.

“야, 너 오늘 죽여 버린다. 어잉 이 새끼야, 넌 왜 그때 혼자만 간. 왜 날 붙들지 않았. 부르지도 않았. 그리고 이제 와서 팔세야, 이 새끼야. 그때 암말두 안 허군 이제 와서. 너 잘한 것 같니, 잘한 것 같애? 하늘이 내려다본다, 이 뻔뻔한 새끼야.”

다시 하원이 울음소리가 딱 그쳤다. 두찬이는 내 무릎을 움켜잡았다. 그러나 다시 그냥 벌렁 뒤로 나자빠졌다.

“어잉, 이 척질 새끼, 개새끼, 취헨 줄 아니? 취할 탁이 있니? 이 개새끼야, 요렇게 정신이 말뚱말뚱하다, 말뚱말뚱해. 왜 넌 암말두 안 헌. 뛰다래 잡든지 칼침을 주든지 하잖구. 어허허허, 내, 이제 무슨 낫작으로 동네 가간, 어허허허..... 광석아아..... 광석아아하아.”

두찬이는 벌렁 자빠져서 화차 안이 찌렁찌렁하도록 그냥 어이어이 울어 뒀다.

이튿날 아침 두찬이는 보이지 않았다. 부두 일판에 나가도 없었다.

사흘쯤 지난 뒤, 어두운 화차칸 속에서 하원이는 지꼈었다.

“야하, 우리 이제 썩대가리(밤낮을 거꾸 일하는 것) 자꾸 해서 돈 좀 쥐자. 그러구 저기 염주동 산꼭대기에다 집 하나 짓자. 거기 집 제두 일 없녕기더라야. 잉야 조카야, 호호호 우습다. 진짜 우스워. 난 너두 두찬이 형처럼 그렇게 될까 봐 얼마나 떨언 줄 안. 광석이 아제비두 맘은 좋은 쪽은 못 됐시야, 잉. 우리 동네 갈 쟈 꼭 같이 가자. 돈벌어서, 돈벌문 말야, 시계부터 사자, 어부러서. 그까즌 거, 썩대가리 대구 하지 머. 광석이 아저씨까 두찬이 형은 못 봤다구 글자마, 알 거이 머야, 너까나만 암말두 안 헌 담에야. 그저 대구 못 봤다구 글자마. 널부터 나 진짜 썩대가리 할란다. 잉, 조카야 우습다. 잉? 이케(이렇게) 잠이 안 온다야. 우리 오늘 밤, 그냥 밤새자. 술 마시까, 술?”

나는 그저 중얼거리고 있었다.

“바람도 없이 내리는 눈송이여, 아, 눈송이여.”

무엇인가 못 견디게 그리운 것처럼 애탤다. 그러나 누가 알랴! 지금 내 마음 밑 속에서 일어나는 돌개바람 같은 것을..... 아, 어머니! 이미 내 마음은 하원이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순간 나는 입술을 악물었다. 와락 하원이를 끌어 안았다. 눈물이 두 볼에 흘러내렸다. 하원이는 호호호 웃었다. 지꼈었다.

“이 새끼 술도 안 먹구 취헨. ㉠ 참 부산은 눈두 안 온다 잉, 눈두. 이북 말이다. 눈 오문 말이다. 눈 오문 말이다. 광석이 아제비네 움물 말이다. 야하, 굉장헌데. 새벽엔 까치가 울구, 그 상나무 있잖니. 장자골집 형수 원래 잘 웃잖니. 하하하 하구. 그 형수 꽤나 부지런했다. 가마이 보문, 언제나 새벽에 쟈 먼저 물 푸러 오군 하는 게 그 형수더라, 잉. 야하, 눈 보구 싶다, 눈이.”

- 이호철, ‘탈향(脫鄉)’ -

* 암생이 : 남의 물건을 조금씩 훔쳐 내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

* 사야지 : 옷감의 한 종류.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투리를 통해 이야기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액자식 구성을 통해 갈등 해결의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입체적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④ 공간적 배경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 하여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 ⑤ 초현실적 공간을 설정하여 상상과 현실의 세계를 넘나들고 있다.

35. ㉠에 담긴 심리 상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긍정적 미래에 대한 믿음
- ② 부당한 현실에 대한 비판
- ③ 새로운 상황에 대한 기대
- ④ 떠나온 공간에 대한 그리움
- ⑤ 불우했던 과거에 대한 슬픔

36. <보기>를 바탕으로 밑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의 제목은 ‘실향(失郷)’이 아닌 ‘탈향(脫郷)’이다. 실향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면, 탈향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고향을 벗어나는 상황을 의미한다. 작가는 작품 속의 인물들이 ‘귀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현실의 공간에서 살아가는 모습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① ‘나’는 ‘하원’과 함께 귀향하기로 마침내 결심했다.
- ② ‘광석’과 ‘두찬’은 서로를 의지하며 실향 의식을 벗어나고 있다.
- ③ ‘두찬’과 ‘하원’은 탈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④ ‘두찬’은 귀향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동료들을 떠나는 결과를 보여준다.
- ⑤ ‘하원’과 ‘광석’은 처음부터 자신이 처한 실향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흔고. _____ [A]
 넷 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_____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 만흔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맛들 것가.
 수간 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 주인(風月主人) 되여셔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휘여 잇고, _____ [B]
 녹양 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 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롭다.
 ㉡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 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익 다를소냐.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에 안자 보니,
 소요 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흔디, _____ [C]
 한중 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青)으란 오늘 헝고 욱기(浴沂)란 내일(來日) 헝새. _____ [D]
 아츠·口에 채산(採山)헝고 나조히 조수(釣水)헝새.
 꺾 꺾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ㄱ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清流(淸流)를 굽어보니 셔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_____ [E]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밭이 권 거인고.
 송간 세로(松間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봉두(峰頭)에 급피 올라 구름 소기 안자 보니,
 ㉣ 천촌 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넉.
 연하 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펏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샤.
 공명(功名)도 날 썩우고 부귀(富貴)도 날 썩우니,
 청풍 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 단포 누향(簞瓢陋巷)에 훗튼 혜음 아니 헝넉.
 아모타, 백년 행락(百年行樂)이 이만흔들 엇지헝리.

37. [A] ~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생애’에 대한 자부심을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수간 모옥’ 주변의 경치를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부각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호재로다’에 담긴 고독한 정서를 대조의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④ [D]에서는 ‘니웃’들과 풍류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대구의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E]에서는 ‘술’로 인한 취흥을 고사(故事)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3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칼로 마름질하거나 붓으로 그려낸 것 같다는 뜻으로 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새 소리가 흥겹게 들린다는 뜻으로 화자의 흥취를 자연물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③ ㉢: 향기는 잔에 어리고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물아일체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 ④ ㉣: 아름다운 마을이 곳곳에 펼쳐 있다는 뜻으로 이상향이 실현된 공간을 그리고 있다.
- ⑤ ㉤: 소박하게 살며 헛된 생각은 안 하겠다는 뜻으로 삶에 대한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조선 전기 사대부들에게 자연은 관조를 통해 지극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정극인 역시 자연과 소통하며 삶의 충만함을 느끼고자 했다. 즉 일상적 현실에서 벗어나 은일하며 자연과의 조화와 합일을 추구한 것이다. <상춘곡>은 그의 이러한 세계관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 ① 인간적 욕망에 시달리면서도 자연 속에서 이러한 욕망을 극복하고 있군.
- ② 학문의 정진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치를 깨닫고 있군.
- ③ 자연을 즐거움을 얻는 공간으로 묘사하며 심리적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자연과의 합일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안타까움에서 벗어나고 있군.
- ⑤ 자연에 대한 관조를 통하여 화자의 잘못을 성찰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40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추양대는 신부의 예복을 화려하게 차려입고 칠보금덩*에 높직이 앉아 시녀들이 앞뒤를 옹위하며 가니, 이들 시녀들은 저마다 녹의홍상에 아름답게 단장하고, 쌍쌍으로 벌려 서서 앞을 인도하고, 뒤에는 금안백마에 높직이 앉은 신랑이 자기 행운을 과시하면서 서서히 따르고 있더라.

운남산 황령이라는 고개에 올라섰을 때 그곳에서 아까부터 기다리고 앉아 있던 한 젊은 남자가 이 화려한 신행의 행렬에 접근해 왔고, 그는 행렬의 선두에 선 하인들의 제지를 받고 승강이를 벌였으나, 그에게 악의가 없는 것은 그의 언동을 보면 이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나는 남양땅 양상서 닥 노복이러니, 우리 닥 부인께서 분부하시되 이 서간을 주소저께 드리면 자연 아실 일이 있다 하시기로 바치려 하나이다.”

이런 말에 놀란 것은 다름 아닌 신부 추양대였으며, 그 여자는 칠보금덩 안에서 졸음이 와 눈을 감을 듯 말 듯 하다가, 남양땅 양상서라는 말에 벌떡 놀라 눈을 뜨고 밖을 내다본 것이더라.

신부는 이내 그 젊은이의 목적을 묻고, 가지고 온 봉서를 바치라고 하인들에게 분부하였고, 봉서를 받아본 추양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으며, 그것은 그렇게도 사랑하던 양산백의 필적이 아닌가. 필적만 보고도 양산백을 알아보며 반가운 눈물이 솟아오를 정도더라.

추양대는 아이들처럼 기뻐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그것을 뜯어 펼쳐 들으니, 처음 순간에는 눈이 침침하여 아니 뵈기까지 하였으니, 이윽고 그 여자는 내리 읽더라.

‘박명 죄생 양산백은 삼가 글월을 주소저 좌하에 부치나니, 우리 양인이 인연이 지중기로 삼 년을 함께 지내며 공부하면서 피차에 심중 맹약을 가져 불전에 도축*하니 천지로 증참*이 되온고로 백년을 잊지 말자 하올 때에는 피차에 남자로되 맹약함이 금석같거늘, 하물며 여자가 남장을 한 것을 안 연후에 다시 범연하리오*. 생이 내심에 숙녀를 만나 평생을 쾌락하리라 하고, 창천께 예하였더니 조물이 시기하여 소저가 본 닥으로 가온 후, 주야로 생각이 간절키로 남자를 찾아 꿈같이 만나 기쁜 말을 듣지 못하고, 놀라운 말씀이 청천백일에 벽력이 일신을 분쇄하매,

[A] 어이 살기를 바라리오. 죽기는 슬프지 아니하되, 학발*쌍친을 사절하게 되니 불효막심이라. 구천 타일에 무슨 면목으로 조상을 뵈오며, 또 후세의 꾸지람을 어찌 면하며, 남자를 차 생전에 다시 만나 뵈지 못하고 황천을 돌아가니 이 유한은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리로다. 죽기를 임하여 두어 자로 생의 뜻을 고하며, 또 생이 부모께 고하여 남자의 신행길에 물어 주시면, 남자 왕래지시에 성음이나 들어 원혼이라도 위로하여 주시기 바라오니, 원컨대 남자는 왕래지시에 한 잔 술로 무주고혼을 위하여 주시면 사무여한이라. 죽기를 임함에 정신이 혼미하여 대강 기록하노라.’

추양대의 눈에서는 벌써부터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져 편지의 검은 먹 글씨를 번져 놓고 있었으나, 그 여자는 잠시 동안 그것을 치울 생각도 아니 하고 그대로 무릎 위에 놓은 채 울고만 있더라.

그 편지는 죽기 전 압박해서 쓴 것이 분명하였으며, 또 어떻게 되어 이런 곳에서 이 편지를 받게 되었을까. 얼핏 편지의 최후의 글귀를 생각하고, 편지를 가져온 창두*를 불러 양산백의 무덤을 물어 보더라.

창두는 바로 그 옆 길 위로 산언덕에 있는, 이제 며칠도 안 된 듯싶은 극히 새로운 무덤을 가리키더라. 추양대는 금덩에서 내려 신부의 예의도 잊은 채 그 무덤으로 달려가 무덤 앞에 쓰러져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하더라.

(중략)

불행한 신부가 눈물을 뿌리며 축문을 읽고 났을 때, 그 때 거기에 모여 있던 모든 남녀는 예의 분개한 신랑만은 제외하고 죄다 감동해서 역시 눈물을 흘렸고, 난데없는 오색구름이 무덤에서 뭉게뭉게 돌기 시작하였고, 창두는 웬 구름인가 하고 놀라서 눈을 비비며 그것을 똑바로 지켜보았노라고 다짐하기까지 하는 것이더라.

그러자 다음 순간 봉분의 꼭대기에서 한 가닥 찬란한 무지개가 비쳐 올랐으며, 그런가 해서 놀라서 보고 있을 때, 별안간 광하고 천지가 뒤흔들리며 그 무덤이 짹 갈라져 버렸고, 이 무서운 벽력같은 소리에 모여 서 있던 남녀들은 죄다 뿔뿔이 도망쳐 버렸는데, 창두도 겁에 질려 땅에 엎드리고 기어서 겨우 늙은 소나무 뒤로 몸을 피해 그 소나무 줄기를 부여잡고 지켜보더라.

이때는 무덤 앞에서 축문을 읽던 신부는 보이지 않고,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그 여자는 그 갈라진 무덤 속으로

뛰어들어 보이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까부터 분개해서 신부의 뒤에 서서 지키고 있던 신랑이 그 갈라진 구멍으로 달려들어 그 여자의 치맛자락을 부여잡고 땀을 뻘뻘 흘리며 무서운 형상으로 그것을 잡아당기고 있었기 때문이며, 치마는 발기발기 찢겨져, 그 여자의 하얀 다리가 흰꿈 보였으나 그것마저 이내 없어지고야 말더라.

— 작자 미상, '양산백전' —

- * 금덩 : 황금으로 호화롭게 장식한 가마.
- * 도축 :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기를 뵈.
- * 증참 : 참고가 될 만한 증거.
- * 범연하다 :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친밀감이 없이 예스럽다.
- * 학발 : 두루미의 깃털처럼 희다는 뜻으로, 하얗게 센 머리 또는 그런 사람을 이르는 말.
- * 창두 : 사내중.

40.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의적 표현을 통해 세대를 비판하고 있다.
- ②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있다.
- ④ 등장인물의 내면 독백을 통해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전능한 입장에서 독자에게 전달하듯이 제시하고 있다.

41.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추양대에게 닥칠 위기 상황이 암시된다.
- ② 양산백과 추양대의 과거가 요약되어 있다.
- ③ 추양대에 대한 양산백의 애정이 담겨 있다.
- ④ 양산백이 추양대에게 바라는 바가 드러난다.
- ⑤ 양산백이 죽음에 이르게 된 상황을 알 수 있다.

42. <보기>는 윗글에 영향을 끼친 설화의 줄거리이다.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남장을 한 축영대는 양산백과 3년 동안 한집에 기거하면서 공부하는 중에 양산백을 좋아했지만, 양산백은 그녀가 여자라는 것을 전혀 모른다. 한편 축영대의 아버지는 그녀를 다른 가문에 시집보내려 하고 축영대는 아버지의 뜻을 어기지 못한다. 뒤늦게 축영대가 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양산백은 집에 돌아온 후 축영대를 그리워하다 병이 들어 죽는다. 축영대는 시집가는 길목에서 양산백의 무덤을 보고 슬퍼하던 중, 갑자기 무덤이 갈라지자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그러자 무덤에서 한 쌍의 나비가 나오고, 사람들은 한 쌍의 나비가 양산백과 축영대가 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 두 주인공은 3년간 함께 지내며 공부했다.
- ② 여자 주인공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
- ③ 두 주인공을 시기하며 분개하는 인물이 등장한다.
- ④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의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
- ⑤ 첫 만남에서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이 남자인 줄 알았다.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골동집 출입을 경원한 내가 근간에는 학교 다니는 길 옆에 꽤 진실성 있는 상인 하나가 가게를 차리고 있기로, 가다오다 심심하면 들러서 한참씩 한담(閑談)을 하고 오는 버릇이 생겼다.

하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이 가게에 들렀더니 주인이 누룩한 두꺼비 한 놈을 내놓으면서 ㉠ “꽤 재미나게 됐지요.” 한다.

황갈색으로 검누른 유약을 내려 씌운 두꺼비 연적(硯滴)인데, 연적으로서는 희한한 놈이다.

4, 50 년래로 만든 사기(砂器)로서 흔히 부엌에서 고추장, 간장, 기름 항아리로 쓰는 그릇 중에 이따위 검누른 약을 바른 사기를 보았을 뿐, 연적으로서 만든 이 종류의 사기는 초대면이다.

두꺼비로 치고 만든 모양이나 완전한 두꺼비도 아니요, 또 개구리는 물론 아니다.

특 튀어나온 눈깔과 딱 버티고 앉은 사지(四肢)며 아무런 굴곡이 없는 몸뚱어리, 그리고 그 입은 바보처럼 ‘헤—’ 하는 표정으로 벌린 데다가 입 속에는 파리도 아니요 벌레도 아닌 무언지 알지 못할 구멍 뚫린 물건을 물렸다.

콧구멍은 금방이라도 벌름벌름할 것처럼 못나게 뚫어졌고, 등허리는 꿈무늬에 이르기까지 석 줄로 두드러기가 솟은 듯 쪽 내려 엷게 만들었다.

그리고 유약을 갖은 재주를 다 부려 가면서 얼룩얼룩하게 내려 부었는데, 그것도 가슴 편에는 다소 희멀끔한 효과를 내게 해서 구석구석이 교(巧)하다느니보다 못난 놈의 재주를 부릴 대로 부린 것이 한층 더 사랑스럽다.

요즈음 골동가들이 본다면 거저 준대도 안 가져갈 민속품이다. 그러나 ㉡ 나는 값을 물을 것도 없이 덮어놓고 사기로 하여 가지고 돌아왔다. 이 날 밤에 우리 내외간에는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쌀 한 되 살 돈이 없는 판에 그놈의 두꺼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느냐는 아내의 바가지다.

이런 종류의 말다툼이 우리 집에는 한두 번이 아닌지라 종래는 내가 또 화를 벌컥 내면서 “두꺼비 산 돈은 이놈의 두꺼비가 값아 줄 테니 걱정 마라.”고 소리를 쳤다. 그러한 연유로 나는 이 잡문을 또 쓰게 된 것이다.

잠꼬대 같은 이 한 편의 글 값이 행여 두꺼비값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내 책상머리에 두꺼비 너를 두고 이 글을 쓸 때 내가 감정을 가진 물건이라면 필시 너도 슬피할 것이다.

너는 어찌 그리도 못 생겼느냐. 눈알은 왜 저렇게 튀어나오고 콧구멍은 왜 그리 넓으며 입은 무얼 하자고 그리도 컸느냐. 옷을 듯 울 듯한 네 표정! 곧 무슨 말이나 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왜 아무런 말이 없느냐. 가장 호사스럽게 치레를 한다고 네 놈은 얼썹덜썹하다마는 조금도 화려해 보이지는 않는다. ㉢ 흡사히 시골 색시가 능라 주속(綾羅紉屬)*을 멋없이 감은 것처럼 어색해만 보인다.

앞으로 앓히고 보아도 어리석고 못나고 바보 같고……. 모로 앓히고 보아도 그대로 못나고 어리석고 멍텅하기만 하구나. 내 방에 전등이 휘황하면 할수록 너는 점점 더 못나게만 보이니 누가 너를 일부러 심사를 부려서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말이나.

㉣ 네 입에 문 것은 그게 또 무어냐. 필시 장난꾼 아이 녀석들이 던져 준 것을 파리인 줄 속아서 받아 물었으리라.

그러나 뱉어 버릴 줄도 모르고, 준 대로 물린 대로 엉거주춤 앉아서 울 것처럼 옷을 것처럼 도무지 네 심정을 알 길이 없구나.

㉤ 너를 만들어서 무슨 인연으로 나에게 보내주었는지 너의 주인이 보고 싶다.

나는 너를 만든 너의 주인이 조선 사람이란 것을 잘 안다.

네 눈과, 네 입과, 네 코와, 네 발과, 네 몸과, 이러한 모든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너를 만든 솜씨를 보아 너의 주인은 필시 너와 같이 어리석고, 못나고, 속기 잘 하는 호인(好人)일 것이리라.

그리고 너의 주인도 너처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성격을 가진 사람일 것이리라.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못생긴 눈, 그 못생긴 코, 그리고 그 못생긴 입이며 다리며 몸뚱어리들을 보고 무슨 이유로 너를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커다란 이유가 있다.

4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골동집 주인은 ‘나’에게 흥미 있는 사건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 ② ㉡: ‘나’는 언젠가 두꺼비 연적이 골동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 믿고 있다.
- ③ ㉢: ‘나’는 두꺼비 연적의 외양이 화려함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 ‘나’는 ‘너의 주인’이 두꺼비 연적을 만들기로 마음먹은 순간을 상상하고 있다.
- ⑤ ㉣: ‘나’는 ‘너의 주인’이 의도적으로 두꺼비 연적을 ‘나’에게 보냈다고 확신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제 1 교 시



2014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국 어 영 역

A형

성명

수험번호

-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B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권
말

[15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길 중앙에 어떤 아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이를 도우려는 행동을 한다. 이러한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도움 행동(친사회적 행동)’이라 한다. 도움 행동은 순수하고 사심 없이 돕는 행동에서부터 이익 추구라는 계산적인 목적으로 돕는 행동까지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도움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일까?

[가] 도움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곤경에 처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가 도움 행동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그 상황에서 제3자의 존재 여부는 도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 주위에 제3자가 있으면 없을 때보다 도움 행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제3자가 있을 때는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돕겠지.’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도 돕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보니 급한 상황이 아닌가봐.’ 하고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위에 존재하는 제3자가 낯선 사람일 경우보다는 친한 사람일 경우에 도움 행동은 더 빨리, 더 잘 일어난다. 이는 사람들이 도움 행동을 할 때 제3자가 친한 사람일 경우 자신에 대한 그 사람의 평가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 현재 어떤 감정 및 동기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도 도움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양심의 가책에 민감한 사람은 도움 행동을 통해 불쾌한 감정이나 압박감에서 ㉠ 벗어나려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와준다. 그리고 ‘곤경에 처한 사람은 도와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도움 행동을 더 많이 한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곤경에 처한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도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보통 도움을 주는 사람이 곤경에 처한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에는 도움 행동이 더 쉽게 나타난다. 또한 어떤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이 문제의 원인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도 도움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술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진 경우와 일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진 경우, 사람들은 후자의 경우에 도움 행동을 더 많이 한다.

[나] 한편 도움을 받는 사람은 도움 행동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인간은 개인적 선택과 행동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도움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자유가 상실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도움을 거부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이 겪는 곤경이 타인, 우연, 상황적인 압력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 능력, 자질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도움 행동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도움을 받으면 자신의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5.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상이 일어나는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②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③ 핵심 개념의 내용과 그 범위를 소개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논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16. [가]를 참고하여 <보기>의 실험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 실험명 : 도움 행동 실험
- 실험 방법 : 설문지를 작성하는 중 누군가가 다급하게 비명을 지를 때, 피험자가 도움 행동에 나서는 비율, 도움 행동에 나서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함.
- 피험자 그룹
 - A 그룹 : 피험자 1명.
 - B 그룹 : 피험자 1명, 실험 협력자 1명.
 - * 실험 협력자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태에 대하여 시중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함.
 - * 피험자는 실험 협력자를 자신과 동일한 피험자로 인식하고 있음.
 - C 그룹 : 피험자 2명.(둘은 모르는 사이임.)
 - D 그룹 : 피험자 2명.(둘은 친구 사이임.)
- 실험 결과
 - ㄱ. 도움 행동에 나선 비율 : A 그룹 70%, B 그룹 7%, C 그룹 40%, D 그룹 70%
 - ㄴ. 도움 행동에 나서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 : C 그룹 130초, D 그룹 36초

- ① A 그룹에서 B 그룹보다 도움 행동이 잘 일어난 이유는 옆에 타인이 없었기 때문이겠군.
- ② B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도움 행동을 덜한 이유는 실험 협력자의 행동이 피험자의 상황 인식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겠군.
- ③ B 그룹과 C 그룹의 결과로 보아 피험자에게 경제적 목적이 있을 때에 도움 행동이 더 잘 일어나겠군.
- ④ C 그룹은 D 그룹에 비해서 옆 사람의 평가를 덜 의식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렸겠군.
- ⑤ D 그룹에서 C 그룹보다 도움 행동이 더 많이 일어난 것은 옆에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겠군.

17. [나]를 바탕으로, 도움 행동에 나설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가까운 사람일 때 도움 행동에 나서야 한다.
- ②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도움 행동에 나서야 한다.
- ③ 구체적인 대안이 있을 때 도움 행동에 나서야 한다.
- ④ 다른 사람과 함께 힘을 합하여 도움 행동에 나서야 한다.
- ⑤ 도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도움 행동에 나서야 한다.

18.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네 행동은 예의에서 벗어난 거야.
- ②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 ③ 터널에서 벗어나자 시야가 밝아졌다.
- ④ 주제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하지 말자.
- ⑤ 바쁜 일과에서 벗어나 여행을 떠났다.

[19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들은 은퇴 이후 소득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위협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위협이 발생할 경우 일정 수준의 생활(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가 공적연금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에는 대표적으로 국민의 노후 생계를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이 있다.

㉠ 공적연금제도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연금은 가입자가 비용은 현재 지불하지만 그 편익은 나중에 얻게 된다. 그러나 사람들은 현재의 욕구를 더 긴박하고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의 편익을 위해서 당장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젊은 시절에 노후를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최저생계를 보장해준다. 이 경우 젊었을 때 연금에 가입하여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이 방만하게 생활한 사람들의 노후생계를 위해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적연금제도의 재원을 충당하는 방식은 연금 관리자의 입장과 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 각기 다르게 나누어 볼 수 있다. 연금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두 가지가 있다. ‘적립방식’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적립해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하지만, 연금액은 확정되지 않는다. ‘적립방식’은 인구 구조가 변하더라도 국가는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고, 받을 연금과 내는 보험료의 비율이 누구나 일정하므로 보험료 부담이 공평하다. 하지만 일정한 기금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연금을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므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연금 지급이 어렵다. ‘부과방식’은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거둔 보험료로 은퇴자에게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큼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적립방식’과 달리 세대 간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으며, 제도 도입과 동시에 연금 지급을 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인구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 역삼각형의 인구구조가 만들어질 때는 젊은 세대의 부담이 증가되어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연금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납부하는 금액과 지급 받을 연금액의 관계에 따라 확정기여방식과 확정급여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기여방식은 가입자가 일정한 액수나 비율로 보험료를 낼 것만 정하고 나중에 받을 연금의 액수는 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는 연금 관리자의 입장에서 보면 ‘적립방식’으로 연금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식은 ㉡ 이자율이 낮아지거나 연금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개인이 손실 위험을 떠안게 된다. 또한 물가가 인상되는 경우 확정기여에 따른 적립금의 화폐가치가 감소되는 위험도 가입자가 감수해야 한다. 확정급여방식은 가입자가 얼마의 연금을 받을 지를 미리 정해 놓고, 그에 따라 개인이 납부할 보험료를 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연금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부과방식’으로 연금 재정을 운용하는 것이다. 나중에 받을 연금을 미리 정하면 기금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의 실패는 연금 관리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물가상승에 따른 손해는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1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저축을 하느라 적절한 소비를 하지 않으므로
- ②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않으므로
- ③ 현재의 욕구를 긴박하고 절실하게 느끼지 않으므로
- ④ 미래의 편익을 위한 비용을 지불하려 하지 않으므로
- ⑤ 노후 대비를 국가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20. 공적연금의 재원 충당 방식 중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항목	적립방식	부과방식
① 연금 지급 재원	가입자가 적립한 기금	현재 일하는 세대의 보험료
② 연금 지급 가능 시기	일정한 기금이 형성된 이후	제도 시작 즉시
③ 세대 간 부담의 공평성	세대 간 공평성 미흡	세대 간 공평성 확보
④ 소득 재분배 효과	소득 재분배 어려움	소득 재분배 가능
⑤ 인구 변동 영향	받지 않음	받음

21. 밑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의 상황에 대하여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회사는 이번에 공적연금 방식을 준용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회사는 직원들이 퇴직연금 방식을 확정기여방식과 확정급여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확정기여방식은 부담금이 공평하게 나뉘지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 ② 확정기여방식은 기금을 운용할 회사의 능력에 따라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 ③ 확정기여방식은 기금의 이자 수익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으면 연금액의 실질적 가치가 상승할 수 있어.
- ④ 확정급여방식은 물가가 많이 상승하면 연금액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
- ⑤ 확정급여방식은 투자 수익이 부실할 경우 가입자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22. ㉠와 관련하여 맞춤법에 따른 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규율(規律)
- ② 선율(旋律)
- ③ 자급율(自給率)
- ④ 점유율(占有率)
- ⑤ 백분율(百分率)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속은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데, 물속에서의 음속은 공기에서보다 4 ~ 5배 빠르다. 물속의 음속은 수온과 수압이 높을수록 증가한다. 그런데 해양에서 수압은 수심에 따라 증가하지만 수온은 수심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아니어서 수온과 수압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의하여 음속이 결정된다.

음속의 변화를 주는 한 요인인 수온의 변화를 보면, 표층은 태양 에너지가 과도나 해류로 인해 섞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나 그 아래의 층에서는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기 어려워 수심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낮아지고, 이보다 더 깊은 심층에서는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표층과 심층 사이에 있는, 깊이에 따라 수온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층을 수온약층이라 한다. 표층에서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높은 음속을 보인다. 그러다가 수온이 갑자기 낮아지는 수온약층에서는 음속도 급격히 감소하다가 심층의 특정 수심에서 최소 음속에 이른다. ㉠ 그 후 음속은 점차 다시 증가한다.

수온약층은 위도나 계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통 적도에서는 일 년 내내 해면에서 수심 150미터까지는 수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그 이하부터 600미터까지는 수온약층이 형성된다. 중위도에서 여름철에는 수심 50미터에서 120미터까지 수온약층이 형성되지만, 겨울철에는 표층의 수온도 낮으므로 수온약층이 형성되지 않는다. 극지방은 표층도 깊은 수심과 마찬가지로 차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온약층이 거의 없다.

수온약층은 음속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음파를 휘게도 만든다. 소리는 파동이므로 바닷물의 밀도가 변하면 다른 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굴절 현상이 ㉡ 일어난다. 수온약층에서는 음속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음파는 수온약층과 만나는 각도에 따라 위 혹은 아래로 굴절된다. 음파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낮은 층 쪽으로 굴절한다. 이런 굴절 때문에 해수면에서 음파를 보냈을 때 음파가 거의 도달하지 못하는 구역이 형성되는데 이를 음영대 (shadow zone)라 한다.

높은 음속을 보이는 구간이 있다면 음속이 최소가 되는 구간도 있다. 음속이 최소가 되는 이 층을 음속최소층 또는 음파통로라고 부른다. 음파통로에서는 음속이 낮은 대신 소리의 전달은 매우 효과적이다. 이 층을 탈출하려는 바깥 방향의 음파가 속도가 높은 구역으로 진행하더라도 금방 음파통로 쪽으로 굴절된다. 음파통로에서는 음파가 위로 진행하면 아래로 굴절하려 하고, 아래로 진행하는 음파는 위로 다시 굴절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즉 음파는 속도가 낮은 층 쪽으로 굴절해서 그 층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층에서 만들어진 소리는 수천 km 떨어진 곳에서도 들린다.

해양에서의 음속 변화 특징은 오늘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음영대를 이용해 잠수함이 음파탐지기로부터 회피하여 숨을 장소로 이동하거나, 음파통로를 이용해 인도양에서 음파를 일으켜 대서양을 돌아 태평양으로 퍼져나가게 한 후 온난화 등의 기후 변화를 관찰하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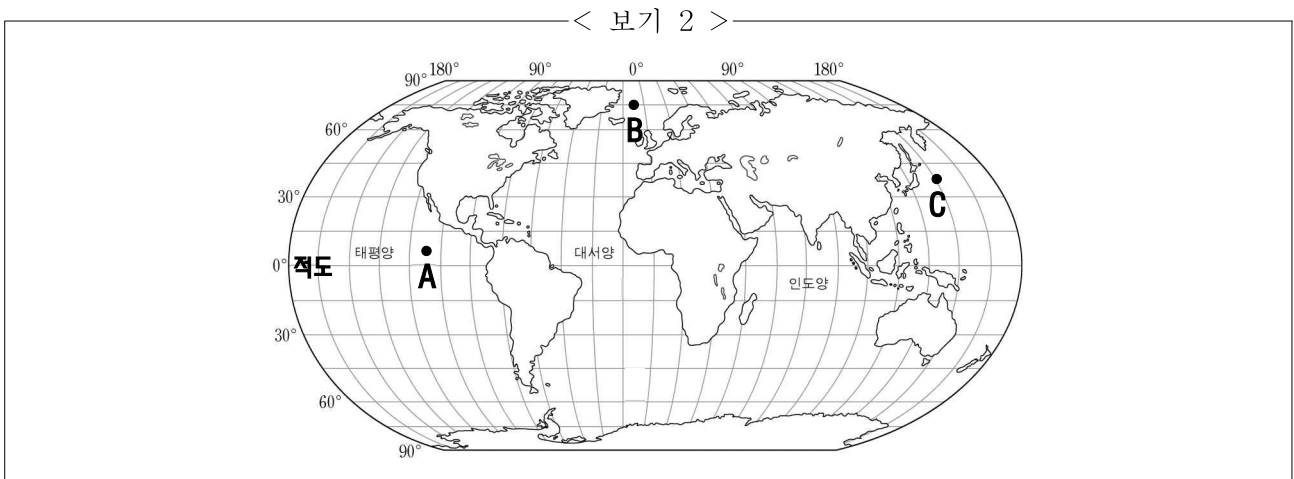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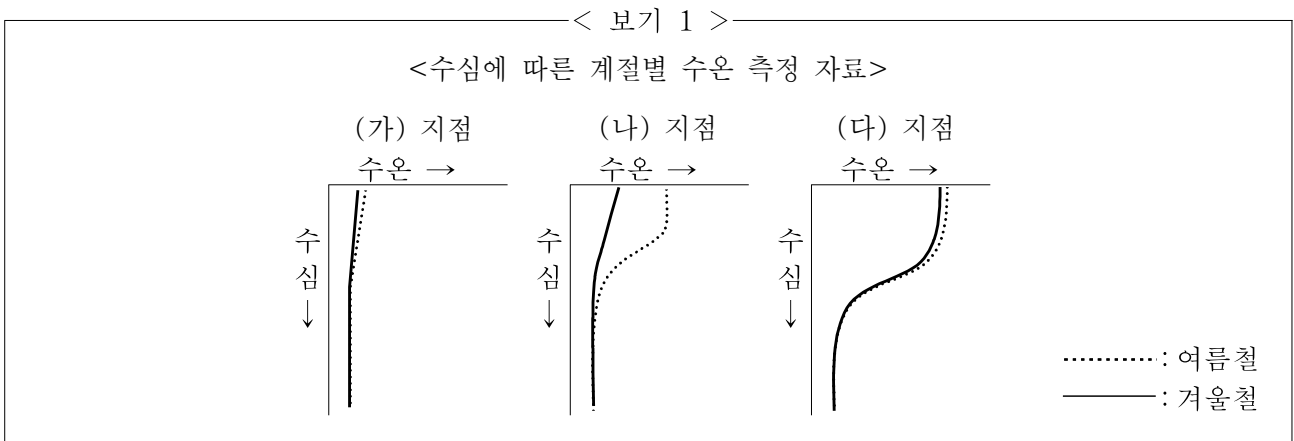
23. 윗글을 통해 미루어 짐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온이 일정한 구역에서는 수심이 증가할수록 음속도 증가할 것이다.
- ② 심층에서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은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 ③ 수영장 물 밖에 있을 때보다 수영장에서 잠수해 있을 때 물 밖의 소리가 더 잘 들릴 것이다.
- ④ 음영대의 특성을 이용하면 잠수함은 적의 음파 탐지로부터 숨을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⑤ 음속이 최소가 되는 층에서 발생한 소리는 멀리까지 들리므로 기후 연구 등에 이용될 것이다.

24. 밑글로 보아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온약층이 계절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 ② 압력이 증가할수록 수온이 계속 감소하기 때문이다.
- ③ 밀도가 다른 해수층을 만나 음파가 굴절되기 때문이다.
- ④ 압력 증가의 효과가 수온 감소의 효과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 ⑤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에 비례하여 수압과 수온 모두 상승하기 때문이다.

25. 밑글과 <보기 1>을 참고할 때, (가)~(다)의 측정 지점을 <보기 2>에서 바르게 추정한 것은? (3점)



- | | (가) 지점 | (나) 지점 | (다) 지점 |
|---|--------|--------|--------|
| ① | A | B | C |
| ② | A | C | B |
| ③ | B | A | C |
| ④ | B | C | A |
| ⑤ | C | A | 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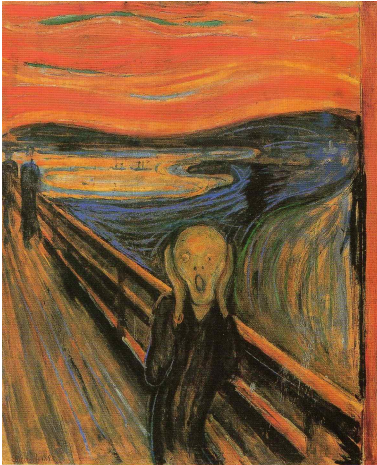
26. 문맥으로 보아 ㉠와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발송(發送)한다
- ② 발행(發行)한다
- ③ 발족(發足)한다
- ④ 발생(發生)한다
- ⑤ 발호(發號)한다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10년을 전후하여 독일을 중심으로 전개된 미술 사조인 '표현주의'는 내면에 잠재된 강렬한 감정과 욕구를 소재로 하여 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자 했던 미술 운동이자, 회화에 사회의식을 반영한 사조로 평가 받는다. 19세기 후반 당시의 독일 사회는 전쟁의 후유증과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표현주의자들은 사회의 모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초라한 인간상을 예리하게 ㉠ 포착하여 불안과 공포, 기쁨과 슬픔 등 자신이 느낀 것을 ㉡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화폭에 담아내고자 했다.

기존의 회화가 외적 세계의 모방에 초점을 두었다면, 표현주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감정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표현주의자들은 외적 세계에 대한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형태를 단순화하고 색채의 수를 최소한으로 사용하였다. 동일한 대상이라도 사람의 감정 상태에 따라 대상이 다르게 보이므로, 당시의 내면 상태를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해 대상의 형태를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표현하였다. 그리고 즉흥적인 느낌을 주는 듯한 거친 붓놀림과 선에 의해 단순화된 형태, 그리고 과장된 색채를 ㉢ 선호하였다. 특히 표현주의자들은 판화를 많이 제작하였다. 작가들은 판화에서는 과장된 색채 대신 흑백 대조를 활용하여 극적인 효과를 얻으려 했고, 거칠고 날카로운 선들을 이용하여 당시의 부정적인 사회 상황을 드러내려 하였다.



당대인들은 표현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를 짐작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 왼쪽의 작품은 표현주의의 대표작인 몽크의 「절규」이다. 이 작품이 베를린 전시장에 걸리자 많은 관람객들이 작품에 대해 비난을 하였고, 결국 이 전시장은 폐쇄되기도 하였다. 전통적인 감상 방식에 얽매어 있었던 당대 사람들은 표현주의의 어둡고 무거운 주제와 일그러진 형태, 자연스럽지 못한 색감에서 불편함을 느낀 것이다. 표현주의는 감정과 이념을 표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입체적 구도의 균형이 주는 조형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작가의 내면세계에 대한 메시지의 전달을 더욱 중시하였다. 따라서 표현주의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나타나는 형태와 색채를 통해서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작가의 감각과 감정 상태를 읽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표현주의는 전후의 혼란 속에서도 독일을 중심으로 지속되었으나 나치 정권으로부터 퇴폐 예술로 규정되어 탄압을 받으면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 하지만 표현주의는 눈에 보이는 바깥 세계의 묘사에 간혀 있었던 예술적 안목을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세계의 표현 영역으로 ㉣ 확장함으로써 현대 회화의 물꼬를 텃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대 회화에서 작품의 재현적 가치보다 ㉤ 개성적 가치가 중요한 미학적 개념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예술적 창의성과 다양성을 ㉥ 시도했던 표현주의의 실험 정신이 남겨 놓은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27. 윗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표현주의 미술의 주된 소재는 무엇인가?
- ② 표현주의 미술이 탄압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 ③ 표현주의 미술에 영향을 준 미술 사조는 무엇인가?
- ④ 표현주의 미술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가?
- ⑤ 표현주의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작품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표현주의 작가 콜비츠의 대표작인 「궁핍」이다. 이 작품은 실업과 사회적 붕기가 잦았던 슐레지엔 지방 방직 공들이 당면한 비참한 처지를 다룬 석판화로서, 작가가 실제로 죽어가는 어린아이를 지켜 본 후 괴로운 마음에서 창작한 작품이라고 한다.

이 작품의 특징은 머리를 감싼 남자의 손이 과장되게 표현되었고, 거칠고 날카로운 선을 사용하였으며, 일부 대상은 세밀하게 묘사하지 않고 흑백의 대조만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작품은 독일의 황제가 주최하는 미술 대회에서 금상으로 선정되었으나, 독일의 내각은 ‘작품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게 하거나 달래주는 요소가 전혀 없는 기법을 사용했다.’라며 황제에게 이 수상의 취소를 건의했다고 한다.

- ① 대상을 세밀하게 묘사하지 않고 흑백의 대조만으로 표현한 것은 극적인 효과를 얻으려 한 것이겠군.
- ② 방직공의 모습을 거칠고 날카로운 선으로 표현한 것은 산업화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나타내려는 콜비츠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겠군.
- ③ 미술 작품을 전통적인 감상 방식으로 감상했던 당대인들은 비참한 당대 사회 현실이 드러나는 이 작품을 보며 불편함을 느꼈겠군.
- ④ 머리를 감싼 남자의 손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은 비극적 모습을 목격한 콜비츠가 자신의 괴로운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군.
- ⑤ 대상을 왜곡하여 표현하면서도 원근법을 통해 장면에 입체감을 부여한 것은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려는 콜비츠의 의도가 구현된 것이겠군.

29. 문맥을 통해 미루어 볼 때, ㉠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객관적 시각으로 관찰한 대상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② 대상을 바라보며 느낀 점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대상의 고유한 비례와 균형을 찾아서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결함을 보완해서라도 대상을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⑤ 다양한 각도에서 포착한 대상의 모습을 한 작품 안에 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30. 문맥을 고려하여 ㉡~㉤을 우리말로 고쳐 쓸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잡아내어
- ② ㉢: 아름답게 꾸미지
- ③ ㉣: 특별히 좋아하였다
- ④ ㉤: 넓힘으로써
- ⑤ ㉥: 이끌었던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피가도 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그을린 이마 흰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뼈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꺾꺾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떠 무등산이 그렇다고 흰한 이마 꼬덕이는
 고갯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

- 김용택, '섬진강 1' -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슬픔을 확산시키고 있다.
- ② 동일 시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 ③ 공간의 대조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32. 윗글을 영상시로 제작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보 기 > —

- ㄱ. 산을 감고 흘러가는 물줄기의 모습을 제시하자.
 ㄴ. 강변에 여러 가지 풀꽃들이 피어 있는 모습을 제시하자.
 ㄷ. 식물도감을 들고 꽃을 채집하는 학생의 모습을 제시하자.
 ㄹ. 하루 일을 마치고 낄낄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농부의 모습을 제시하자.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3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일반적으로 시에서 ‘끓이지 않고 흐르는 강’은 ‘역사성’, ‘시간의 흐름’, ‘정화’, ‘생명력’, ‘희망’ 등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이 시에서도 시인은 부정적 상황 속에서도 끓이지 않고 흘러가는 섬진강과 그 주변의 자연을 둘러보며 강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① ‘개울물들이 끓이지 않고 모여 흐르며’를 통해 끈질기고 강한 생명력을 엿볼 수 있어.
 ②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에서 비극적 역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낄 수 있어.
 ③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에서 부정적 세력을 몰아내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
 ④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는 부정적 존재들이 위협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⑤ ‘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을 통해 희망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 **아버진 죄를 지었다**. 아직은 넌 모를 테지만, 그 때문에 아버지는 집을 떠나신 거여. 하지만..... 네 아버지는 눈매가 고운 분이셨다. 우리 마을에서 단 하나뿐인 학생이었고..... 남들이 사람을 해치려는 걸 한사코 말리려고 했지. 그 때문에 살아난 사람도 여럿이 있어. 정말이여.

그런 어머니의 변명은 끝끝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지 못했다. 그 후로 나는 좀처럼 아버지께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다. 뜻밖에도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의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졌던 탓이리라.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아버지의 그 죄라는 것을 내 스스로 함께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이었고, 그 때문에 나이에 걸맞지 않게 나는 눈빛이 깊고 어두운 아이가 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은 저주처럼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그는 언제나 시커먼 어둠 저편에 숨어서 음산하기 그지없는 눈빛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어디에나 숨어 있었다. 내 어릴 때 이따금 고개를 디밀어 들여다보면 ㉠ **마루 밑** 저편 깊숙이 도사리고 있던 그 까마득한 어둠 속에도 그 어둠 속에서 술술 기어나오던 그 눅눅하고 음습한 냄새 속에서도 내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그 사내는 핏발 선 눈알을 번득이며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이었다. 그건 어디서 묻었는지도 모르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까지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처럼 내게는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다.

[중략 줄거리] 군 복무 중이던 ‘나’는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 참호를 파다가, 6·25전쟁 때 죽은 사람의 유골을 발견한다. 누구의 유골인지 알아보기 위해 수습 현장에 인근 마을의 노인을 불렀다.

“그렇다면 이치도 아마 빨갱이었겠구만. 안 그래요?”

소대장이 지휘봉의 뽀족한 끝으로 쿡쿡 찌르듯 ㉡ **유해**를 가리키며 말했다. 인사제가 되물었다.

“어쨌서요.”

“산을 타고 도망치던 빨치산들이 그리 많이 죽었다잖아. 이치도 보기엔 군인은 아니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근처의 주민이었다면 가족이 있을 텐데 임자 없이 이리저리 핑개쳐 뒀을라구.”

“그걸 누가 압니까. 그때야 워낙 피차에 서로 죽고 죽이던 판인데.....”

그때였다. 쭈그려 앉아서 손을 움직이고 있던 노인이 불쑥 소리치는 것이었다.

“어허, 대관절..... 대관절 그게 어떻다는 얘기로. 죽어서까지 원 아무리 이렇게 죽어 누운 다음에까지 이쪽이니 저쪽이니 하고 그런 걸 굳이 따져서 무얼 하자는 말이오. 죽은 사람이 빛을 알길래..... 죄다 부질없는 짓이지. 쯔쯔.”

노인의 음성은 낮았지만 강하고 무거웠다. 그러면서도 노인은 고개를 숙인 채 뺏조각에 묻은 흙을 정성스레 닦아내고 있었다. 무슨 귀한 물건만양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신중히 손질하고 있는 노인의 자그마한 체구를 우리는 둘러서서 지켜보았다. 모두들 한동안 입을 다물었고 나는 흙에 적셔진 노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똥속에 누운 사람의 잠을 살아 있는 사람이 깨워서야 되겠소. 또 그럴 수도 없는 법이고. 원통한 녀이니 죽어서라도 편히 눈감도록 해야지, 암. 그것이 산 사람들의 도리요..... 하기는, 이렇게 불편한 꼴로 묶여 있었으니 그 잠인들 오죽했을까만.”

노인은 어느 틈에 꾸짖는 듯한 말투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두개골과 다리뼈를 꼼꼼히 문질러 닦은 뒤,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완강하게 묶인 매듭은 마침내 노인의 손끝에서 풀리었다. 금방이라도 찢겨 찢겨 췌소리를 낼 듯한 ㉢ **철사 줄**은 싱싱하게 살아 있었다.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그 오랜 시간과 땅 밑의 어둠을 끝끝내 견뎌 내고 그렇듯 시퍼렇게 되살아 나오는 그것의 놀라운 끈질김과 냉혹성이 언뜻 소름끼치도록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노인은 손목과 팔에 묶인 결박까지 마저 풀어낸 다음 허리를 펴고 일어서더니 줄 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 나갔다. 그가 허공을 향해 그것을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마당가에서 하늘을 치어다보며 서 있는 어머니의 가녀린 목줄기와 그녀가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곤 하던 하얀 물 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가 스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나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험벗은 등을 까내놓고 죽은 듯이 엷드려 있었다. 사위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피잉, **현기증**이 일었다.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돌돌거리며 흐르는 물소리를 거슬러 강변 모래밭을 어머니가 혼자 저만치서 다가오고 있었다. 모래밭은 하얗게 햇살을 되받아 쏘며 은빛으로 반짝였다. 허리띠를 질끈 동인 어머니의 치맛자락이 흐느적이며 바람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햇살에 부신 눈을 가늘게 오므리고 줄곧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꿈속에서처럼 나는 그녀의 뒤를 바짝 따라오고 있는 한 사내의 환영을 보았다. 그건 아버지였다. 언젠가 어머니의 낡은 반단이 깊숙한 옷가지 밑에 숨겨져 있던 액자 속에서 학생복 차림으로 서 있던 그대로 그건 영락없는 그 사내였다. 나를 어머니의 배 속에 남겨 놓은 채 어느 바람이 몹시 부는 날 밤, 산길을 타고 지리산인가 어디로 황황히 떠나가 버렸다는 사내. 창백해 보이는 뺨에 마른 몸집의 그 사내가 어머니와 함께 걸어 오고 있는 것이었다. 놀란 눈으로 풀밭에 앉아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어머니의 눈썹과 코, 입의 윤곽과 야윈 목줄기까지 뚜렷이 드러날 만큼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어느 틈에 사라져 버리고 없었다.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얗게 반짝이는 모래밭 위로 어머니가 찍어 내는 발자국만 유령처럼 끈질기게 그녀의 발꿈치를 뒤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관 대신에 신문지로 싸 유해를 맨 처음 그 자리에 다시 묻어 주었다. 도톰하니 ㉠ **봉분**을 만들고 뗏장까지 입혀 놓고 보니 영성한 대로 형상은 갖춘 듯싶었다. 노인은 술을 흙 위에 뿌려 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먼저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잔을 돌렸다. 오 일병이 노파가 준 북어를 내놓았고, 덕분에 작은 술판이 벌어졌다. 음복인 셈이었다.

“얌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니까, 자 한 잔씩 마셔라.”

“그래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킬킬대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저것 봐라이. ㉡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다. 가슴과 팔목에 철사 줄을 동여맨 채 사내는 이쪽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쾅하니 열려 있는 그 사내의 눈은 잔뜩 겁에 질려 있는 채로였다. 애앵. 총성이 울렸고 그는 허물어지듯 앞으로 고꾸라지고 있었다. 불현듯 **시야가 부영게 흐려** 왔다.

아아.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쑥부쟁이와 엉경귀 꽃을 지천으로 피워 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달진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 임철우, ‘아버지의 땅’ -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 사건이 과거 회상, 인물의 상상과 중첩되고 있다.
- ② 다양한 인물들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③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일상적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④ 서사가 진행될수록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 ⑤ 차분한 어조를 쓰며 사건에 대한 객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유년 시절에 겪었던 공포로부터 도피하던 공간이다.
- ② ㉡은 ‘나’가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는 계기가 된다.
- ③ ㉢이 유골을 옥죄고 있는 것은 전쟁의 참상을 암시한다.
- ④ ㉣을 만드는 행위는 죽은 이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 ⑤ ㉣은 아버지와의 재회를 기대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나타낸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아버지의 땅」은 6·25전쟁 때 좌익 활동을 하다 행방불명된 아버지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는 ‘나’가 아버지와 화해에 이르는 모습을 그린 소설이다. 이 작품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나’의 태도를 통하여 6·25전쟁의 상처와 갈등이 전후 세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아버지를 이해하며 화해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전쟁 상처 극복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아버진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어머니를 통해 ‘나’도 전쟁의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게 된다.
- ② ‘나’가 아버지를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나’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다.
- ③ ‘현기증’이 일어나며 아버지의 환영을 보는 장면은 아버지에 대한 ‘나’의 태도 변화를 암시한다.
- ④ 아버지를 떠올리며 ‘시야가 부엌에 흐려’지는 ‘나’의 모습은 전쟁의 상처 극복을 기대하게 한다.
- ⑤ ‘어느 버려진 밭고랑’은 아버지와 화해에 이르는 ‘나’가 아버지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극복했음을 보여준다.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내 생애(生涯) 엇더흔고. _____ [A]
 넷 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_____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 만흔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맛들 것가.
 수간 모옥(數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얹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 주인(風月主人) 되여셔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 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휘여 잇고, _____ [B]
 녹양 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도다.
 ㉠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 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롭다.
 ㉡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 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익 다를소냐.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에 안자 보니,
 소요 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흔디, _____ [C]
 한중 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산수(山水) 구경 가자스라.
 답청(踏青)으란 오늘 헝고 욱기(浴沂)란 내일(來日) 헝새. _____ [D]
 아츠·口에 채산(採山)헝고 나조히 조수(釣水)헝새.
 꺾 꺾여 닉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건듯 부러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새 진다.
 준중(樽中)이 뷘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 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ㄱ의 호자 안자,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清流(淸流)를 굽어보니 썬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_____ [E]
 무릉(武陵)이 갓갑도다, 저 락이 권 거인고.
 송간 세로(松間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봉두(峰頭)에 급피 올라 구름 소기 안자 보니,
 ㉣ 천촌 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넉.
 연하 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펴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샤.
 공명(功名)도 날 썬우고 부귀(富貴)도 날 썬우니,
 청풍 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 단포 누항(簞瓢陋巷)에 훗튼 혜음 아니 헝넉.
 아모타, 백년 행락(百年行樂)이 이만흔들 엇지헝리.

37. [A] ~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생애’에 대한 자부심을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수간 모옥’ 주변의 경치를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부각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호재로다’에 담긴 고독한 정서를 대조의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 ④ [D]에서는 ‘니웃’들과 풍류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대구의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E]에서는 ‘술’로 인한 취흥을 고사(故事)를 이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3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칼로 마름질하거나 붓으로 그려낸 것 같다는 뜻으로 봄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새 소리가 흥겹게 들린다는 뜻으로 화자의 흥취를 자연물에 투영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③ ㉢: 향기는 잔에 어리고 꽃잎은 옷에 떨어진다는 뜻으로 물아일체의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 ④ ㉣: 아름다운 마을이 곳곳에 펼쳐 있다는 뜻으로 이상향이 실현된 공간을 그리고 있다.
- ⑤ ㉤: 소박하게 살며 헛된 생각은 안 하겠다는 뜻으로 삶에 대한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39.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조선 전기 사대부들에게 자연은 관조를 통해 지극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정극인 역시 자연과 소통하며 삶의 충만함을 느끼고자 했다. 즉 일상적 현실에서 벗어나 은일하며 자연과의 조화와 합일을 추구한 것이다. <상춘곡>은 그의 이러한 세계관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 ① 인간적 욕망에 시달리면서도 자연 속에서 이러한 욕망을 극복하고 있군.
- ② 학문의 정진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치를 깨닫고 있군.
- ③ 자연을 즐거움을 얻는 공간으로 묘사하며 심리적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자연과의 합일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안타까움에서 벗어나고 있군.
- ⑤ 자연에 대한 관조를 통하여 화자의 잘못을 성찰하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40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이시백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갈 때 임경업이 군관으로 수행하게 된다. 마침 그 때 호국이 가달의 침략을 받아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한다. 그러나 명나라에 마땅한 장수가 없어 임경업이 청병대장으로 출전하여 가달을 물리쳐 명나라와 호국에 그 이름을 떨친 후에 조선으로 돌아온다.

임경업이 의주부윤으로 도입한 후로 군정을 살피고 사졸(士卒)을 연습하더니, 호장이 경업의 허실을 알고자 하여 압록강에 와 엿보거늘, 경업이 대로하여 토병을 호령하여 일진을 엄살하고,

“되놈을 잡아들이라.”

하고 명하니, 군사가 되놈을 결박하여 들이거늘, 경업이 크게 꾸짖으며

“내 연전에 너희 나라에 가 가달을 쳐 파하고 호국 사직을 보전하였으니, 그 은덕을 마땅히 만세불망(萬世不忘)할 것이어늘, 도리어 천조를 배반하고 아국을 침범코자 하니, 너희 같은 무리를 죽여 분을 씻을 것이로되 십분 용서하여 돌려보내나니, 빨리 돌아가 본토를 지키고 다시 외람된 뜻을 내지 말라. 만일 다시 두 마음을 먹으면 편갑(片甲)*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국을 소멸하리라.”

하고 끌어 내치니, 되놈들이 쥐가 숨듯 돌아가 제 대장과 군졸을 보고 수말을 이르니, 장졸들이 크게 노하여

“임경업이 공교한 말로 아국을 능욕하여 군심(軍心)을 미혹케 하니, 맹세코 경업을 죽여 오늘날 한을 씻으리라.”

하고, 병마 중 정예한 군사를 뽑아 7천을 거느려 압록강에 이르러 강을 사이하고 진세(陣勢)를 베풀고 외치기를,

“조선국 의주부윤 임경업 필부(匹夫)는 어찌 간사한 말로 나의 군심을 요동케 하느냐. 너의 재주가 있거든 나의 철퇴를 대적하고, 불연즉(不然則) 항복하여 죽음을 면하라.”

하거늘, ㉠ 경업이 대로하여 급히 배를 타고 물을 건너 말에 올라 청룡검을 빗겨들고 호진(胡陣)에 달려들어 무인지경같이 좌충우돌하니, 적장의 머리 추풍낙엽같이 떨어지매 적장이 당해내지 못하여 급히 달아날 새, 서로 짓밟히며 물에 빠져 죽은 자가 그 수를 셀 수 없더라.

경업이 필마단창(匹馬單槍)으로 적진을 파하고 본진으로 돌아와 승전고를 울리며 군사를 호쾌*할 새, 의주 군졸이 일시에 하례하며 즐기는 소리가 진동하더라.

이튿날 새벽에 강변에 가 바라보니, 적군의 주검이 피같이 쌓이고 피 흘러 내가 되었는데지라.

이때 적병이 돌아가 호왕을 보고 패한 연유를 고하니, 호왕이 듣고 대로하여 다시 기병하여 원수 갚음을 의논하더라. 경업이 관중에 들어와 승전한 연유를 장계하니, 상이 보시고 크게 기뻐하신 중 후일을 염려하시나, 조신(朝臣)들은 안연 부동하여 국사를 근심하는 이 없으니 가장 한심하더라.

이때 호왕이 경업에게 패한 후로 분기를 참지 못하여, 다시 제장을 모아 의논하여,

“예서 의주가 길이 얼마나 하느냐.”

좌우가 대답하기를,

“열하루 길이니, 한편은 갈 수풀이요 압록강을 격하였사오니, 월강하여 마군(馬軍)으로 대적한즉 수만 군졸이 모여 진을 칠 곳이 없고, 또한 군사가 패한즉 한갓 죽을 따름이니, ㉡ 기이한 계교를 내어 경업을 멀리 피한 후에 군사를 나아감이 좋을까 하나이다.”

호왕이 옳게 여겨 용골대(龍骨大)로 선봉을 삼고 말하기를,

“너는 수만 군을 거느려 가만히 황하수(黃河水)를 건너 동해로 돌아 주야배도(晝夜倍道)하여 가면 조선이 미처 기병치 못할 것이요, 의주서 알지 못할 것이니, 왕도(王都)를 엄습하면 어찌 항복받기를 근심하며, 대사를 성공하면 경업을 사로잡지 못하리오.”

용골대가 청령하고 군마를 아침 일찍 출발할 새, 호왕께 하직하니, 호왕 왈,

“그대 이번엔 가매 반드시 조선을 항복받아 나의 위엄을 빛내고 대공을 세워 수이 반사*함을 바라노라.”

용골대가 청령하고 승선발행(乘船發行)하니라.

경업이 호병을 파한 후에 사졸을 조련하여 군기를 보수하고 성첩을 수축하여 후일을 방비하되, 조정에서는 호병을 파한 후에 의기양양하여 태평가를 부르고 대비함이 없더니, 국운이 불행하여 의외 불의지변(不意之變)을 당한

지라.

철갑 입은 오랑캐 동대문으로 물 밀듯이 들어와 ㉠ 백성을 살해하고 성중을 노략하니 도성 인민이 물 끓듯 곡성이 진동하며, 부모 형제 부부 노소가 서로 실신하여 살기를 도모하니, 그 형상이 참혹하더라.

이런 망극한 때를 당하여 조정에 막을 사람이 없고, 종사의 위태함이 경각 사이에 있는지라. ㉡ 상이 망극하사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피난하실 새, 급히 가마를 타고 강변에 이르사 배를 타시매, 백성들이 뱃전을 잡고 통곡하며 물에 빠져 죽는 자가 무수하니, 그 형상을 차마 보지 못하겠더라. 왕대비와 세자 삼형제는 강화로 가시고, 남은 백성은 호적에게 어육(魚肉)이 되니라.

도원수 김자점은 이런 난세를 당하였으되 한 계교를 베풀지 못하고, 용골대는 백성의 집을 헐어 뗏목을 만들어 강화로 들어가더라. ㉢ 강화유수 김경징(金慶徵)은 좋은 군기를 고중(庫中)에 넣어두고 술만 먹고 누웠으니, 도적이 스스로 들어가 왕대비와 세자·대군을 잡아다가 송파(松坡) 벌에 유진(留陣)하고, 세자·대군을 구류하고 외치기를,

㉣ “수가 항복하지 아니하면 왕대비와 세자·대군이 무사치 못하리라.”

하는 소리 천지진동하더라.

— 작자 미상, ‘임장군전’ —

* 편갑(片甲) : 싸움에 지고 난 군사를 비유한 말.

* 호궤(犒饋) : 음식을 베풀어 군사를 위로함.

* 반사(班師) : 군사를 이끌고 돌아옴.

40.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사 전개에 따라 서술자를 달리하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 ③ 상황 변화에 따라 인물의 성격이 변하고 있다.
- ④ 초월적 공간을 통해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특정한 장면을 부각시켜 해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41. 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한산성을 포위하여 항복시킨다.
- ② 의주를 우회하여 왕도를 급습한다.
- ③ 임경업을 속임수로 유인하여 제거한다.
- ④ 압록강을 월강하여 마군으로 대적한다.
- ⑤ 염탐꾼을 보내 임경업의 허실을 파악한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㉑~㉔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병자호란은 조선 인조 14년(1636)에 청나라 태종이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하여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쫓겼다가 항복하고 굴욕적인 화약(和約)을 맺었던 사건이다. 병자호란 때 임경업은 중국 명나라와 합세하여 청나라를 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김자점의 모함으로 죽었다. 「임장군전」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서 허구적 내용을 가미한 소설이다. 작품의 주제는 임경업에 대한 영웅화,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 굴욕적 패배에 대한 정신적 보상, 조정 관료에 대한 비판 등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다.

- ① ㉑은 주인공의 용맹함을 부각시켜 영웅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② ㉒은 독자들에게 청나라의 만행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겠군.
- ③ ㉓은 병자호란 때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④ ㉔은 외침에 대처하지 못한 지배층의 잘못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⑤ ㉔은 굴욕적 패배에 대한 정신적 보상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겠군.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골동집 출입을 경원한 내가 근간에는 학교 다니는 길 옆에 꽤 진실성 있는 상인 하나가 가게를 차리고 있기로, 가다오다 심심하면 들러서 한참씩 한담(閑談)을 하고 오는 버릇이 생겼다.

하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이 가게에 들렀더니 주인이 누룩한 두꺼비 한 놈을 내놓으면서 ㉠ “꽤 재미나게 됐지요.” 한다.

황갈색으로 검누른 유약을 내려 씌운 두꺼비 연적(硯滴)인데, 연적으로서는 희한한 놈이다.

4, 50 년래로 만든 사기(砂器)로서 흔히 부엌에서 고추장, 간장, 기름 항아리로 쓰는 그릇 중에 이따위 검누른 약을 바른 사기를 보았을 뿐, 연적으로서 만든 이 종류의 사기는 초대면이다.

두꺼비로 치고 만든 모양이나 완전한 두꺼비도 아니요, 또 개구리는 물론 아니다.

특 튀어나온 눈깔과 딱 버티고 앉은 사지(四肢)며 아무런 굴곡이 없는 몸뚱어리, 그리고 그 입은 바보처럼 ‘헤—’ 하는 표정으로 벌린 데다가 입 속에는 파리도 아니요 벌레도 아닌 무언지 알지 못할 구멍 뚫린 물건을 물렸다.

콧구멍은 금방이라도 벌름벌름할 것처럼 못나게 뚫어졌고, 등허리는 꿈무늬에 이르기까지 석 줄로 두드러기가 솟은 듯 쪽 내려 얹게 만들었다.

그리고 유약을 갖은 재주를 다 부려 가면서 얼룩얼룩하게 내려 부었는데, 그것도 가슴 편에는 다소 희멀끔한 효과를 내게 해서 구석구석이 교(巧)하다느니보다 못한 놈의 재주를 부릴 대로 부린 것이 한층 더 사랑스럽다.

요즈음 골동가들이 본다면 거저 준대도 안 가져갈 민속품이다. 그러나 ㉡ 나는 값을 물을 것도 없이 덮어놓고 사기로 하여 가지고 돌아왔다. 이 날 밤에 우리 내외간에는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 쌀 한 되 살 돈이 없는 판에 그놈의 두꺼비가 우리를 먹여 살리느냐는 아내의 바가지다.

이런 종류의 말다툼이 우리 집에는 한두 번이 아닌지라 종래는 내가 또 화를 벌컥 내면서 “두꺼비 산 돈은 이놈의 두꺼비가 값아 줄 테니 걱정 마라.”고 소리를 쳤다. 그러한 연유로 나는 이 잡문을 또 쓰게 된 것이다.

잠꼬대 같은 이 한 편의 글 값이 행여 두꺼비값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내 책상머리에 두꺼비 너를 두고 이 글을 쓸 때 내가 감정을 가진 물건이라면 필시 너도 슬피할 것이다.

너는 어찌 그리도 못 생겼느냐. 눈알은 왜 저렇게 튀어나오고 콧구멍은 왜 그리 넓으며 입은 무얼 하자고 그리도 컸느냐. 옷을 듯 울 듯한 네 표정! 곧 무슨 말이나 할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나에게 왜 아무런 말이 없느냐. 가장 호사스럽게 치레를 한다고 네 놈은 얼썹덜썹하다마는 조금도 화려해 보이지는 않는다. ㉢ 흡사히 시골 색시가 능라 주속(綾羅紉屬)*을 멋없이 감은 것처럼 어색해만 보인다.

앞으로 앓히고 보아도 어리석고 못나고 바보 같고……. 모로 앓히고 보아도 그대로 못나고 어리석고 멍텅하기만 하구나. 내 방에 전등이 휘황하면 할수록 너는 점점 더 못나게만 보이니 누가 너를 일부러 심사를 부려서까지 이렇게 만들었던 말이나.

㉣ 네 입에 문 것은 그게 또 무어냐. 필시 장난꾼 아이 녀석들이 던져 준 것을 파리인 줄 속아서 받아 물었으리라.

그러나 뱉어 버릴 줄도 모르고, 준 대로 물린 대로 엉거주춤 앉아서 울 것처럼 옷을 것처럼 도무지 네 심정을 알 길이 없구나.

㉤ 너를 만들어서 무슨 인연으로 나에게 보내주었는지 너의 주인이 보고 싶다.

나는 너를 만든 너의 주인이 조선 사람이란 것을 잘 안다.

네 눈과, 네 입과, 네 코와, 네 발과, 네 몸과, 이러한 모든 것이 그것을 증명한다. 너를 만든 솜씨를 보아 너의 주인은 필시 너와 같이 어리석고, 못나고, 속기 잘 하는 호인(好人)일 것이리라.

그리고 너의 주인도 너처럼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성격을 가진 사람일 것이리라.

내가 너를 왜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그 못생긴 눈, 그 못생긴 코, 그리고 그 못생긴 입이며 다리며 몸뚱어리들을 보고 무슨 이유로 너를 사랑하는지를 아느냐.

거기에는 오직 하나의 커다란 이유가 있다.

4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골동집 주인은 ‘나’에게 흥미 있는 사건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 ② ㉡: ‘나’는 언젠가 두꺼비 연적이 골동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 믿고 있다.
- ③ ㉢: ‘나’는 두꺼비 연적의 외양이 화려함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 ‘나’는 ‘너의 주인’이 두꺼비 연적을 만들기로 마음먹은 순간을 상상하고 있다.
- ⑤ ㉣: ‘나’는 ‘너의 주인’이 의도적으로 두꺼비 연적을 ‘나’에게 보냈다고 확신하고 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